

내부 참고용

# 1995~2005년간 북한 신년사 자료집

2005. 12



통일부 정보분석국



# 목 차

1. '95~'05년간 북한 신년사 추이분석
2. 북한의 신년사 연표
3. '91~'05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
4. '95~'05 북한 신년사 원문

<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년사 분석(1995~2005,  
서강대 김영수 교수)



'95 ~ '05년간 북한 신년사  
추이분석

2005. 12

정보분석국



# 1. 북한 신년사 개관

## □ '신년사'의 의미

- 북한 당국이 한 해 동안의 대내·외 및 대남분야 정책의 근간과 추진방향을 망라하여 제시하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공식적·포괄적 정책제시 수단
  -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최고 권력자의 지시라는 점에서 목표를 관철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며
    - \* 김부자 동상·초상화에 헌화, 신년사 학습이 북한 주민들의 새해 첫 과업
  - 신년사에 언급되는 1년 동안의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를 토대로 각급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 \* 당·정·군 고위 계층부터 일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민들의 관련 업무수행과 생활의 지침
- 전주민이 의무적으로 신년사를 청취 하고, 직장인·학생은 소감문 제출 및 신년사 해설 정치학습 참가 등 정치사회화 도구로 기능
  - 신년사 학습자료(당 「선전선동부」 작성)를 직장 및 동·인민반까지 배포, 각급 기관·지역별 학습 진행
    - \*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신년사 학습은 각 직장마다 전담 '학습강사'를 파견, 학습총회를 통해 전문 통달 및 내용 통의 실시

## □ 발표 형식

- '46.1.1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 제목의 신년사를 발표한 이래, 신년사·축하문·연설·사설·공동사설 등 형식으로 매년 발표

- 김일성의 경우, '57('56.8 종파사건의 여파) · '87('86.12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시정연설로 대체) 두 번을 제외하고, 6.25전쟁 시기 축하문 · 신년 축하연에서의 연설 · 노동신문 사설 · 시정연설 등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정책방향 제시
- 김정일의 경우, '95~'05 육성 신년사 대신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노동청년/청년전위) 공동사설로 새해 목표와 지침을 발표
- \* '97 청년동맹 비리사건으로 '98 신년공동사설에서 청년보 제외

## □ 집필진

- 「노동신문」 정론 집필진이 작성 → 당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일의 승인을 받아 완성
- \* 김정일은 집필진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지휘부 성원'이라 칭하는 등 우대

## 2. '95~'05년간 북한 신년사 특징

### □ 제 목

- 신년사 제목은 당해 년도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
- '95년 이후 신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 <첨부1> 참조
- ① '하자'형의 긍정적 청유 · 동원형을 제목으로 채택
- '90년대 중·후반 '다그쳐 나가자'와 같은 절실하고 절박한 용어에서 벗어나 '00년대에는 '빛내이자, 높이 떨치자' 등 자신감에 찬 표현으로 전환



## ② 용어 사용상의 특징

- '당의 령도', '당창건', '전당' 등의 표현(6회)을 많이 사용
- '진군', '건설', '승리', '진격로', '비약', '위력', '공세' 등 자신감에 찬 목표지향적 단어를 많이 사용
- '02년부터는 '강성대국'과 '선군'을 번갈아 제목의 핵심단어로 사용

③ '93년 신년사의 '전당·전민·전군' 표현 → '05년 신년사에서는 '전당·전군·전민'으로 바뀜.

## □ 내용상 특징

### 【 대내면 】

#### ○ 고난의 행군시기 : 유훈통치('95~'97)

- 내외정세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난의 행군' 제시
- 김일성 '유훈 관철' 강조 등 유훈통치 강화
- 경제난 극복을 위해 농업·경공업·무역 중시

#### ○ 도약 준비기 : 김정일 부각('98~'99)

- 유훈통치 종결 및 김정일 시대 개막 부각
- '먹는 문제' 해결 등 경제건설 강조

#### ○ 강성대국 건설시기 : 적극적 경제난 해결 모색('00~ )

-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을 강조

- 김정일 중심으로 체제결속 및 내부역량 강화
- 실리 추구, 사회주의 분배원칙 등 경제관리 개선 추진

## 【 대외면 】

### o 체제안정 추구기 : 통미봉남('95~'98)

- 김일성 사망과 식량난으로 인한 국내 체제불안으로 수세적 대남·대외전략 구사
- 통미봉남을 통한 대미 평화보장체제 구축 전략 추구
- 대남 배제전략 속에서도 민간통일운동 지원
- 남조선 통일역량강화 지원
-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한 식량난 해결, 체제안정에 주력

### o 과도기: 대남·대외정책의 변화 추구('99~'00년)

-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강성대국 건설 표방
- 국내 정치체제 공고화(헌법 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대남 연공연북통일 요구와 제국주의 비난 등 대외정책 변화 태동

### o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기 : 민족공조, 핵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주도적 대외전략 추진('01~'05년)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강조하며 민족공조 주장
- 「부시」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미 강경전략 구사
- 조선민족 對 미국의 대결구도 유도 罫

## '95~'05년간 북한 신년사 제목

연 도	신년사 제목
1995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996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7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199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1999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돛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4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5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95~'05년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

- '95년 : 김일성 '유훈관철' 강조
  - 김일성 사망에 따른 충격과 심리적 공백을 극복하고 김정일 중심으로 유훈 관철, 당 중앙위 영도 확고히 보장
  - 혁명 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 및 대미 평화보장체계 수립 강조
- '96년 : '고난의 행군' 제시
  - '95년이 가장 어려운 때였음을 솔직히 밝히고 '고난의 행군' 정신 견지 호소
  -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진지인 '정치사상'·'경제'·'군사'진지 구축 강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촉구
- '97년 : 김정일을 영도자로 부각시키는데 주력
  - 김정일 정치사상의 핵심인 '붉은기 사상의 일색화' 및 김정일 중심의 단결 호소
  -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 언급, 통미봉남 시도
- '98년 : '공화국 창건' 50돌을 맞아 먹는 문제의 완전해결 촉구
  - 남한 당국에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주장
- '99년 : 유훈통치 종결 및 '김정일 시대' 개막을 집중 부각
  -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명시하고 농업생산 제고 강조
  - 민족대단결 강조 등 연공연복,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

- o '00년 :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제시하고 '경제대국' 건설 강조
  - 대남 비난과 선결조건 제시 없고, 대미·일 비난 자제
- o '01년 : '고난의 행군' 결속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을 강조
  - 새로운 정책보다 현실여건 감안한 실질적 정책방향 제시에 역점
- o '02년 : 「4대 제일주의」(수령, 사상, 군대, 제도)를 새롭게 제시하여 김정일 중심의 내적단결을 강조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 완성의 기본방향임을 언급
- o '03년 : '03년을 「대담한 공격전의 해」·「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 대내외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 시현
  - 김정일 중심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경계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강조
- o '04년 :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등 「3대전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체제결속 및 내부역량 강화 강조
  - '당창건 60돌'·'조국광복 60돌'의 성대한 준비를 목표로 설정
- o '05년 : '선군혁명총진군'을 올해 구호로 제시, 강성대국건설을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
  - 당창건·광복 60돌이 되는 해를 최대한 활용, 체제수호 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

## 분야별 용어 사용의 특징

### ① 사상 분야

단 어	주 요 특 징
자 주	고난의 행군시기, 미국 대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30돌 시점에서 강조
민 족	김일성 사망 직후(태양민족 의미), 6·15 이후(남북 민족의미) 자주 등장
계 급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급감
사회주의	고난의 행군시기 특히 강조, '민족' 강조시 상대적으로 감소
공산주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일시적으로 자주 등장
주체사상	'선군'이 등장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 2차 핵위기시 재부상
유 훈	고난의 행군시기 자주 등장, 2차 핵위기 시점에 '수령'과 함께 재등장
붉은 기	대포동미사일 발사, 2차 핵위기, 「7.1 조치」 등 거치면서 재등장
선 군	'99 처음 제시 이후 꾸준히 등장, 2차 핵위기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 '선군→선군정치→선군사상'으로 점차 변화
도덕의리	고난의 행군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
인 민	고난의 행군시기 특히 강조, '군' 강조되면서 감소
당	'선군' 등장 시기에 급격히 감소, 2차 핵위기시 '군'이 강조되면서 감소
군	'선군'의 본격화와 2차 핵위기 시점을 통해 현저히 증가

### ② 지도자

단 어	주 요 특 징
수 령	김일성 사망 직후 자주 사용하였으나 점차 감소, 2차 핵위기시 자주 사용
영도자	'03부터 급감
영 도	'령도자'와 함께 급감, 선군·민족 등 등장으로 사용 빈도 낮아짐.
김일성	'수령'과 같은 추이를 보임.
김정일	김일성 감소시기에 증가하다가 '령도자'와 함께 빈도수 감소 경향
수뇌부	'04~'05에 급속 증가, '김정일' 감소시기에 나타나는 경향

③ 군사 분야

단 어	주 요 특 징
군	'03년부터 빈도수 증가, 체제보장에 대한 군의 중요성 언급
오중흡 연대	'98년 이후 지속 등장, 김정일·수뇌부 결사옹위정신 강조

④ 경제 분야

단 어	주 요 특 징
농 업	식량난으로 계속 농업을 강조, '05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하면서 사용 증가
감자, 두벌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에 대한 대책으로 감자농사, 두벌식 농사 등 제시
과학, 기술	꾸준한 사용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00년 이후 사용 횟수가 증가(강성대국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사용이 증가)
현대, 정보	'01년 이후에 사용, 현대화와 IT 분야 등에 대한 주력화로 빈도수 증가

⑤ 당, 사회 분야

단 어	주 요 특 징
인 민	'진군'이나 '비약'을 제목으로 할 때 '인민'을 많이 사용('당과 인민'의 형태로 많이 쓰임)
당	꺾어지는 해에 특히 많이 사용
당창건	당창건 기념과 관련된 해에 많이 사용
당 원	'붉은기 사상'을 강조할 때 빈도수가 많아짐.
당 중앙위	유훈통치 기간에 강조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
전당, 전군, 전민	유훈통치 기간 '김정일 중심의 단결'을 호소할 때 많이 사용
경제건설	먹는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계속 강조

단 어	주 요 특 징
사회주의건설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용어로 자주 사용
강성대국(건설)	'99년부터 중요한 구호로 등장
문 화	근년에 들어서서 강조되는 양상을 보임.
교 육	근년에 들어서서 강조되는 양상을 보임.
대 중	흔히 '인민'과 함께 쓰임.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시대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할 때 간혹 사용

⑥ 대남·대외 분야

단 어	주 요 특 징
우 리	고난의 행군 시기에 특히 강조
민족 공조	6.15 공동선언 이후 강조
통 일	김일성 사후 통일업적 강조 차원에서 사용
평 화	고난의 행군 시기 대미 평화보장체제 구축 차원에서 강조
제국주의	민족의 개념이 강화되는 시기에 강조
미 국	고난의 행군 시기 '미국'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미제와 미국을 혼용



북한의 신년사 연표



발표	제 목	비고
46.1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향	
47.1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48.1	신년사	
49.1	국토의 완전(完整)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꺾기하자	
50.1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51.1	1951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52.1	1952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53.1	1953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54.1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1954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55.1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56.1	증산하고 절약하여 3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자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57	없음	
58.1	신년사	
59.1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60.1~ 65.1	신년사	
66.1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1966년	노동신문 사설
67.1	1967년 새해에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하자	
68.1	새해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69.1	196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경축야회에서 한 연설	
70.1	1970년을 새로운 역사적인 승리의 해로 빛내자	노동신문 사설
71.1~ 86.1	신년사	
87	86.12.30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로 대체	

발표	제 목	비고
88.1~ 94.1	신년사	
95.1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당보·군보·청 년보 공동사설
96.1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
97.1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
98.1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당보·군보 공동사설
99.1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당보·군보·청 년보 공동사설
00.1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01.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
02.1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
03.1	위대한 선군 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
04.1	당의 령동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05.1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높이 떨치자	"

\* 91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육성방송 및 노동신문 1면 게재

\* 92~94년은 구랍에 음수산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당 중앙위, 중앙인민위, 정무원 연합회의 진행시 실시

\* 95년부터는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

'91 ~ '05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



## □ 91년 김일성 신년사 발표

### 개 요

- 김일성은 '91년도 신년사를 통해 ①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 발전 ②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 ③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방식의 연방제 ④ 당국,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민족 통일정치협상회의 등을 주장하였음.

### 신년사요지

### 대내분야

#### < 정 치 >

- 주체의 혁명노선 견지
  - 당의 주체적 혁명노선 계속 견지
  -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
-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

#### < 경 제 >

- '90년도 경제건설 실적
  - 발전소, 공장·기업소 개건·확장, 주요대상 건설 추진
  - 농촌 수리화, 관개망 800km 건설(대동강→예성강, 압록강→재령강)
  - 인민생활 향상 위해 평양에 3만세대 주택 건설

○ '91년도 경제정책 방향

- 제3차 7개년계획 주요 대상건설 우선적 추진
  - 석탄· 전력· 수송· 금속공업을 선행부문으로 설정
  - 알곡· 천· 인민소비품 증산으로 인민 물질생활 향상
-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을 위한 집체적 지도 강화

대남 및 통일분야

< 군사문제 >

○ 군사문제 선차적 해결

- 왕래나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군사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데는 타협할 수 없음.

○ 불가침선언에 대한 남측 입장 비난

- 신뢰조성 우선은 불가침선언 회피의 구실
- 불가침선언을 휴지장이란 말은 남북이 합의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으로 회담 자체가 무의미

< 통일문제 >

○ 대미 평화협정 촉구(3자회담 논리)

-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핵무기를 철수

○ 조국통일 방도 확정 필요

- 조국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 제도의 단일화 통일(제도적 통일) 반대



- 제도적 통일은 먹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접수될 수 없으며, 강요시는 충돌과 민족 재난 야기

○ 민족통일 협상회의 소집 제의

-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 잠정 부여 후→중앙정부 기능을 더욱 높여 가는 방향으로 연방제의 완성문제 협의 용의
-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위한 당국·정당·단체 대표 참가 민족통일 협상회의 소집 제의

**대외분야**

○ 반제·자주적 대외정책의 견지

-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반제·자주적 대외정책의 정당성 뚜렷이 실증
-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

○ 자주·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기조 유지

- 사회주의·블럭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 발전
-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경제·문화에 걸친 남남 협조 발전

○ 아시아 인민의 단결·협조

- 아시안들이 자주성과 단결·협조로 아세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 이룩, 세계평화 위업에 이바지

## 분석

### 내용면

#### ○ 대내분야에 있어서는

- 정치·사회적으로 3대 혁명의 견지와 의식주문제 해결 강조를 통해 체제 안정을 위한 자기방어의 수세적 입장표출
- 경제적으로는 지난해 제시한 『증산과 절약 투쟁』 성과 및 대외경제 협력문제 언급을 회피, 실적 부진 반영

#### ○ 대외분야에 있어서는

- 외교적 대남 열세를 인식, 기존의 대사회주의·비동맹 중심의 외교 저지, 아시아역내외교 강조, 대일 접근의 강한 의지표명

#### ○ 대남면에서는

- 대남비난공세 강도의 저하를 보이면서 『조국통일 5개방침』의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불가침선언의 대화 필요조건화 및 독일식 흡수통합에 대한 강한 의구심 표출

### 구성면

- 시간면에서는 '89년 30분, '90년 42분에 비해 금년은 50분으로 늘어난 추세
- 구성면에서 특히 경제부문 언급 축소, 대남 및 통일부문 대폭 증가

연도별('88 - '90년) 신년사 주요 내용

구 분	'88년	'89년	'90년
대 내 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혁명노선 견지</li> <li>- 3대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li> <li>○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발양</li> <li>- 당의 집체적 지도 강화와 군중노선 관철을 통해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발양</li> <li>○ 주요 대상 건설 적극 추진</li> <li>- 발전소, 탄광, 광산, 제철, 제강 생산기지 등 건설에 힘을 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혁명노선 강화</li> <li>- 혁명적 기세 견지와 3대혁명 추진</li> <li>○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발양</li> <li>-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발양을 위한 사회주의 대진군 운동을 전개</li> <li>○ 경공업 및 공작기계·전자자동화공업 발전촉구</li> <li>- 경공업제품의 질 제고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 발전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혁명노선 강화 및 당의 영도 강화</li> <li>- 3대 혁명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정당한 노선, 당의 영도역할 강화 필요</li> <li>○ 정치·문화·물질생활 동시발전</li> <li>- 정치·문화·물질 생활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당의 방침</li> <li>○ 경공업과 농업동시 발전 및 식·주문제 해결</li> <li>-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과 대대적인 도시·농촌 주택건설</li> </ul>

구분	'88년	'89년	'90년
대의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평화지대화 투쟁 전개</li> <li>-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핵무기 철폐</li> <li>○ 사회주의·비동맹 국가와의 협조 및 남남협조 강화</li> <li>- 사회주의·블럭 불가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 발전과 남남협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고수 투쟁 전개</li> <li>-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지키며 사회주의 옹호·고수를 위해 투쟁</li> <li>○ 블럭불가담 운동 및 남남협조 확대 발전</li> <li>- 블럭 불가담 운동과 정치·경제 등 제분야에서 남남협조 확대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제도도 개선 필요</li> <li>- 사회주의 건설방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li> <li>○ 비핵·평화지대화 투쟁 전개</li> <li>- 핵전쟁 위험 제거와 비핵·평화지대 창설</li> <li>○ 사회주의·비동맹 국가와의 협조 및 남남협조 강화</li> </ul>
남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불가침 선언 채택</li> <li>-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불가침선언</li> <li>○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li> <li>- 팀스피리트 훈련,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자를 포함 남북연석회의 소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내 통일 투쟁 확대</li> <li>- 남조선의 통일투쟁은 집체적·대중적으로 확대되고, 연방제 통일 투쟁으로 발전</li> <li>○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li> <li>- 연방제 협의를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 및 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총재, 김수환, 문익환, 백기완 초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단독가입 및 대화창구 일원화 반대</li> <li>- 유엔가입과 대화창구 일원화 주장은 민족의 통일외사 외면</li> <li>○ 남북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li> <li>- 자유왕래 실현에 머물지 말고 전면개방</li> </ul>

## □ 92년 김일성 신년사 발표

### 개 요

- 김일성은 '92년도 신년사를 통해 ①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발전 ② 남북한 당국의 남북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③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강조하였음.

### 신년사 요지

#### < 대내분야 >

##### 「정 치」

-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총적 방향
  - 3대혁명 강화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
- 당 중심으로 일치 단결
  - 전체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로 계속 전진

##### 「경 제」

- '91년 실적
  - 무산광산 확장공사, 함남비료공장 설비현대화, 2·8 비날론공장 산소분리기직장 1단계공사 등을 완료
  - 객토작업 등 자연개조사업 추진으로 농사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룩

## ○ '92년 과업

- 기본과업은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
  - ※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목표임”
-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과업은 전력과 석탄의 생산증대와 철도 운수를 발전시키는 것
-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주력해야 하며,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킴.
-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벌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

## < 대남 및 통일분야 >

### 「남북『합의서』는 조국통일강령」

- 『합의서』는 통일실현의 새로운 이정표
  - 7. 4 공동성명과 더불어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
  -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통일실현
- 『합의서』의 이행대책
  - 군축, 긴장완화로 신뢰구축
  -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
  - 유관국의 『합의서』 존중 및 협조 필요

### 「핵사찰」

-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는 일관된 입장
  - 핵무기 개발의 능력도 의사도 없음.
  - 공정성 보장 조건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

- 핵사찰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은 불용납

### 「민족대단결」

- 남·북, 해외동포의 대단결이 통일의 근본
- 폭넓은 대화 및 다방면적 협력·교류의 발전 위해 노력

### < 대외분야 >

#### 「반제·자주적 대외정책 견지」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 분쇄투쟁 강화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교란책동을 저지
-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
  -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의 좌절을 사회주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를 들어낸 것

#### 「자주·평화·친선 정책기조 유지」

-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 강화
- 블록불가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강화
  - 변화된 정세에 공동대처

####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 수호에 노력」

-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폐기

## 분 석

### ○ 이번 김일성 신년사의 내용과 특징은

- 소연방 소멸 등 대변혁의 전환기적 신국면을 맞아 주민의 사상동요 방지에 주안을 두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로 사회주의 위업 수호 및 전진을 다짐.

\*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의 좌절을 사회주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를 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필승의 합법칙성 강변

- 대남면에서는 예년과 달리 상투적인 대남비방과 통일전선형성 선동을 완화하고 민간급 대화정세(정치협상회의 등)를 자제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체제 방어적인 공존지향의 현실주의 노선 추구의 일면으로 볼 수 있음.

### ○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남북 『합의서』를 7. 4 성명 3원칙이 반영된 조국통일강령이라고 평가하고 쌍방의 성실한 이행을 역설한 가운데

- “자주는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등 민족자주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대화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상회담”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한편 “냉전시대의 낡은 관점으로 힘의 입장에 서서 조선문제를 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유관국을 간접 비난하면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

-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대책으로서 신뢰구축, 교류·협력보다는 군축실현, 긴장완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에 비중을 둬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



※ 주한미군 철수, T/S훈련 중지, 연방제 정당성, 제도적 통일반대 등의 상투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음.

○ 핵사찰문제에 관해서는

- 국제적 압력이 아닌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의 사찰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기존 입장의 재표명에 불과하나
- 핵무기 개발의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등

※ “우리는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한다면 안 하는 것이지 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국제 핵사찰 압력을 장기간 모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한 채 전력과 석탄생산을 높이고 철도운수의 발전을 가장 긴급한 과업이라고 강조하고, 흰쌀밥에 고기국, 비단옷, 기와집 등 식의주 문제의 해결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한 중요목표라고 언급하면서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생산증대를 강조하였음.

※ 에너지난, 식량난, 소비재난을 자인한 것이라 하겠음.

※ 김일성이 “흰쌀밥, 고기국, 기와집”등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62.10.22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보고에서임.(※ “1964년에는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대외관계면에서는

- 외교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사

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과 연대성 및 블록 불가담운동의 강화만을 역설하였음.

○ 기타 신년사 형식 및 구성면 등에서

- 이번 신년사는 구랍 31일 노동당·중앙인민위·정무원 연합회의에서 발표하였고
- 신년사 소요시간은 총 37분이었으며('89년 30분, '90년 42분, '91년 50분)
- 분야별 비중은 새해인사, 대내정치 5분, 경제 15분, 통일 10분, 대외관계 6분, 맺음 1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신년사 중 52회의 박수(작년 56회)로 절대적 지지를 과시하였음.

○ 결론적으로 금년 김일성 신년사는, 남북 『합의서』의 성과 및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타나내고 있으나 그 밖에 예년과 같은 전년도 실적과시 및 새해의 정책 방향 제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주민의 단합("당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과 그들식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는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구분	'91년	'92년
대 남 및 통 일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문제 선차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침선언 채택</li> <li>- T/S 중지</li> <li>- 조·미 평화협정 체결</li> <li>- 미군 및 핵무기 철수</li> </ul> </li> <li>○ 통일방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식 통일</li> <li>- 단일제도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li> </ul> </li> <li>○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당국·정당·단체 대표가 통일 방도 합의</li> <li>- 연방제 완성문제 협의용의</li> </ul> </li> <li>○ UN 단일의석 가입 불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합의서』는 조국통일 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실현의 새로운 이정표</li> <li>- 7. 4 공동성명과 더불어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li> <li>-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통일실현</li> </ul> </li> <li>○ 남북 『합의서』의 이행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축, 긴장완화</li> <li>-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화</li> <li>- 유관국의 『합의서』 존중 및 협조 필요</li> </ul> </li> <li>○ 핵사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는 일관된 입장</li> <li>- 핵무기 개발의 능력·의사 없으며, 공정성 보장조건에서 핵사찰 수용 용의</li> <li>- 핵사찰 관련 부당한 압력 불용납</li> </ul> </li> <li>○ 통일의 근본은 민족대단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해외 각계각층 동포의 대단결 필요</li> <li>- 폭넓은 대화 및 다방면적 협력·교류 발전</li> </ul> </li> </ul>

구분	'91년	'92년
대 외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제·자주적 대외정책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에 강력히 투쟁</li> <li>- 사회주의의 승리는 역사의 법칙</li> </ul> </li> <li>○ 자주·평화·친선정책 기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블록불가담 국가 및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 발전</li> <li>- 집단적 자력갱생 원칙하에 남남협조 발전</li> </ul> </li> <li>○ 아시아 인민의 단결·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인민들의 단결·협조로 아시아의 안전과 공동번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제투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 분쇄</li> <li>- 일부 사회주의 나라의 좌절을 사회주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li> </ul> </li> <li>○ 자주·평화·친선정책 기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 강화</li> <li>- 블록불가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강화로 변화된 정세에 대처</li> </ul> </li> <li>○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 수호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 폐기</li> </ul> </li> </ul>

## □ 93년 김일성 신년사 발표

### 개 요

- 북한은 김일성이 '92.12.31 당중앙위·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연합 회의에서 발표한 '93년도 신년사를 1. 1 오전 9시에 보도하였음.

※ 신년사 소요시간은 약 25분으로 예년에 비해 짧았음.  
( '90년 : 42분, '91년 : 50분, '92년 : 37분)

- 금년 신년사의 주요 내용은

-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없이 그동안의 주장들을 되풀이한 수준으로서
- '92년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북한에 대한 말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주체성을 과시한 영광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93년에는 전당·전민·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자고 역설하였음.
- 특히 통일·대화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연방제”를 강조하고 “자주적이며 성실한 태도라면 누구와도 대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종래 상투적으로 주장해 오던 “주한미군 철수”, “군축”, “핵문제”, “재야·운동권에 대한 선전선동”, “남한내부 정세”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음.

### 분 석

#### 【'92년도 정세 회고 및 실적 평가】

## ○ 전반적 정세 평가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인 북한을 고립·질식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해 보려고 책동하였다”고 함으로써 그들 체제에 대한 압력과 위협을 토로
-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하여 자기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갈 인민이 아니며, '92년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한층 견고화되었고 인민들의 충실성과 헌신성으로 사회주의 진지가 강화되었다”고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곤경국면을 주민사상 무장으로 극복코자 하였음을 시사.
- 북한사회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한 사람의 실업자도 없으며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리에 따라 모든 성원들이 고락을 같이하며 골고루 잘사는 우월한 사회라고 과시

※ 이는 흰 쌀밥, 고기국, 기와집이 사회주의 목표라는 언급과 상충되는 바 대남경제·복지면에서의 열세를 의식한 허장성세의 발언임

## ○ 경제 실적면

-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자평
- 그러나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으며, 특히 금년도가 3차7개년계획의 최종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나 추진방향에 대해 일체 침묵하고 있는 바, 이는 당면한 경제난을 반증

## ○ 통일·대남면

- “남북대화가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마침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키는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에 주동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호도

-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 수 있게 된 오늘에 와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고 도발적인 T/S 연습을 재개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 보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대화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

#### ○ 주변국 관계면

-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냉전시대 정책에 매어 달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부진에 대한 불만 표시

#### 【'93년도 분야별 정책방향】

#### ○ 정치면

-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발전에 주력
  - 북한사회가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안정된 사회라고 주장하고, 외부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
-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및 일심단결 강조
  -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당·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주체사상 및 3대 혁명노선 견지
  -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원칙과 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일 것을 촉구

#### ○ 통일·대남면



- “민족자주원칙” 강조

-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통일의 근본원칙이며 누구든지 민족자주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언명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주체사상이 구현된 원칙이라고 주장

- 연방제 통일방안 재확인

- 기 주장해 왔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 실현 계속 추구

- 유관국들의 정책 전환 촉구 및 협력 강조

- 냉전의 산물인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국들이 냉전 시대의 낡은 정책을 버려야 하며, 북한에 대해 군사·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 유관국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선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입장에 설 때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o 경제면

- 석탄·전력·금속공업부문에 역점

- 금년도 경제건설의 중점과업을 석탄·전력·금속공업부문으로 설정하고 특히 석탄 증산을 당면한 경제난 해결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 강조

- 식량증산을 위한 화학비료 공급 확대에 주력

- 화학비료의 증산이 식량생산의 기본열쇠로 간주하고 이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 것을 촉구

※ 대외경제개방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나 지난해의 헌법개정 및 외국인 투자 관련법 발표 등으로 볼 때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 군사면

- 4대 군사노선의 철저한 관철로 무력 및 전인민적 방위체계 강화

· 『전군 간부화·전군 현대화·전민 무장화·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력 및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을 강조

- 체제수호를 위한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대비에 역점

· 전체 인민군 자영, 노농적위대원, 붉은청년군위대원들에게 『사회주의 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할 것을 촉구

## ○ 사회면

- 인민들의 의식주문제 해결 강조

· 모든 사람들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목표라고 언급, 지난해에 이어 의식주문제 해결이 당면과업임을 강조

※ 김일성이 “흰 쌀밥, 고기국, 기와집” 등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62.10.22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보고에서임.

(“1964년에는 모두가 기와집에서 고기국을 먹으며 이밥에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사회주의문화 건설에서의 지식인의 역할 강조

· 지식인들은 “당의 혁명전사”로서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발휘, 사회주의문화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촉구

○ 대외면

- 『자주·평화·친선』 원칙 재확인

· 현 국제정세가 복잡하기는 하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아갈 것임을 표명

-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 유지

· 온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방

【결론 및 전망】

○ 결론적으로 금년도 김일성 신년사는

- 예년과 같은 전년도 실적과시 및 새해의 정책방향 제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없고

- 체제방어적인 차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신념을 주민들에 고취시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헌신성으로 주민들이 단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통일·대화와 관련하여 자주적 입장을 강조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군철수, 구속인사 석방 등 대한·미 비방은 자제하였음.

○ 이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 북한주의체제 고수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 서방국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 남북대화는 T/S 연습이 끝난 이후 재개에 응해 올 것으로 전망됨.

## □ 94년 김일성 신년사 발표

### 개 요

- 북한은 김일성이 구랍 31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연합회의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1월 1일 오전 9시에 녹음실황으로 보도하였음.

※ 신년사 소요시간은 약26분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90년 42분, ’91년 50분, ’92년 37분, ’93년 25분)

### 신년사 요지

#### 【전반적 정세 평가】

-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전례 없이 악랄하게 벌어졌음.
-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리고 있지만 자주·독립·사회주의에로의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역사의 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음.

#### 【경제면】

- 앞으로 3년 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함.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이것이 우리 인민들의 전투적 구호임.

## 【군사면】

- 어떠한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 물질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음.

## 【통일·대남면】

-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10대 강령, 특사교환 제안들을 외면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 의존의 길로, 민족 단합이 아니라 북남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
- 남조선의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역대 군부 독재정권과 다른 것이 없음.
- 우리는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핵문제】

-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 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
- 압력이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음.

## 【대외면】

-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

## 분석

### 【전반적 정세 평가】

- '93년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북한 고립·말살 책동이 가장 악랄한 한해였으나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로 이를 잘 막아낸 승리의 한해였다고 자평하였음.
- '94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혁명적 전환의 해라고 전제하고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어 혁명적인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자주·자립·자위의 혁명노선 및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노선 견지
  - 당과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과 자력갱생 강조
- 여전히 사회주의로의 지향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변, 국제사회의 변화를 호도하고 있음

### 【경제면】

- 지난해와 같이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93.12. 8) 결정사항을 반복해서 강조
  - 이는 제시할만한 구체적인 실적이 없을 정도로 제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며
  -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주민불만 해소와 외화가득이 당면 경제문제 해결의 최우선 목표임을 재확인
- 다만 대외무역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외시장 개척, 대외신용 제고 수출품목 다양화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출증대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대외개방의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됨.

- 그러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전투적 구호”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경제개방에 대한 정책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일·대남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고 남북화해·협력과 특사 교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측이 외세 의존과 대결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다고 우리측에 대화중단의 책임을 전가
- 특히 남측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고 핵문제를 구실로 “군사적 대응이나 공조체제나 하면서 북남 관계를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 넣었다”고 강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
- 연방제 통일방안의 재확인
  -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 입장 불변 표명
- 우리 문민정부 강력 비난
  - 과거 팻쇼군사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매도
-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전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을 견지하고 있음.

### 【핵문제】

- “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는 종래 입장 반복

- 북의 핵개발 의혹 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이는 미국의 반사회주의, 반복한 책동의 산물이라고 되풀이 주장

○ “핵문제는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 가능 주장

- 핵문제는 압력이나 위협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군사면】**

○ 방위력 강화에 역점

- 불의의 사태시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준비, 군사적 준비, 물질적 준비』 강조
- 온 사회에 군사 중시 및 『인민군대』원호 기풍 확립 강조

※ 작년에 비해 『물질적 준비』와 『군사 중시·군대 원호 기풍』을 강조한 것이 특징

**【대외면】**

○ 외교면에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 모면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단결방침도 계속 견지

**종합평가**

○ 전반적으로 경제부문에 비중을 둔 반면 통일이나 남북대화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불과함.



- 경제부문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인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향후 3년간의 완충기의 전략방침으로 재천명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대외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노선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대남 태도면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

※ 그러나 신년사가 대남 공세적 비난을 통한 북한 주민의 긴장조성을 겨냥한 내부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신년사의 비난과 다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 해결은 『조·미 회담』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미국이 제네바 공동성명(2단계 회담)의 원칙을 지키면 해결된다고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음.

※ 그러나 북측의 이 같은 의도적인 대남 무시 태도는

- ① 3단계 미·북 회담 성사를 위한 미·북 실무 접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 ② 미·북 고위급 접촉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대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내적으로 온 사회의 군사 중시 풍조와 사상혁명의 관철을 강조한 것은 병영국가체제를 지속시킴으로써 체제 위기 모면을 위한 내부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적들의 전쟁도발책동”, “적들과 침예한 대립”, “사회주의에 대한 고립·말살 음모”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긴장분위기를 조성

## □ 95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95.1.1 오전 9시 TV·라디오 “중대방송”을 통해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를 발표(소요시간 약 33분)한 데 이어 지난 해에 있었던 김일성 신년사를 재방송하였음.

※ 김정일은 1월 1일 오전 9시 30분 인민군 214부대를 방문

### 공동사설 요지

#### < '94년 회고 >

- '94년은 우리 당과 인민이 김일성 동지와 영결한 가장 비통한 해였음. 그러나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해였음.

#### < '95년 정책방향 >

##### 【 정치면 】

- 올해는 조선로동당 창건 50돌과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뜻깊은 해임.
- 우리는 올해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주체사상이 기치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함.
- 전당·전국·적군에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여야 함.

## 【 경제면 】

-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 결정 사항인 농업과 경공업·대외 무역 발전에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함.
-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경제 전략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임.
  - 농촌경리부문 :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 발휘와 주체농법 관철
  - 경공업부문 : 섬유제품, 일용품, 식료가공제품 생산 증대
- 전력·석탄·철도운수·금속 등 선행공업 부문은 기술혁신과 함께 모든 생산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 연료·동력·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함.
- 군(郡)은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이며 지역적 거점이므로 군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함.
  - 군에서는 진천군 상업관리소, 맹산군의 모범을 본받아 지방공업 발전과 지방 주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올해 경제과업 실현의 성과 여부는 당 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에 달려 있음.
  - 당 조직은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 지도일군은 충실한 경제 조직사업과 생산지휘 실시

## 【 군사면 】

-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이 기본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정치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금성철벽으로

지켜 나가야 함.

- 전통적으로 발휘하여 훌륭한 군민일치 미풍을 - 인민들은 군대를 원호하고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명 재산을 목숨바쳐 지키는 -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함.

### 【 통일 · 대남면 】

- 우리와 미국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북남 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해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와 벌이는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매국정권 반대 투쟁을 벌여야 함.
- 통일은 '90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하여야 함.

### 【 대외면 】

- 조 · 미 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조 · 미관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두나라 국가 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임.
- 미국이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될 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우리는 자주 · 평화 · 친선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 파탄시키고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할 것임.

## 분석

### 가. 전반적 정세 평가

- '94년은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이 최대의 손실을 당한 가장 비통한 해였으나 김정일을 중심을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
  - '95년에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개혁·개방의 세계적 조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념과 체제의 폐쇄를 고집하는 가운데
    - “모든 단위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95년 과업 실현 여부는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강조
- ⇒ 변화에 대한 체제의 한계성을 노정

### 나. 경제면

- 지난 해의 경제 운용 결과를 완충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생산에서 불리한 자연기후적 조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막연히 평가
  - '94년도 경제운용 실적이 부진했음을 시사
- '95년도 경제시책방향도 '93.12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완충기간중의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제시되었던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의 최우선적 추진을 재강조
  - 당분간은 김일성 생존시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따르면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북한은 자력갱생·간고분투 정신을 앞세워 농업부문의 점차적인 전인민적 소유화,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 제고 등을 세부 실천 과업으로 제시하는데 그쳤음.

○ 특히 이번 「공동사설」에서 차지하는 경제부분의 비중은 16%에 불과, 전년도의 43% 수준에 비하면 내용의 수준과 총량면에서 크게 떨어짐.

○ '95년도 북한의 산업시책을 주요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 농업부문에서는 농업 협동적 소유의 관리형태를 사상의식 수준과 영농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전인민적 소유의 관리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생산 증대를 모색하고

※ '94.12월중 만경대구역, 숙천군을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 개시

- 경공업 부문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악화일로에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춘실운동, 맹산군 따라 배우기 운동 등 「자력갱생」 운동을 강화하고 지방의 영세한 경공업들을 군 단위로 종합 생산 기지화하여 생필품의 생산을 증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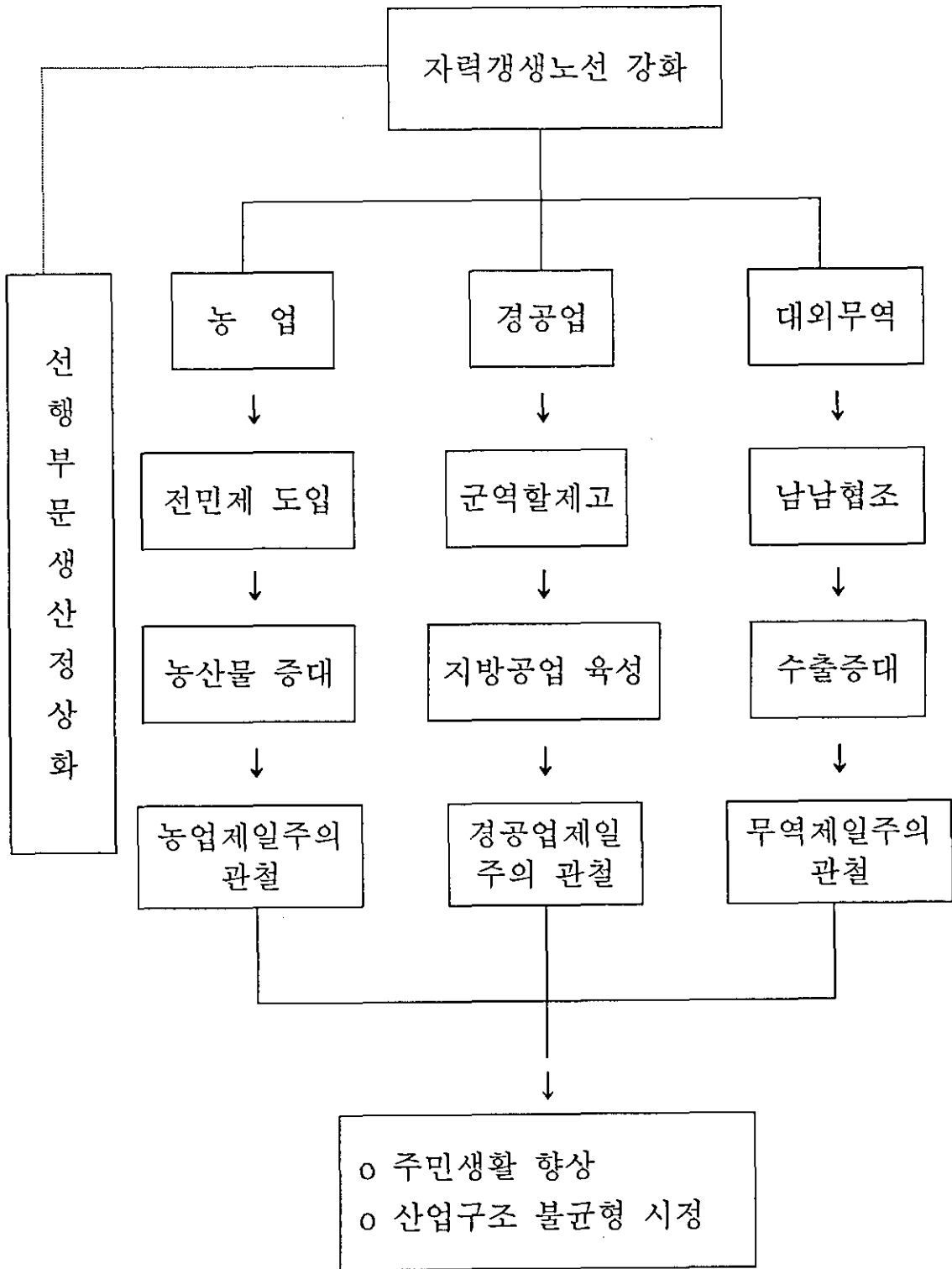
- 대외무역부문에서는 기왕의 임가공 교역을 확대 실시하면서 남남 협조를 중심으로 무역 다변화에 주력하고

- 석탄, 전력, 철도수송, 금속공업 등 「선행부문」에서는 획기적인 시설 투자 확대보다는 기술 혁신과 함께 생산 잠재력의 최대한 동원으로 침체된 생산력을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맞추었음.

○ 이로 볼 때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 농업, 지방공업(경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 세부적인 경제관리 운용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중 특히 식량난과 생필품 공급 부족난을 타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평가됨.

<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구도 >



- 그러나 북한 농장의 전인민적 소유화 실시는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업 입지가 우량한 지대부터 선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는데 그칠 것이며
  - 협동농장들이 국영농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당국의 물질 기술적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단기적으로 농업생산이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로 인한 농업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감퇴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농업생산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군을 단위로 한 지방공업의 종합 기지화 시책은 최근 북한의 지방경제가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예비(유희자재, 원료, 노력 등 경제자원)가 거의 고갈된 상황하에서 공장·기업소의 분권화보다는 집중화를 고수·강화하고 있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음.
  -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지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16.7%를 차지하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 와서는 12.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78.12월 이래 예산 수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방 예산제가 최근에 와서는 동원할 수 있는 지방의 내부 예비 고갈로 생산이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임.

**< 최근 북한의 지방예산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

'87	'88	'89	'90	'91	'92	'93
15.5	15.2	15.0	14.1	12.8	-	-

주 : 북한 발표자료에 의거 산출

**다. 군사면**

-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무력 증강과 전투대비태세의 강화를 촉구



-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강조
-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장
  - 인민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물심양면의 원호를 강조, 군에 대한 민의 희생을 강요
  - ※ 지난 해 김일성 신년사에 비해 김정일 중심 단결과 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

#### 라. 통일대남면

- 현 세기내 통일 성취가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자주·평화 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
  -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 계속 견지
  -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연방국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평화비상체계 수립을 주장하면서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비난
  - 한반도 긴장 책임 전가 및 한·미 안보협력체제 와해 획책
- 우리 문민정부를 역대 군부정권보다 더한 사대매국·파쇼독재·분열정권으로 매도하고 남북대화 중단 및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고 강변
  - 당분간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과 대결 상황을 지속시키려는 의도

#### 마. 대외면

-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대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보수 세력들의 입장에 높은 관심 표출
  - 북한의 성의있는 노력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 NPT 체제 연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서방국가들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외래사조 유입 경계
  - 핵군축의 실현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간섭 교란책동에 대한 저지·파탄 주장
- 사회주의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및 남남협조 강조
  - 친선 및 협조 강조를 통해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국들과의 관계 지속

※ 별첨

## 북한 신년사 연혁

### 1. 연 혁

- '46. 1. 1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품"
- '47. 1. 1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 '48. 1. 1 "신년사"
- '49. 1. 1 "국토의 안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궤기하자"  
- 1949년을 맞이하여 전국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 '50. 1. 1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 '51. 1. 1 1951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 '52. 1. 1 "1952년 새해를 맞이하여"  
-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 '53. 1. 1 "1953년 새해를 맞이하여"  
-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 '54. 1. 1 · 신년축하연에서 한 연설  
· 1954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 '55. 1. 1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 '56. 1. 1 "증산하고 절약하여 3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자"  
-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 '58. 1. 1 "신년사"
- '59. 1. 1 신년 축하연회에서 한 연설
- '60.1.1~'65.1.1 "신년사"
- '66. 1. 1 노동신문 사설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1966년"
- '67. 1. 1 "1967년, 새해에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하자"
- '68. 1. 1 "새해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 '69. 1. 1 "1969년 새해를 맞이하여"  
- 신년 경축야회에서 한 연설
- '70. 1. 1 노동신문 사설 "1970년을 새로운 력사적인 승리의 해로 빛 내자"
- '71.1.1~'94.1.1 "신년사"

- '95. 1. 1 당보 · 군보 · 청년보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자”

○ 신년사 발표 형식

- '91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육성방송 및 로동신문 1면 게재
- '92년 부터는 구랍에 금수산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당 중앙위, 중앙인  
민위, 정무원 연합회의 진행시 실시

○ '90년 이후 신년사 소요시간

- '90년(42분), '91년(50분), '92년(37분), '93년(25분),  
'94년(26분), '95년(33분)

## □ 96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96.1.1 오전 9시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라는 제하의 당보·군보·청년보(『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공동사설을 약 40분간에 걸쳐 보도하였음.
- 김일성이 사망한 데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년사』발표 없이 공동사설로 대체
  - ※ 이번 '96년도의 공동사설도 새로운 정책 대안이나 방향의 제시 없이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공동사설 요지

#### 가. '95년 회고

- '95년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수령에 대한 숭고한 공산주의 도덕이 높이 발양된 『혁명적 의리의 해』 였음.
  - 금수산기념궁전이 꾸려지게 된 것은 가장 뜻깊은 역사적 사변
- '95년은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일심단결의 해』 였음.
  - 조선로동당 창건 50돌과 조국해방 50돌 경축행사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개최

○ '95년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주의의 기치가 높이 휘날린 『신념과 의지의 해』였음.

-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

○ '95년은 김정일의 특출한 실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해임.

## 나. '96년 과제 제시

○ '96년은 김일성이 서거한지 해 수로 3년째 되는 해임.

- 올해는 우리 당과 혁명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혁명 투쟁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전군·전민이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우리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함.

○ 우리는 김일성이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를 결성한 70돌이 되는 올해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을 떨치는 역사적인 해, 행운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함.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해야 함.

## < 3대 진지 구축 >

○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당과 인민의 투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 진지』인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임.

①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임.

-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전체 청년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최고 뇌수인 김정일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하여야 하며, 김정일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혁명의 천만리

길을 역세계 걸어나가야 함.

②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임.

-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져 나가야 함.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의 원만한 생산을 보장해야 함.

· 수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며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혁명의 불길을 높여야 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한 방울의 기름, 한 줌의 석탄, 한 와트의 전력, 한 알의 낱알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야 함.

③ 사회주의 군사적 진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 고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임.

- 모든 장병들을 김정일 동지를 결사 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고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영군체제와 군풍을 세워야 함.

- 인민군대의 총창위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도 있음.

-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꽃피워 나가야 함.

< 대남 · 통일면 >

○ 김OO 일당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연함. 매국반역과 부정협잡을 일삼는 김OO괴뢰정권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 당의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임.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인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함.

### < 대외면 >

- 우리 당은 새해에도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갈 것임.
- 우리 당은 사회주의·반제·자주의 기치를 견결히 지키면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불력불가담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임.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 파탄시키고 핵무기의 전반적이며 완전한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분석 및 평가

### 가. 전반적 정세 인식

- 북한이 처한 전반적 정세와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
  - “가장 어려운 내외 환경”, “어려운 시련속”, “혁명의 전도상에 부닥친 난관”, “우리의 앞길은 순탄치 않지만”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



- '95년을 '혁명적 의리의 해' , '일심단결의 해' , '신념과 의지의 해' 라고 평가하면서
  - △ 김정일 중심의 단결 △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등을 '95년의 성과로 제시하는 가운데
  - 이를 '김정일의 세련된 영도' 의 결과로 선전하는 한편, "김정일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심어준 역사적인 해" 라고 주장
- '96년은 "김일성 사망 3년째가 되는 해로 혁명의 혈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 라고 규정하면서
  -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두리에 뭉쳐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결정적 전환" 을 이룩하고 김정일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 나갈 것을 강조

## 나. 정치분야

- 북한은 금번 공동사설에서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 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유훈통치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 여전히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의 제시없이 과거의 정책노선 및 방침을 되풀이하는 등 정책적 한계 노정
    - ※ '95.8.28 로동신문 정론에서도 이미 "붉은기를 높이 들자" 고 주장
- ⇒ 금년에도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기존 정책노선을 답습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는
  - 올해가 "김일성의 사망 3년째가 되는 해" 임을 부각시키면서,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의 수반" 으로 호칭

⇒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에 계속 주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

- 또한 '96년 투쟁과업으로 『사회주의 3대 진지 구축』을 제시하면서, 이를 『정치사상진지·경제진지·군사진지』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바

- 그동안 김정일이 일련의 논문을 통해 사상 우선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경제』, 『군사』를 동열에 두고 있는 것과

- 종래 '사상·기술·문화' 등 『3대 혁명』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달리 『3대 진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

⇒ 총체적 난국의 타개를 위한 '수세적 입장' 표출

#### 다. 경제분야

- 한편 발표 내용에서 경제면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94년 43% → '95년 16% → '96년 8%)

- 수재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95년을 "내외환경이 가장 어려웠던 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경제실적에 대한 언급 기피

⇒ 당면한 경제난을 간접적으로 시사

- 당면과업으로 △ 알곡생산에서의 결정적 전환 및 수출품의 결정적 증산 △ 석탄·금속공업 및 철도운수 역량 집중 △ 생산에 있어 최대한의 절약방안 강구 등을 제시

⇒ 완충기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 제시가 없으며,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의 구호성 용어 사용을 지양

## 라. 군사분야

- 김정일의 명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영군체계 및 군풍 확립』을 강조하면서
  - “인민군대의 총창위에 평화와 안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을 특히 강조함과 동시에 군사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
- ⇒ 금년에도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마. 대남·통일분야

- 『조국통일 3대 원칙』·『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이른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에 의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되풀이 주장하는 가운데
  - 전년도에 비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격렬한 정권 타도 투쟁을 선동하고
  - 대미평화체제 수립을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는 한편
  - “북의 위협론은 뒤집어 놓은 북침론”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남긴장 및 대결 조성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 ⇒ '96년에도 여전히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간의 긴장·대결 국면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내부 혼란을 위한 통일전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바. 대외분야

- 대미·일 관계개선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간다는 종래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 비동맹 국가 및 평화애호인민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

## □ 97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97.1.1 09:00 '94년도 김일성 육성녹음 신년사를 재방송한 후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제하의 금년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발표하였음.

※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매년 신년사대신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

### 주요내용

#### ◇ '96년 성과

- 전당·전군·전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벌여 온 준엄한 시련의 한 해,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한 해였음.
-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했던 수령옹위정신, 자력갱생정신, 난관극복정신, 낙관주의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였음.
-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영도밑에 우리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고 방위력이 철벽으로 다져짐.

#### ◇ '97년 과업

##### <대내면>

< 정치분야 :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

- 올해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온 사회를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임.

- 붉은기 사상사업은 패배주의·비관주의·개인 이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는 혁명적 공세이며,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 옹위정신임.
- 김일성 3년상이 되는 올해에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사회주의 위용을 떨쳐야 함.

< 경제분야 : 먹는 문제 우선 해결 >

-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마련된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인민생활을 절대적으로 향상시키며 국토건설을 다그쳐 부강조국의 토대를 튼튼히 쌓는 것, 이것이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점 과업임.
- 올해에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관철해 나가야 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대한으로 증산절약할 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내부 예비를 적극 찾아내며 한 와트의 전력, 한 방울의 기름, 한 줌의 석탄, 한 조각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써야 함.

< 군사분야 :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확립 >

-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전군에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 침략군부터 먼저 타격 소멸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야 할 것임.

<대남·통일면>

- 김00 일당에게는 털끝만한 통일의지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해결할 그 어떤 의사도 없으며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음.

-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변함없이 고수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임.
- 통일문제는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임.

### <대외면>

-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압살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함.
- 일본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

### 분석 및 평가

- 금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은
  -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 없이 체제위기를 인정하는 가운데 절망적 상황극복을 위한 『혁명정신』을 적극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 ※ 『커다란 난관과 장애』, 『도전과 시련』, 『준엄한 난국』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뱃심과 낙관으로 ..... 등 절망감을 나타내는 용어사용이 빈번
  -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95, '96년 사설과는 달리 김정일을 영도자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김정일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였음.
- 정치면에서는
  -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역설하는 가운데 『김일성 유훈의 철저한 관철』과 김정일을 위한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였음.

○ 경제면에서는

- 『3대 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 방침을 계속 관철해 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 완충기('94-'96년)의 연장을 시사하고
-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인민생활의 “절대적 향상”을 금년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였음.

○ 대남·통일면에서는

- 종전의 통일전략기조를 되풀이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다소 완화하는 한편
  - ※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기둥”, “3대현장” 이라고 지칭
  - ※ 『국가보안법 철폐』·『콘크리트장벽 해체』·『출소 공산주의자 송환요구』 등 상투적 주장과 남한정권 타도선동은 전무
-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반도문제를 대미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하였음.

○ 또한 대외면에서는

-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간략히 언급하였음.

○ 이로 미루어 보아 향후 북한은

-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식량난 등 당면 난국을 타개하는 데 주력하면서
-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대미·일관계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대남면에서는 당국간 대화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한 민간접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 98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98. 1. 1 오전 8시 중앙·평양방송을 통해 1998년도 신년사를 대신하여 「당보·군보 공동사설」을 발표하였음(25분간 방송).
  - 제목 :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 ※ '97년에는 오전 9시에 김일성 육성녹음 신년사('94년도)를 재방송한 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을 37분간 발표
- 지난해를 「고난의 행군」을 통해 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승리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 올해는 「공화국 창건 50돌」을 맞아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할 보람찬 투쟁과 새로운 비약의 해로 전진하는 가운데 먹는 문제의 완전 해결을 촉구
- 대남관계에서는 “남조선에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남한측의 정책전환(연북화해정책,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을 주장하였으며
- 4자회담 및 대미·일 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의식하여 예년과 달리 미국, 일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였음.

### 주요 내용

#### <'97년 평가>

- 1997년은 전당, 전군, 전민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조선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준엄한 투쟁과 승리의 한해였음.

-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한 것은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
-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음.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의 토대를 마련
-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에서나 혁명의 기둥, 주력군임을 보여주었음.

### <'98년도 과업>

#### □ 정치분야

- 새해 「주체 87년」은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임.
- 금년도 전투적 구호 : “공화국 창건 50돌을 세계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자”
- 김일성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함.

#### □ 경제분야

- 경제건설은 새해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임.
-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 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임.
-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전선의 1211고지로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함.

※ 「1211고지」 : 강원도 금강군의 6.25당시 격전지로서, 북한군이 난관을 뚫고 승리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

#### □ 군사분야

- 인민군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둥으로, 올해에 모든 부대들을 오늘의 오중흡 7연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 전개

※ 「오중흡」은 1939년에 김일성을 위해 사망한 항일 빨치산 대원의 대표적 인물

- 군민일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임.
- 정신도덕적 풍모와 투쟁기풍,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인민군대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 □ 대남·통일분야

-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함.

-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

-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자주 입장에 돌아서야 하며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임.

-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 버리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분 석

### <형식면>

- 김일성 사후 지난 3년간 「신년사」 대신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로 발표해 오던 방식이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후 첫해인 금년에도 계속됨.
  - 이것은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중연설을 꺼리고 은둔통치를 하려는 개인적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예년과 달리 공동사설 주체에서 「청년보」가 누락됨.
  - 이는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후 권력의 무게중심이 당과 군으로 집중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 사회일탈현상 증가 및 비리와 연류된 청년동맹 간부들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종전에 신년사 또는 공동사설을 오전 9시에 발표하던 통상적 관례와는 달리 금년에는 오전 8시에 앞당겨 발표하였고 소요시간도 다소 단축됨.

※ 금년 25분, '97년 37분, '96년 40분, '95년 33분

### <내용면>

-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추대되었음에도 김정일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비전제시가 전혀 없음.
  - 과거 김일성시대의 신년사는 당해 연도의 각 분야별 국정운영의 정책방향을 제시
-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대남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대미·일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임.

## □ 정치면

- “우리식 사회주의가 없으면 조국도, 미래도 없다”는 신념을 강조함으로써 서방의 개방·개혁 기대를 일축
-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군의 정신·도덕·문화·생활기풍을 구현할 것을 강조, 군대식 생활양식의 전사회로의 확산(병영국가화)을 강조
  - “정신도덕적 풍모와 투쟁기풍,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인민군대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특히 올해 공화국창건 50주년을 ‘세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하자고 선언, 관련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예고

## □ 경제면

- 작년의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고난의 행군」 구호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임.
  -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고 선언
- 경제부문을 금년도에 최대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되는 전선」으로 강조하고 있음.
  - 농업 및 석탄 전력 등 선행부문을 금년도 경제건설의 중점과업으로 설정
  - 특히 먹는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종자문제를 풀고 이모작 농사를 다그치는” 녹색혁명을 강조
-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철저한 고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무역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내수부문의 생산정상화에 치중
  - “사소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무역부문을 통한 자본주의요소 침투 경계

- 금년에도 지난해 경제시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이나 경제전반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역량을 총 집중할 것으로 평가됨.

#### □ 대남·통일면

- '8.4 김정일 노작'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헌장」을 불변의 대남·통일 전략방침으로 천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대남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한 채 과거의 '식민지 파쇼정권'의 단순한 정권교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기존 대화재개 전제조건들의 수락을 촉구하고 있음.
  - 남한 내에서의 인민 민주정권 수립 및 자주적인 정치 실시, 남한 당국의 정책전환(연북화해정책,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요구하고
  - 이런 조치가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남북대화 기피의도를 표출

#### □ 대외관계

- 「반제자주적 입장」 및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기조를 원칙적으로 표명할 뿐 지난해와 달리 미국·일본 및 유관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
  - 이는 2월중순 및 3월16일에 개최예정인 「4자회담」 특별소위원회 및 제2차회담을 의식,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도
    - ※ '97년에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유관국이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는 점, 미국의 대북한 압살정책 포기 및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일본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등을 요구

김일성사후 신년 공동사설 내용 비교

구 분	'95년	'96년	'97년
제 목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 영도 확고히 보장</li> <li>○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경제전략 관철</li> <li>○ 당의 기본 군사노선 철저관철 및 혁명 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 백방으로 강화</li> <li>○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10대강령,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li> <li>○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및 북남 사이의 침여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를 사회주의 건설의 기상을 떨치는 역사적인 해, 행운의 해로 빛나게 장식</li> <li>○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진지인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 구축</li> <li>○ 조국통일 3대원칙과 10대강령, 연방제 등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li> <li>○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촉구</li> <li>○ 국가보안법 철폐, 콘크리트장벽 해체를 위한 전민족적 공동투쟁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유훈관철과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것이 기본과업</li> <li>○ 붉은기사상 일색화로 김정일 중심 단결</li> <li>○ 「농업·경공업·무역 3대 제일주의」 지속 - 먹는문제 우선 해결</li> <li>○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확립</li> <li>○ 현 남한정권은 통일 의지 및 남북관계 해결 의사 전무</li> <li>○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li> <li>○ 미국은 '대조선 압살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것</li> </ul>

## □ 99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99.1.1 오전 9시 '99년도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발표(라디오·TV로 25분간 방송)
  - 제목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 ※ '98년에는 오전 8시에 「당보·군보 공동사설」을 25분간 발표
- '98년은 「우리식 정치체제」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 강행군 승리의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올해에는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는 구호아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 것”을 강조
- 대남면에서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북남관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대단결」, 「남한의 자주화」 등을 요구하고
  - 연공연복통일, 국가보안법철폐, 통일부·안기부 해체 등 주장
- 대외관계에서는 진행중인 「미·북협상」을 의식, 대미강경 비난을 재개
  - ※ '98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대미비난 전무

### 주요내용

#### 【 '98년 회고 】

- '98년은 전당·전군·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부강조국 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



-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 정비, 「광명성1호」 발사 등
- 가장 어려운 고비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최후승리를 바라보는 용마루에 올라섬.
- 인민경제 기간공업(금속, 전력, 기계공업 등) 활성화 토대 및 “먹는 문제” 해결 전망 마련
-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로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



'98년을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  
강행군의 해, 투쟁과 전진의 해였다고 자평

**【 '99년 과업 】**

- 새해를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 총진격의 해”로 설정하고
  -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는 구호 제시

**< 정치분야 >**

- 당 및 국가, 군 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을 철저히 구현
-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와해 책동에 대한 경각성 제고

< 경제분야 >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 정상화, 인민생활 안정 및 향상이 경제건설의 기본과업
  - 감자농사 및 종자혁명, 두벌농사의 대대적 확대,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전력·석탄·금속·철도 등 기간 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하고 평양-남포 고속도로 등 중요대상 건설을 힘 있게 추진
  - 인민소비품 생산 보장 및 지방산업 활성화
- 나라의 자연부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부흥의 밑천을 마련
- 새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여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를 보장하고 규율과 질서를 확립

< 군사분야 >

-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제일의 기둥이며 수령옹위의 제일 결사대
  - 최고사령관밖에 모르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
- 인민군대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싸울 수 있는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
-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
  - 전체인민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나라를 「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함.

※ 소왕청 :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지역(중국 길림성 소재)

## < 대남·통일분야 >

- 지난해는 김정일이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높이 조국통일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 역사적인 해
  - 남조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하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은 없음.
- 조국통일이 실현되자면 남조선이 자주화되어야 함.
  - 반외세, 반제, 반괴뢰 투쟁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전개
-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근본 초석
  - 남조선의 출로는 동족과 손을 잡는 연공연복통일
  -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안기부 등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 전개

## < 대외분야 >

-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 강화
- 미제의 오만한 강권행위를 짓부시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수호 불가

## 분석

### 【 형식면 】

-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지난 4년간 「신년사」 대신 발표해 오던 「공동사설」 방식을 답습
  - 이는 김정일의 「막후통치」 행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

- 지난해에 발표주체에서 누락된 「청년동맹」기관지 「청년보」가 다시 등장
  - 지난해 비리와 연루된 청년동맹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및 조직재정비 완료의 의미

## 【 내용면 】

### 정치분야

- 금년도 정치적 최대목표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으로 설정(제2의 천리마 대진군)
  - 김정일 정권의 공고성 과시 및 대주민 자긍심 부여에 역점
- 정치지도 노선을 「김일성 유훈」에서 「김정일 사상」으로 대체
  -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 구현을 촉구
    - ※ “김정일은 곧 우리 당이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이며 우리 인민”이라고 주장, 유훈통치의 종결을 시사
- 체제유지 차원에서 외부사조 침투 및 내부와해책동에 대한 경각심 역설 (“모기장을 든든히 치자”)
  - 통치이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주체사상에 기초)이며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우리식 정치체제」로 정식화
- 내년도 대규모 당 행사 및 금년도 준비작업 가능성 시사
  - “2000년에 맞이하게 될 당창건 55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을 미리 언급

## 군사분야

- 군이 체제유지의 근간임을 계속 강조
  -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 제일의 기둥”
- 동시에 전사회의 병영화를 촉구
  - “전체인민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움”

## 경제분야

-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키려는 데 부심
  - 올해를 “총진군의 마지막 돌격전”, “낙원의 해로 이어지는 해”로 설정
- 침체에 빠진 모든 산업부문 생산을 정상화하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에 “전국가적 역량” 집중
  - “석탄·전력은 인민경제의 생명선”
  - 감자농사 집중, 이모작농사 확대실시, 농업구조개선 등
- 관광자원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 사업 전개 가능성
  - “자연부원의 대대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밀천 마련” 강조
- 경제적 실리보장, 규율과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헌법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작업 추진 가능성

## 대남·통일분야

- 기존 대남정책 틀 유지 입장 노정
  -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과 연공연복,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 우리 내부 경제사회 상황을 겨냥한 「통전」 및 반미·반정부 투쟁 선동 지속 시사
-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대통령과 당국에 대한 비방 자제
  -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간접 시사
- “통일부 해체”를 새로이 주장한 것은 금강산관광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변경 승인」(송금) 지연에 대한 불만의 반영으로 판단

## 대외관계

- 기존 대외노선의 원칙인 「자주·평화·친선」 이념의 의례적인 언급 이외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대미적대감을 부각시킨 점이 특이
  - 미사일·지하의혹시설 관련 대미협상 과정에서 긴장조성 가능성 시사(“미제의 오만한 강권행위 타파”)

## 【 종합평가 및 전망 】

- 「유훈관철」보다는 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 찬양에 치중, 「김정일시대 개막」을 집중 부각
- 사상대국, 군사대국에서 나아가 경제건설이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명시
  - 전력·금속·기계 등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가동을 제고에 주력
  - 특히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 제고 및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 대남면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움직임을 연공연복(「통전」)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
- 대외관계에서는 금년 봄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대미 적개심과 위협의식을 확산, 이를 대미협상력 제고에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

## □ 00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개 요

- 북한은 2000.1.1 오전 9시, 라디오 및 TV를 통해 2000년도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을 발표(30분 소요)
  - 제목 :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 '99년에는 오전 9시에 25분간, '98년에는 오전 8시에 25분간 발표
- 발표 형식면에서 김일성 사후 지난 5년간 되풀이해온 「공동사설」방식 답습

### 주요 내용

#### 【 '99년 회고 】

- '99년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인 해
  -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장엄하게 벌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확보
-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
  -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에는 강경하게, 유화전략에는 혁명적 원칙성으로 대응, 「우리식 사회주의」 수호
- 김정일의 선군정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영도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 창출



## 【 2000년 과업 】

### □ 대내분야

(가) 강성대국 건설 본격화를 위한 「3대기둥」(사상·총대·과학기술)을 제시

#### < 사상중시 노선 >

-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을 오직 김정일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시행
- 수십년동안 피어린 투쟁을 통해 다져온 사회주의의 계급진지를 0.001mm도 양보 불가

#### < 총대중시 사상 >

- 총대중시는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해야할 국사중의 제일국사
- 인민군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

#### < 과학기술중시 사상 >

- 주체적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 새로운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 수용 및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나) 경제건설에 역량집중 강조

- '모두 다 당창건 55돌을 빛내이는 돌격전의 영웅이 되자'라는 구호아래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
  - 성강의 봉화따라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선구자가 될 것을 요구
-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

-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면서 절약투쟁 강화, 품질제고 등에 역량 집중
- 전력·석탄 등 선행부문의 생산증대, 농업부문 역량집중, 국토관리 사업 등에 박차
- 농업에서는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및 양어사업의 전군중적 운동 전개

(다) 「당」의 역할 강조 등 과업 추진방향 제시

- 올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
  -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이자 수령이라는 확고한 관점 고수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심화
  - 우리식 정치체제, 경제구조, 생활양식을 고수
- 모든 것이 충실성과 실력에 달려있으며 올해에 명실공히 실력전 전개

□ 대남·통일분야

- 광복 55돌이 되는 200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설정
- 남조선사회에서의 반외세자주화, 반피뢰민주화 투쟁을 통한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 아래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
- ※ 3대헌장 : 조국통일 3원칙, 고려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 □ 대외분야

- 평화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아야 하며, 반제정신과 주체적 역량으로 대응
-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로써 인류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 달성을 위한 국제적 임무 이행

## 분석

### 가. 전체적 특징

- 올해가 당창건 55주년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모든분야에서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새로운 정책비전 제시 전무
- 대내면에서는 2000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비약의 해”, “총진격의 해”로 설정, 강성대국 건설이 제2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부각 (특히 ‘경제대국’ 건설에 강한 집념)
- 대남·통일면에서는 대북포용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 남북대화,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선결조건」 언급 전무
- 대외적으로는 대미·일 비난을 자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노정

### 나. 분야별 분석

#### □ 정치분야

- 당창건 55돌을 성대히 기념할 것을 올해 모든 과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당의 역할을 강조
  - 대규모 당창건 기념행사가 개최될 것임을 시사

- '당 = 수령' 등 당을 강조, 침체되었던 당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체제 정상화 의지 노정

○ 사상무장 강화와 김정일 용위를 중점 역설, 체제기강 재확립과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극도의 경계의도 표명

※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0.001mm도 양보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기위한 투쟁”,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성을 구현” 등

○ 김일성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4회뿐)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집중 강조, 김정일 통치체제의 안정성을 과시(김정일 직접 거명 26회)

## □ 경제분야

○ 어려운 경제사정을 자인한 점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민노력 배가 촉구 의도

※ 북한이 신년사 및 공동사설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자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우리의 경제 형편은 의연히 어렵다”)

○ 과학기술중시노선 및 전 산업분야에서의 철저한 실리보장 강조는 일견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접근법의 구사를 의미

○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농업부문에 대한 역량 집중을 계속 강조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양어사업 등의 적극 추진

○ 「우리식 경제구조」를 고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화

- 지난해에는 외부사조의 유입을 자본주의 황색바람, 비계급적 요소 등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경계

○ 에너지난 해결을 촉구

-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강조

○ “경공업 혁명”, “인민소비품 생산”은 형식적으로 언급

## □ 군사분야

○ 김정일 결사옹위를 촉구하며 향후에도 군 중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 “총대중시사상은 김정일의 신념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주장

※ 긴장고조, 서해사태, 미사일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는 점이 특이

○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

-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일격에 원썩들의 아성을 폭파”

## □ 대남·통일분야

○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에 입각한 통일실현 강조 등 기존 대남 정책 틀은 그대로 유지

- 8.15범민족대회 등을 확대, 우리 내부의 반미, 반정부 투쟁선동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전개

○ 그러나 「연공연복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국정원 해체」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당국에 대한 직접거명 비난 대신에 “통일의 원썩들”, “민족 반역자들”, “역사의 반동들” 등으로 간접 비난

- 우리측의 국가보안법 개정추진 등 국내 정치상황 추이를 주시하

겠다는 태도로 평가되나,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에 주목할 필요

- 당국간 접촉과 대화도 일체 불언급, 시간을 두고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는 계속 추진

## □ 대외분야

- 기존의 대외노선 원칙인 「자주·평화·친선」과 반제투쟁을 위한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특징

- 구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관계진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증

- 미·일과 현안문제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대미·일 협상관계 불언급 및 비난 자제

※ '99년도에는 미국, '97년도는 미·일을 거론하면서 비난

-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와 인도주의에 속지 말 것”을 강조

- 최근 NGO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증가에 따른 외부사조 유입 경계

## □ 200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1. 개 요

- 북한은 2001.1.1 오전 9시, 라디오 및 TV를 통해 2001년도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을 발표(32분 소요)
  - 제목 :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 발표형식면에서는 지난 6년간 되풀이 해 온 「공동사설」 방식을 답습
  - 내용면에서는 “고난의 승리적 결속” 및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21세기를 맞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기대감 부여에 역점

### 2. 내용분석

#### < 2000년 회고 >

- 2000년은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
  - 견인불발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 마지막 돌격전을 빛나게 장식
- 조국통일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 전개
  - 평양상봉과 「6.15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조국 통일을 위한 역사적 과제들이 실현
- 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높이 떨친 긍지 높은 해
  -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책동이 실패하고 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도달

- 요컨대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영도」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

< 2001년 과업 >

□ 2001년을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설정

- 실현 방도로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제시

-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강성대국 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

- 3가지 노선을 「21세기 김정일의 정치노선」으로 규정

- ※ “21세기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 검증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피는 영광스러운 세기”라고 언급함으로써 「21세기를 김정일 세기」로 공식화

□ 정치·군사분야

-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구현을 강조

- 「자주」와 관련, “우리의 이념, 우리식의 정치체제, 우리식의 혁명방식 옹호고수”를 재삼 역설함으로써 현체제 고수의지 시현

- 「단결」에 대해서는, ‘수령결사옹위’와 ‘혁명적 동지애’를 내세워 김정일への 충성 강조

- 「애국애족」과 관련, “후세에 찬양받는 노동당시대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 무마 및 분발 촉구

-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군부중시 통치 방식 지속 표명



- 「선군정치」를 “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찬양
- 「선군정치」는 “20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수호전에서 확증된 혁명의 철리”라고 주장

○ 내년도 「김일성 90회 생일」을 강조

- 금년도에 김일성 90회 생일(4.15), 김정일 환갑(2.16) 준비 등에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

□ 경제분야

○ 현존 경제 토대의 정비를 중심과업으로 설정

- 생산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기존설비 정비가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모든 공장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하여야 한다’고 역설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부응하는 ‘우리식 경제관리체계’ 개선 촉구

- 새 세기는 진취적 사업기풍, 실리적·효율적인 경제조직 사업을 요구한다며 국제경제사회에의 동참, 남북관계 변화 등에 적극적 대처 시사

○ 부문별 시책으로는 선행부문 최우선,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역점

-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을 비롯하여 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선행부문 우선의 산업정책 불변을 견지

- 경공업, 농업 등 주민소비생활 부문에는 강도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기대감 고취에 노력

※ 대홍단정신으로 21세기 첫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자고 강조

## □ 대외분야

### ○ 미국, 일본에 대한 비난 없이 대외관계 활성화 의지 표명

-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

※ 대 미·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노정

## □ 대남·통일분야

### ○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이행을 강조

-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남북공동선언」의 기초로 부각

### ○ 대남비난은 없으나 ‘외세의존 및 공조 포기’, ‘연방제 통일’, ‘법률적·제도적 장애제거’ 등을 간략하게 언급

- 외세의존 및 외세와의 공조를 탈피하여 「동족과의 공조」 강조
-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고 주장
- ‘법률적·제도적 장애제거’를 거론하면서도 국보법 폐지 등 직접적 대남요구는 자제(※ 국보법 폐지는 간접적으로 주장)

※ 「6.15 남북공동선언」을 의식, 유연한 방식으로 기존 통일노선 선전을 되풀이 할 가능성

### ○ 「주적」 개념 및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의도

### 3. 종합평가

- 「고난의 행군 결속」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을 강조
  - 새로운 정책비전 보다는 현실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면서
  - 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
- 경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노후 시설 개체 등 실리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시대변화 적응을 강조
-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도 금년도 정책 방향은 원칙적 입장만 표명
  - 「대외부문」을 종전과 달리 「정치부문」에 이어 우선적으로 언급한 점이 특징
- 이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은
  - 김정일위원장 중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문제에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 대남 및 대외관계는 남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및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등을 관망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 □ 2002年度 北韓 「新年共同社說」 分析

### 1. 概要

- 북한은 2002.1.1 오전 9시 라디오·TV를 통해 2002년도 新年 「共同社說」(黨報·軍報·青年報)을 발표
  - 제목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强盛大國 建設의 새로운 飛躍의 해로 빛내이자」
- 今年度에도 지난 7년간 되풀이해 온 「공동사설」 형식을 답습
  - 內容面에서는 「김일성 90회 생일 및 軍 創建 70돌」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首領·思想·軍隊·制度 등 「4大 第一主義」를 제시
  - 대남·대외부문에서는 原則的 立場과 觀望的 자세를 취하면서 對內 體制結束을 중점 강조

### 2. 內容分析

#### 가. 2001年度 成果

- 「金正일의 偉大性이 과시되고 先軍革命路線이 결실을 거둔 해」로 평가
- 强盛大國 建設의 進擊路가 열린 「歷史의 해」, 긍지높은 「團結의 해」, 장엄한 「進擊의 해」, 사회주의 보루를 다진 「鬪爭의 해」 등 주장
  - “김정일의 對外활동이 국제관계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歷史的 事變”
  - “전반적 經濟분야에서 生産的 昂揚이 일어났음”

-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감행되었고, 강경에  
는 초강경으로 대응” 등 언급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無

## 나. 2002年度 課業

□ 금년도를 金父子의 업적을 빛내기 위한 「總突擊의 해」, 强盛大國  
건설의 「새로운 飛躍의 해」로 설정

○ 首領·思想·軍隊·制度 등 「4대 제일주의」를 실천목표로 제시

① 「우리 首領 第一主義」 정신 발양을 통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  
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

- △김일성 遺訓 철저 관철 △김정일 결사옹위·결사관철 정신 발휘

② 「우리 思想 第一主義」를 통해 主體思想으로의 무장 강조

-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말아야”,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노선과 원칙을 추호도 양보 말아야” 등

③ 「우리 軍隊 第一主義」를 통해 「先軍政治」 당위성 강조

- △최고사령관에 절대복종,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확립 △혈연  
적 軍民關係 강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입장은 단호

④ 「우리 制度 第一主義」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강조

- △전력·석탄 등 先行部門의 계속적 추진 △인민생활 향상 △변  
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관리의 개선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 발  
전을 통한 공업의 기술개선·현대화 촉구

※ 「라남의 봉화」를 온나라에 타번지게 하면서 고정화된 재래식  
방법이 아닌 革新的 안목에서 통크게 일판을 전개하자고 역설

- 南北關係 관련,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함을 강조
  -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과 「自主」 및 「民族共助」 실현을 주장
    - 우리측에 △主敵論 철회 △保安法 철폐 △外勢 결탁 반역행위 금지 △남조선에서 侵略軍 철수 등 요구
  - 현 韓半島 情勢에 대해 “새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등 緊張된 시각 표출
    -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를 주장하면서 대북고립압살 기도 포기를 요구
- 對外關係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對外關係 基本理念(자주, 평화, 친선)도 생략
  - \* 지난해에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등 언급

### 3. 綜合評價

- 이번 공동사설은 全般的으로 대내외 정세가 어렵다는 認識下에 「體制結束 주력」 방침을 밝힌 것으로 평가
  - 「4대 第一主義」를 새롭게 제시하여 김정일 중심의 內的 團結을 강조
    - \*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싸우고 우리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함”
- 금년도 북한은 當面課題로서 「김일성 90회생일 및 軍創建 70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
  - 經濟面에서는 既存 經濟政策을 持續 推進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인민생활」 관련 문제들을 1차적 과업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

\* 「변화된 환경」에 맞고 「가장 큰 실리」 획득을 위해 經濟管理體系의 개선  
완성과, 情報産業 육성 및 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역점

- 南北關係에서는 화해협력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관계 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實利獲得 차원의 選別的 對應 예상
  - 대남비난·요구사항 등의 強度에 미루어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정세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한반도 평화 보장 및 전쟁의 위험 제거를 내세워 民間 대 상 統一運動 強化 가능성
- 對外面에서는 미·일에 대해 기존의 原則的 立場을 고수하는 한편, 당분간 情勢 推移를 觀望할 것으로 전망 ㉠

## □ 2002年度 北韓 「新年共同社說」 발표

2002.1.1 통일부(정보분석국)

- 2002년도 新年辭를 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 형식으로 발표 (09:00~09:30 중·평방, TV)

- 제목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強盛大國 建設의 새로운 飛躍의 해로 빛내이자」

※ 지난 7년간 되풀이해 온 「공동사설」 방식을 답습

- 今年度 공동사설은

- 2001년도를 김정일의 위대성이 과시되고 선군혁명노선이 결실을 거둔 해로 평가

- 2002년 과업 관련,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약의 해」 구호 아래 首領·思想·軍隊·制度의 「4대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

- 경제분야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보장 및 아래단위의 창발성 발양” 강조

- 대남분야에서는 △주적론 철회 △보안법 철폐 △외세 의존 및 반역행위 금지를 주장

- 한편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대북고립압살 중지 및 “남조선 침략군 철수”를 요구

- 전체적으로 김일성 90회생일을 계기로 김정일 중심의 대내결속을 강조하는 데 주안

※ 상세한 분석내용은 추후 보고 ㉠



## □ 2003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 1. 개요

- 북한은 2003.1.1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발표 (09:00~09:30, 중·평방, TV)
  - 제목 : 「위대한 선군 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 금년을 「선군 기치따라 강성대국 영마루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규정
  -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지속 강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으로 주민들을 독려

### 2. 내용분석

#### 가. 2002년도 성과

- 2002년을 “혁명과 건설 모든 분야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이 높이 떨쳐진 역사적인 승리의 해”로 자평
  -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진지가 튼튼히 다져진 해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경제관리 개선 및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 시행으로 경제 활로 개척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음을 강조
  - 민족분열 이후 극적인 사변이 일어나 남북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 고조,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
- 당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 활동에 의해 강성대국 건설의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
  - 제국주의 초대국과 당당히 맞서 세계정세의 흐름을 주도

## 나. 2003년도 과업

### □ 정치·군사분야

- 정권창건 55돌(9.9) 및 전승기념일 50돌(7.27)을 내세우면서 “선군 사상”, “혁명적 군인정신”, “반제자주사상”을 강조
  - 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선군 사상과 노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것을 촉구
- 군의 전투력 향상과 원군사업 및 군복무의 중요성을 강조,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지속적인 저항의지를 표명
  - “훈련제일주의 철저 구현”,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 배격 및 언제나 격동상태 견지” 등 강조
  - 혁명적 영군체계 및 군풍 수립·관병일치·군민일치·군정배합 등 당 정치사업의 철저한 실현을 촉구
    - ※ '50년대 「조국결사수호」 정신 및 '90년대 「고난의 행군」 정신과 “적들과의 판가리 대결전 각오” 등을 강조, 내부단결과 결사항전의 의지 부각

### □ 경제분야

- 이례적으로 ‘국방공업’의 선차적인 역량집중을 강조, 국방력 강화를 경제·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착을 위한 공급 확대에 주력
  - 전력·석탄·금속·철도 등 선행부문의 혁신적 추진
  - 경공업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 생산
  -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두벌농사 등과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업생산 증대

- 경제건설의 양양을 위한 “사회주의 원칙하에 가장 큰 실리 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

□ 사회·문화분야

- 제국주의 사상문화 유입을 경계하고 사회주의 사상·도덕 및 생활양식의 고수를 다짐
  - 강성대국에 맞는 새로운 문화 발양을 역설, ‘인민군대의 문화생활 기풍’ 등의 전사회적 확산을 새로이 촉구
  - 특히 당·군·청년들의 체제수호를 위한 투쟁을 강조
- 체제공고화를 위한 주민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 요소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혼란 방지를 도모

□ 대남분야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이며, “애국과 매국을 가르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
-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의도에서 ‘민족공조’를 부각
  - “현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강조
  - ※ 과거와 달리 “주적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 및 민족공조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도

## □ 대외분야

- 미국의 '대북위협'으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 이외에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특징
  - 특히 최근 현안인 핵문제와 관련한 정세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
- 미국에 대해 군사적 압력소동 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대미비난을 자제, 국제상황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를 표출

## 3. 종합평가

- 북한은 이번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함으로써 대내외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선군사상의 전면적 구현을 통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정세 악화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은 지속적인 내부변화를 추구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를 마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조성된 현 위기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의 제시 없이 모든 역량을 체제결속에 집중
  - 선군정치 기치하에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당·군·민의 일심단결을 촉구
  - 특히 군 중심의 결속과 관련하여 경제면에서도 전례없이 '국방공업'의 우선 중시를 강조
  -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경계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를 강조

- 앞으로 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남한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당면한 위기상황의 타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정권수립 55주년과 '전승절' 50주년 등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체제결속의 계기로 활용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지속하면서도, 민족공조를 위한 선전선동 강화 등 한·미 이간 주력
  - 대미비난과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미대화재 개를 모색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 ㉞

## □ 2004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1. 개 요

- 북한은 2004.1.1.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 (09:00~09:35, 중·평방, TV)
  - 제목: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금년도의 총체적인 투쟁과업으로
  - 「정치사상전선」에서 혁명적 공세 전개, 「반제군사전선」 강화 주력 및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제시하고
  -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전선에서의 공세를 선군 정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2. 내용분석

#### 가. 2003년도 성과

- 지난 해를 침예한 정세 속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한 승리의 해'로 자평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를 통해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과 우리 식의 국가정치체제'를 공고화
- 혁명적 군인정신의 투쟁을 통한 자립적 경제력 강화 및 주민들의 '사회주의 문화생활' 향상
  - 전력 등 선행부문의 생산 증대, 경공업의 현대화, 토지정리 사업 적극 추진 및 감자·두벌농사 성과 등
-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항하여 승리한 것은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선군영도의 성과라고 주장

○ 지난 10년간 김정일의 선군정치 성과를 김일성 사상과 업적의 계승 발전이라고 강조,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영도의 확고함을 과시

-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의 승리·번영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 부여

※ 올해의 구호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를 선정

## 나. 2004년도 과업

### □ 정치·군사 분야

#### < 정치사상전선에서 혁명적 공세 전개 >

○ 당 조직 정비 및 역량 집중, 당 사상사업의 획기적 전환, 사상문화 분야에서 반제 투쟁 강화

- 당 규율 및 질서 확립, '당 정책 관철 기풍' 마련

- 수뇌부 중심의 일심단결과 수령결사옹위 정신아래 사람과의 사업, 사상교양 사업 주력

2004년의 핵심 과업으로 3대전선(政治思想, 反帝軍事, 經濟科學) 강화를 제시하면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해로 설정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 30돌(2.19)」을 맞아 주체사상교양 심화 등 정치사상 전선에서의 공격전으로 '사회주의 정치 사상진지' 구축

-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키면서 선군사상의 신념화, 체질화 및 '군인품성 따라 배우기' 사업 전개

※ 북한은 12.22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실현을 강조 하고,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로 규정

- '오늘의 정세와 현실' 아래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사상교양 및 「우리식 사회주의」· 집단주의 등 사회주의 교양 강화

※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좀먹고 우리 내부를 와해하려는 제국주의의 비열한 책동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 < 반제군사전선 강화에 총력 >

##### ○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역설

- 군사력 강화 및 군사중시기풍 확립 등을 통해 전당·전국가·전인민적으로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

##### ○ 「반제군사전선」의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4대 군사노선」 등을 답습

- 인민군 내에서의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활성화, 전투정치훈련 강화 및 관병일치·군민일치·군정배합의 실현 강조
- 군사중시기풍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국방공업 발전, 민간 무력 강화 및 전국토의 요새화 촉구

#### □ 경제분야

#### < 경제과학전선의 일대 비약 >

##### ○ 경제·과학분야가 '현 시대에 나라의 국력을 담보하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요전선'임을 강조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제시



- 내각 주도하에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통한 경제관리 개선 지속 추진
  -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 확립 및 과학기술과 산업생산을 연계
  - 새로운 첨단과학의 기술 개발, 기초과학 발전 및 선진과학기술 도입사업 강화
- 전력, 석탄 등 선행부문 및 기간산업 발전을 통한 공급역량 증대
  - 화력발전소 개건·보수, 중소형·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생산 증대
  - 철도운수부문에서의 규율강화 및 수송조직체계 원활화
- 주민생활 향상 주력
  -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두벌농사를 발전시키고, 토지정리, 백마-철산 물길공사 등에 역점,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산을 도모
    - ※ 콩농사·과수업 계속 발전, 닭공장 등 축산업기지 개건 현대화를 통해 성과 증대
  -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및 품질 제고

## □ 대남분야

- 6.15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기대
  - 지난 해 8.15 민족대회 개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을 교류·협력의 주요 실적으로 평가
- 남북한 및 해외의 전체 민족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통일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 제시

○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하에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구

-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부각

※ “미국과 남한내 사대매국세력(보수 우익)의 반평화·반통일 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

#### □ 대외분야

○ 지난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세계평화가 침해당했다며 미국의 「힘의 논리」를 비난하고, 이에 대한 대항 필요성 강조

○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

- 제2차 6자회담 개최 등 향후 협상을 고려,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미 비난을 자제

- 다만, 사상과 제도를 부인·위협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자위적 조치임을 주장

### 3. 종합 평가

○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올해 기본목표를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등 「3대전선」 강화로 설정, 이를 통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을 다지는 데 주력

- 3대전선 내용은 선군사상교양 강화, 국방공업 발전, 과학 기술발전 등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음.

※ 금년 3대전선론은 '96년 신년공동사설의 정치사상·경제·군사진지 등 3대진지론 및 '00년의 사상중시·총대중시·경제과학중시 등 3대기동론과 유사

-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40돌',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강조, 주민들의 분발과 결속에 주력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 있는 투쟁이다.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기세 드높이 마중해 나가야 한다."

○ 또한 핵문제 대두 이후 정치·사회적 내부결속 이완 방지를 위해 특히 당 사상교양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

○ 대외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면서 향후 협상 등을 고려하여 대미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 핵문제를 차기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응해 나가려는 것으로 평가

※ 한편,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 건설을 위해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대외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

○ 대남면에서는 남한의 '반미 자주화투쟁'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우리민족제일주의'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외세결탁금지'(2002년), '주한미군 철수'(2003)와 같은 언급이 없는 점이 특징

○ 따라서 올해 북한은

- 핵문제로 조성된 위기상황의 제약으로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 내년 '당 창건 60돌' 및 '조국광복 60돌' 등 정치행사를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

핵문제 해결, 남한과의 협력관계 발전, 내부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한 변화 모색 등에 대비하여 자체 역량을 결집해 나가려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끝/

## ? 2005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 1. 개 요

- 북한은 '05.1.1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발표(09:00~09:35, 중·평방, TV)
  - 제목: 「全黨, 全軍, 全民이 일심단결하여 先軍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금년도의 총체적 투쟁과업으로
  - “전당·전군·전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으로 제시
  - ※ '01년 : 자주·단결·애국애족 정치 / '02년 : 수령·사상·군대·제도 4대 제일주의 '03년 : 선군사상 구현 / '04년 :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3대전선
  - “정치사상적·군사경제적 위력을 총발동, 혁명발전의 양양기를 열어 나가는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강조

### 2. 내용분석

#### 가. 2004년도 평가

- 지난해를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한 보람찬 투쟁의 해로 자평
  - “선군정치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당·군·민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었다고 강조
-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자랑찬 성과 이룩 선전

- 전력공업, 철도운수에서의 생산양양, 대규모 토지정리, 물길공사 등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 마련
- 혁명적 군인문화를 통해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전통, 생활 환경이 사회주의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평가
- 선군위력으로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제압하고 조선의 기상을 떨쳤다고 선전
- 김정일의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와 정치실력의 결실

#### 나. 2005년도 과업

- 올해를 '조선혁명과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로 설정
-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의지를 세상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
- 총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에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자" 구호제시와 함께 '선군혁명총진군' 촉구
  - ※ ①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 ②군사적 위력의 백방 강화 ③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 등 선군혁명총진군의 내용은 '04년 3대 전선과 유사

#### □ 정치·군사 분야

##### < 전당·전군·전민의 일심단결 및 선군혁명총진군 >

-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함으로써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
- 선군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과 전당·전사회가 당 유일영도하에 움직이는 규율 및 질서체계 확립 강조
  - ※ 김일성은 선군사상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창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건설업적과 전통을 계승할 필요 역설

○ 선군혁명노선을 통해 군사적 위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

- 자위적 국방공업 강화 및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보장

※ 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 마련

< 당의 정치사상사업에서의 결정적 전환 촉구 >

○ 선군사상교양 심화,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 반미계급교양 강화

- 외부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 분쇄 강조

※ 반동적 사상독소와 부르조아 생활양식 침습 방지

○ 특히,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 전위투사로 양성할 것을 독려

※ 「북한인권법안」美 하원통과 후 '전후 세 세대들의 혁명성 약화' 및 '제국주의자들의 회유·기만에 따른 반혁명의 하수인화'에 대한 경각심 촉구('04.8.12 중방, 8.28 평방)

□ 경제분야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

※ '04년에는 경제정책의 총괄 방향으로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 보장'과 '인민생활보장'의 양대 요구를 동시에 설정

○ 부강조국건설로의 비약에 대한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에 부응, 혁명적 군인정신과 경제과학 기술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구현

- 일심단결,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력으로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할 것을 촉구

-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규정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모든 문제의 기본이 농업생산의 증대에 있음을 강조
  -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필요한 노력, 설비, 물자의 최우선적 보장 촉구
    - ※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콩농사 관련 당방침 관철, 다수확 품종의 대대적 재배, 비료·농약의 원만한 보장, 선진영농방법 도입 및 기계화비중 제고
- 전력, 석탄 등 선행부문 및 기간산업 발전을 통한 공급능력 증대과제 제시
  - 수력·화력발전소 설비능력 제고 및 철강생산 증대, 철도운수 등 수송부문에서의 규율강화, 수송조직체계 원활화
- 주민생활 향상 및 개혁지속 추진의지 표명
  - 경공업공장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 증산
  - 실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 및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역할 제고, 과학적인 경영·기업 전략 추진 등을 통한 품질제고 강조

## □ 대남 분야

- 지난 5년을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생활력을 과시한 시기로 의미부여
  -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전민족적 이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 금년에는 6·15 공동선언 기치하에 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3대공조를 제시



- ※ 3대공조의 내용은 외세배격, 미군철수 및 핵전쟁 방지, 연대 연합 등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유사(작년부터 민족공조외에 통일공조·애국공조·평화공조·경제공조 등을 강조)

#### □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 촉구

- 미국의 반복정책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 ※ 작년 공동사설과 달리 '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 '초강경 대응' 등은 불언급

### 3. 종합평가

- 북한은 올해 '선군혁명총진군' 구호하에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평가
  - 올해가 당창건·광복 60돌이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 체제수호 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작년에 이어 정치사상교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부체제 이완방지를 지속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로 평가
  - 외부사조 유입차단 및 주민통제 강화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유연성은 저하될 가능성
- 또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 금년도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및 당창건 60주년·선군정치 10년 등 내부 통치수요를 감안,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아울러

- 효율적 경제관리를 위해서는 내각의 기능·역할 강화 및 조직개편과 함께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기인
- 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등 원론 수준으로 언급한 것은 부시2기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도
- 한편,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대남 비난없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3대공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 공세적으로 남북민간급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해외동포들의 연대·연합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끝//

'95 ~ '05 북한 신년사 원문



#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 (95.1.1)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1994년을 보내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 새기게 될 새해 1995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여 일떠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기질이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끝없는 영광과 기쁨속에 받아 안으며 해마다 보람찬 투쟁과 창조의 진군길에 올랐다. 지나 온 년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지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굳게 다지고 있다.

지난해 1994년은 우리 당과 인민이 최대의 상실을 당한 가장 비통한 해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80여성상에 걸쳐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무력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였다. 이것은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대의 불행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만회할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손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시였으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가장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였다.

우리 시대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영원히 담보하는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과 주체형의 위대한 당과 정권, 불패의 혁명무력과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비롯하여 이 땅우에서 빛을 뿌리고 있는 모든 고귀한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 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 지게 되었으며 진보적인류는 자주위업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써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은 자기의 위대한 창건자, 령도자를 잃었으며 진보적인류는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던 탁월한 수령을 잃었다. 비록 수령님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살아 계신다.

지난해 1994년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한결같이 떨쳐 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해에도 우리 혁명의 환경은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었고 세계의 이목은 제국주의와의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이 벌어 지는 조선으로 집중되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역세계 투쟁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켰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곧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며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는것이 지난해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더욱더 역세계 간직된 드팀 없는 신념이였고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철석의 신념을 안고 커다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영기로 바꾸어 결연히 떨쳐 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켰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이악한 투쟁을 벌려 것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도 농촌테제발표 30돛이 되는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지식인들도 당과 수령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과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총대를 역세계 틀어 쥐고 적들의 침략전쟁도 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장으로 굳건히 수호하였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온갖 반동세력들의 공격이 우리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온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지난해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속에서 공산주의미풍이 활짝 꽃 피난 자랑스러운 해로 특징 지어 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이한 계층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으며 인민이 있고 군대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를 혁명적대가정의 아버지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조국의 희망찬 미래가 있으며 우리 인민과 군대의 크나큰 자량이 있는것이다.

지난해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조국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크나큰 슬픔을 당하신 가운데서도 강의한 의지로 형언할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이겨 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손 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넘쳐 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심과 충성심을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여 주시였으며 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완성한 불멸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혁명의 기치, 승리의 기치를 펼쳐 주시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을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당 당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대회들을 마련하여 주시였으며 군민일치의 미풍을 활짝 꽃 피워 주시는 등 우리 당과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심혈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다.

참으로 지난해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심장깊이 체득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 신념을 철석같이 간직한 력사적인 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력사적진군에 떨쳐 나선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오늘 매우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며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 같은 심정이며 확고 부동한 혁명적의지입니다. >

지금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영예로운 혁명 임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시대와 력사가 맡겨 준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는 올해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주체사상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역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올해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대를 이어 가면서 수령복을 누리는 커다란 공지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군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때 우리 조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경제전략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이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받들고 협동적소유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키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여러가지 섬유제품과 일용품, 식료가공제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창건 50돐이 되는 올해에 당과 국가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선행 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기술을 대담하게 혁신하고 모든 생산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연료, 동력문제와 수송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양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지역적거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현실과 끊임 없이 높아 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시여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군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군들에서는 전천군산업관리소와 맹산군의 모범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알뜰히 꾸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심어 주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우리 식의 혁명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 땅위에 더욱더 부강한 조국을 건설할수 있는 길은 오직 자력갱생밖에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 내면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 온 영웅적인 투쟁기풍을 올해 전투에서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맡겨 진 혁명과업을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성과여부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창건 50돐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으로 련결되어 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서 손발이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략관에 넘쳐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 들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은 누구나 정춘실운동선구자들처럼 당에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이 언제나 존경하고 따르는 진짜배기충신,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한 우리는 혁명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 잡아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당의 기본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긴장되고 통원된 태세에서 전투정치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우리의 령토,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를 금성철벽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발휘하여 온 훌륭한 군민일치의 미풍, 인민들은 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인민군장병들은 인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목숨 바쳐 지키는 고상한 미풍이 더욱 활짝 꽃 피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혁명은 비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끌어 주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하여 주신 억년 드물지 않을 반석 같은 토대가 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수백만 당원들과 근로자들, 영웅적인민군대가 있다.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 놓은 자립적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은 대단하다.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힘이 있는 한 우리에게서 두려울것이 없다.

전당, 전민, 전군이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하여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뜻 깊은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의 분열이 1990년대의 중반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의 비극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오로지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겠다는 꺾을수 없는 의지와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도 온 겨레가 한결같이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신 칫날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로고를 바치신것은 다름 아닌 조국통일문제였고 대결으로 치달던 나라의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돌려 세우시기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는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온 나라, 온 겨레를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르게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민족, 반통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겨레의 기쁨과 환희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뜻밖에 발생한 동족의 유교에 통일대화의 일방, 민족성원으로서의 조의례절을 지킬 대신 민족의 아픈 가슴에 총부리를 돌려 대고 파쏘폭압과

배신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에로 되돌려 세웠다. 만일 지난해에 남조선통치배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이 없었다면 남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이 북과 해외 동포들의 통일노력과 연합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 주신대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의 국면이 열려 지게 되었을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새해 1995년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현 세기안으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고 전 민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 있게 다그쳐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은 일관하며 변함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밝혀 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튼튼한 초석이고 귀중한 재보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내외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3대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하며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중심에 놓고 그에 맞게 풀어 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위험을 막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각종명목의 군사연습과 군사적도발채동, 무력증강채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리념밑에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김영삼<정권>이 <문민>의 간판을 내들고 출현한후 2년이 가까와 온다. 그동안 남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는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제

로는 력대 군부독재<정권>보다도 더 굴욕적인 사대매국<정권>이고 파쑈독재<정권>, 분렬<정권>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 가층 인민들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를 철폐, 해체하며 현 파쑈매국<정권>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련방국가, 범민족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90년대 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앞길은 의연히 험난하지만 통일위업의 실현은 확정적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강령, 방도가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반석같은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온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 가는 우리 인민을 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모든 난간과 장애를 물리치고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온 삼천리조국강토우에 활짝 꽃 피울것이다.

지난해 1994년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가 비상히 높아 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이 전례없이 강화된 력사적인 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천만뜻밖의 국상을 당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통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여 거의 1년반에 걸친 조미회담을 결속 짓고 력사적인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 발표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일관한 평화적책활동, 평화통일정책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조미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과 조미관계발전을 위한 하나의 리정표이며 두 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 있는 문건이다. 오늘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할 때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되게 될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로 이어 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밝혀신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적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며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해에도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르고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해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더욱 힘 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 가자. (끝)

##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96.1.1)

오늘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는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희망찬 새해 1996년을 맞이한다.

해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받아 안고 필승의 신심을 가다듬으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힘차게 걸어 온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두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들과 청년들은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있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계속 억세게 싸워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고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진군을 힘차게 고무해 주고 있다.

지난해 1995년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숭고한 공산주의도덕이 높이 발양된 혁명적의리의 해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선배를 존대할줄 알고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킬줄 아는 훌륭한 인민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은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해 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힘찬 투쟁을 벌려 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삶의 태양으로 모시고 싸워 나가며 수령님의 사상과 유훈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업적을 혁명의 만년유산으로 빛내여 나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1세로부터 오늘의 새 세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들속에서 발휘된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는 영원불멸한것으로 튼튼히 다져 지게 되었다.

지난해에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려 지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싸워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정치생활에서 가장 뜻 깊은 역사적사변이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의 최고정화이고 김일성민족의 최대의 국보이며 진보적인류의 성지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이 담겨져 있으며 오직 김일성동지식대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려는 력사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이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건립됨으로써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모셔야 하는가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귀감이 창조되게 되었다. 투철한 수령관과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민이 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은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혁명의 수령을 생존할 때나 서거한 이후에나 변함없이 모시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말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에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이 로작은 도덕의리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온 1995년을 뜻 깊게 장식하였으며 우리 인민모두를 공산주의혁명가의 혁명적기상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높이 떨쳐 나가도록 고무추동해 주고 있다.

지난해 1995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한 일심단결의 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으로 전진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 왔다.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을 잃었다고 하여 사상적으로 동요하거나 와해되는 그런 인민이 아니며 전진도상에 고난이 겹쌍인다고 하여 물러 서거나 주저 앉는 그런 인민도 아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억세게 싸워 나감으로써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차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경축행사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친 승리자의 대축전이였다. 이 행사들을 통하여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어 나가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대풍모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당창건 50돐 경축행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힘 있게 떨치고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혁명의 횃불을 안겨 준데 있다.

지난해 1995년은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가 높이 휘날린 신념과 의지의 해였다.

지난해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은 대단히 어려웠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싸워 나가도록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고 더욱 분발하여 일떠 섰다. 살아도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운명을 같이하고 죽어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는 길에서 영예롭게 한몸 바치겠다는것이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드팀 없는 의지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당창건 5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승리적전진이 이룩되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강화되고 농촌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이

힘 있게 다그쳐 지게 되었다. 청류다리와 금릉 2동굴, 당창건기념탑과 평양-향산 관광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적들의 끊임 없는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였다.

지난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적들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과 경제봉쇄, 전례 없는 자연재해속에서 쟁취한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하고 자랑스러운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주의총진군을 힘 있게 벌려 나갈수 있는 고귀한 밑천으로 되며 우리 인민들에게 앞날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력량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해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있다.

우리 혁명은 이미 오래전에 령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에도 고도의 정치적안정과 단결이 보장되었으며 모든 일이 다 잘되었다. 이 위대한 현실은 령도자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우리 당의 령도가 현명한것으로 하여 펼쳐 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30여년동안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오신 우리 당과 인민의 공인된 령도자이시며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풍모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당과 전군, 전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최고사령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벽두에 력사적인 친필서한을 보내시여 전당과 전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전체 인민들속에서 수령을 높이 모시고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기풍을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의리적관계가 꽃 피나게 하고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가장 올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으며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혁명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현지도하시면서 당과 군대, 경제와 문화 건설의 전반을 튼튼히 틀어 쥐고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게 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지난해 1995년이야 말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실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 깊은 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깊이 심어 준 력사적인 해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우리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199



5년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면서 새해 1996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에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1996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지 해수로 3년째 되는 해이다.

수령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과시하며 우리 당과 혁명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올해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정일동지의 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삶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 주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들어 쥐고 나가야 할 근본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 더 뜨거운 의리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 나가야 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역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 있게 떨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붉은기는 우리의 신념이고 량심이며 투쟁의 표대이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이 길만이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승리의 길이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은 우리 식대로 제힘을 믿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주적 기상이며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역세게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기상이며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불굴의 기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트. ㄷ>를 결성하신 70돛이 되는 올해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떨치는 력사적인 해, 행운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인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와 경제적, 군사적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과 경제, 군사의 세가지 분야에서 사회주의진지를 튼튼히 다지면 우리는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고 두려울것도 없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견결히 배격하고 우리의 사상진지를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의 위력은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에 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한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해 나가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기질이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혁명가의 값 높은 삶도 량심과 의리도 이 전통을 빛내여 나가는 길에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전체 청년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최고녀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봉위하여야 하며 오직 김정일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혁명의 천만길을 역세게 걸어 나가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7련대의 결사옹위정신이 우리 혁명대오의 고귀한 녀이 되고 드높지 않는 신조가 되어 힘차게 내려치게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은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집단주의도덕이며 우리의 정치사상적진지를 강화하게 하는 도덕적기초이다.

우리는 혁명의 선행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변함 없는 도덕의리로 여겨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진실로 충실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방하고 공산주의도덕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책동할수록 우리는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 놓아 지고 도덕의리의 위력으로 승리해 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유훈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되는 인민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수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을 위한 최전선이며 돌파구이다. 석탄과 금속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늘어 나는 석탄과 철강재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혁명의 불길을 높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 날라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갈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생산을 다그치며 한방울의 기름, 한줌의 석탄, 한와트의 전력, 한알의 낱알이라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군사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도 사회주의를 혁신성 있게 건설하고 있는것은 강유력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때려 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주체사상화위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모든 장병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고 전군에 최고사령관명령에 절대복종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령군체계와 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군사규정학습을 강화하고 그 요구대로 생활해 나감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그것을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민군대의 총창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도 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물려 준 총창을 역세게 틀어 쥐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위하는것은 우리 군대의 영원한 신조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로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 인민적방위체계를 다지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올해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우리는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혈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모든 것을 김일성동지식으로 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을 틀어 쥐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 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총진군으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밑에 각급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훌륭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락관주의정신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해 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이 맥박치는 곳에 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리고 사회주의승리 만세의 합성이 힘차게 울리게 된다.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전진하는 대오에 누구보다도 앞장에 서야 할 사람은 지도 일군들이다.

일군들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사업성과로써 령도자를 받들줄 아는 김책형의 지휘성원이 되어야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이 준 경제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짜고 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뛰고 또 뛰어야 하며 높은 정치적안목과 기발한 착상,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본때 있게 해제겨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이며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지피 주신 혁명의 횃불을 추켜들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혁명전사로,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아름답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훌륭한 혁명가,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사로청창립 50돛이 되는 올해에 혁명하기 좋아 하고 투쟁하기 좋아 하는 조선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대단히 무겁고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수행할수 있는 위대한 사상과 혁명정신이 있고 일심단결이 있으며 강유력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올해를 붉은기사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혁명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해 1995년은 온 민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 뜻 깊은 해였다.

지난해에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국해방 50돛 민족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국이 분열되어 처음으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은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통일애국력량의 자랑찬 승리를 과시한 민족대회합이었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 준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조국통일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투쟁을 힘 있게 벌렸으며 이 과정에 전 민족적

인 단결이 더한층 강화되었다.

지난해에 <문민>의 간판을 내건 김영삼파쑈<정권>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 났다. 맹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자로부터 여당, 야당 할것없이 권세를 누리는자들모두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는 사회가 바로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지난해의 남조선정세흐름은 외세의 식민지적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통치가 계속되는 한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군사<정권>이건 <문민정권>이건 할것없이 인민들이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문민>의 간판밑에 파쑈와 매국, 분렬을 추구하며 부정협잡을 일 삼는 김영삼일당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며 통일을 위하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에서 력대통치배들이 인민을 등지고 동족인 우리와 대결하며 <북침통일>을 꿈 꾸다가 망한것처럼 매국반역과 부정협잡을 일 삼는 김영삼괴뢰정권도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안팎으로 배격 당하여 곤경에 빠진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파국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북남대결과 전쟁도발에서 찾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이 떠드는 <북의 위협>론은 곧 뒤집어 놓은 북침론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길로 계속 줄달음친다면 정세는 더욱 긴장해 지고 견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무심히 대할수 없으며 사소한 도발행위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오신 민족적위업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새해를 맞는 오늘 온 겨레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분렬주의세력의 외세의존과 사대매국행위를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면 조선반도정세는 완화되고 북남합의서의 리행도 순조롭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는 온갖 장애를 제거

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악법인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공동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련방국가, 범민족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셔야 한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이 있고 우리 당이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 있기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지난해 1995년의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은 우리의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리념이 정당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인민들의 지향이 막을수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소요와 불안정, 국제분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속에 커다란 불안을 조성하였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도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과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으로 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가장 권위 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는 사회주의보루로 위용 떨치고 있다.

우리 당은 새해에도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지구상에 그 어떤 풍파가 일어 난다 해도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견결히 지킬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하여 자주와 평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우리는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자주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와 <완화>의 간판밑에 힘의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평화옹호운동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전반적이며 완전한 철폐를 실현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우리의 사상과 리념이 숭고한 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전도 양양하고 우리의 신념과 의지와 확고부동한것으로 하여 혁명의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이 승리적으로 타개되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진지가 불패인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력사의 온갖 반동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어려운 시련속에서 혁명의 진로가 빛나게 개척되어 나가는 시대, 세월이 흐를수록 혁명적기백이 뜨겁게 맥

박치고 더 큰 승리가 펼쳐 지는 시대, 이것이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때 이 시대는 더욱 룡성번영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결코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성스러운 붉은 기발이 우리모두를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부르고 있다.

모두다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해 1996년의 역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끝)

#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97.1.1)

오늘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 나가는 커다란 긍지와 신심에 넘쳐 희망찬 새해 1997년을 맞이한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 내며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 지고 있다.

우리 혁명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는 역사적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당보, 군보, 청년보는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승리가 아로 새겨 질 새해 1997년을 맞으며 공동사설을 발표한다.

지난해 1996년은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벌려 온 준엄한 시련의 한해,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한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를 용감히 이겨 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 왔으며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 막을수 없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싸워 나가도록 이끌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수령옹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도록 하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였다.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 억천만번 죽더라도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겠다는 결사의 각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 나 싸우는 불굴의 투지, 이것이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떠밀어 온 원동력이였다.

지난해의 어렵고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가 굳건히 다져 지게 되였다.

<고난의 행군>과정에 우리 인민들은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되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는 령도의 대가 바뀌고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강화되는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 성새이다. 지난해에 령도자의 두리에 뭉친 당과 인민의 통일체, 혁명의 주체가 백방으로 다져 지게 된것은 몇백만톤의 쌀에 비길데 없는 고귀한 승리로 된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90년대의 조선의 기적인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거연히 일떠 서게 된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친 뜻 깊은 사변으로 된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 나갈수 있는 경제적토대가 튼튼히 다져 지게 되었다.

지난해는 60여성상에 걸치는 우리의 건군력사에서 빛나는 장이 아로 새겨 진 뜻 깊은 한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최성기가 펼쳐 지게 되고 나라의 방위력이 철벽으로 다져 지게 되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지난해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 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승리적행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과정에 이룩한 승리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그리고 적들과의 가장 치렬한 대결속에서 쟁취한것으로 하여 더없이 자랑스러운것이며 그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에 대한 힘 있는 과시로 된다.

지난해 사회주의총진군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된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모든 투쟁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작전되고 령도되고 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드넓지 않는 혁명적 신념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곧 바른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강철의 령장,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비범한 예지로 언제나 우리 당과 군대, 청년동맹과 인민이 나아 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고 령할무쌍한 주체의 전략전술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였다.

지난해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적령도예술의 모범으로 빛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연말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단위들을 끊임없이 현지도하시였으며 전체 인민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인민군장병들이 지켜 선 최전연의 천리방선에도 어려 있고 칠보산과 구월산, 김일성종합대학과 강동지구를 비롯한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빛을 뿌리고 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직한 군대와 인민, 자주, 자립, 자위로 튼튼히 다져 진 위력한 사회주의진지, 바로 여기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있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굳세여 진 우리 인민은 오늘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새해의 력사적진군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새해 1997년은 우리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백전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조선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 나가는 새로운 부흥의 해, 희망찬 승리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내 나라, 내조국의 부강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오늘 중요한 력사적시점에 놓여 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지 세뫼이 되는 해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수령으로, 만민의 아버지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수령님의 영원한 식솔이며 당의 령도 따라 수령님의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 나가는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3년상이 되는 올해에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더 자랑스럽게, 더 떳떳하게, 더 높이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올해의 총진군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이다. 오늘의 난관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며 방어가 아니라 대담한 공격으로 새로운 승리를 마련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의 거대한 위력이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 나 올해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칠 때 자주적인간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오늘의 결사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생활이 더욱 활짝 꽃 피는 찬란한 시대를 앞당겨 나갈수 있다.

<모두다 올해의 (고난의 행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 이것이 올해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쳐 조선혁명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진지를 불패의것

으로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향상시키는것을 총적과업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사회를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다.

우리의 힘은 사상에 있고 오늘의 강행군에서 승리자가 되느냐 락오자가 되느냐 하는것은 붉은기사상으로 어떻게 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며 패배주의, 비관주의,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 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공세이다.

해방직후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새 조국 건설의 초행길을 열어 나갔던것처럼 우리는 붉은기사상을 총 동원하여 온 나라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의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그 어떤 풍파가 닥쳐 와도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언제나 승리한다.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 우리 조국의 빛나는 상징이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위업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 안녕을 심장으로 받들고 견결히 지켜 싸운 항일의 7련대처럼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김정일동지와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해 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김정일동지의 붉은기사상이 팍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이 우리의 붉은기에 새겨진 철리이다. 피로써 쟁취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완성하기전에는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고 죽을 권리도 없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을 고수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배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계급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인다!>는 구호를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며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총진군대오에는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철석 같은 신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이 차 넘치고 있어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상을 일으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이다.

경제건설은 우리의 주공전선의 하나이다. 강한 정치군사적위력에 경제력이 안받침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발양하여 새해 1997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는 대고조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국토건설을 다그쳐 부강조국의 토대를 튼튼히 쌓는것, 이것이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이다. 올해의 경제건설과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과시되고 온 나라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의 지향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쌀풍년, 고기풍년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의 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최전선을 지켜선 영예 드높이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늘어 나는 석탄과 전력, 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수송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 날라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대한으로 증산절약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 내며 한와트의 전력, 한방울의 기름, 한줌의 석탄, 한조각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 써야 한다. 국토관리는 우리 당의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마련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적위업이다. 전민이 떨쳐 나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관리와 도시경영사업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불 타는 심장으로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조국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총진군이 힘차게 다그쳐 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우리 지식인들이 과학기술과 지식으로써 조국의 부강발전에 한몫 단단히 해야 할 때이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지식과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고 지식인도 노예가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자면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의 힘찬 진군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더욱더 모험적인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운명과 부강조국이 있다.

당과 군대를 틀어 쥐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 당의 군사중시상을 받들고 혁명적무장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최고사령관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 전군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팍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전군에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대단하며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싸운다면 싸우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이며 원수들에 대해서는 성나 사자와 같이 돌진하여 단숨에 짓밟아버리는것이 우리 군대의 본때이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침략군부터 먼저 타격소멸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전투태세를 견지하며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야 한다. 모든 군인들은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준비하며 진군에 강철 같은 군사규율을 세워야 한다.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연계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담보이다. 우리는 오늘의 사회주의강행군에서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위력으로 적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참모부이며 우리 사회의 심장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기간에 걸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강화발전시켜 오신 우리 당의 령도력과 불패의 위력을 오늘의 사회주의강행군에서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에 사회주의건설의 성패가 달려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줄 아는 생기발랄한 당조직, 본때 있게 일을 제끼는 전투력 있는 당조직, 씨를 뿌리고 풍만한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힘 있는 당조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화선식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적생활방식, 이신작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오늘의 강행군은 제힘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자력갱생의 행군이며 집단주의와 동지애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행군이다. 자력갱생과 집단주의, 이신작척은 주체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식의 혁명방식, 우리 식의 투쟁기풍이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 높이 발휘되어 온 이 훌륭한 혁명방식과 투쟁기풍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 있고 사회주의를 빛내이는 승리의 길이 있다.

오늘의 강행군은 단순히 애로와 난관을 참고 견디어 내기 위한 행군이 아니다. 없는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 내면서 주동적으로 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모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것이 강행군에서 발휘해야 할 일본새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낸다는 비상한 각오밑에 열걸음, 백걸음으로 뛰고 또 뛰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기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 나가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덕이다. 우리의 생명관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이며 우리의 불패의 힘은 고립된 개인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집단에 있다. 우리는 강행군을 벌리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정과 인민반, 작업반과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동지애를 더욱 높이 발휘하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대풍모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 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앞장서야 할 사람은 지도일군들이다. 우리 당은 지금 모든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곳에 남먼저 뛰여 드는 돌격의 기수, 매가폰을 쥐고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진격의 나팔수가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일군들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동발목도 먼저 메고 갱막장에 들어 가고 생눈길도 먼저 해치며 포전으로 달려 나가는 이신작척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성이 투철하고 내밀성이 강한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사업성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 진군에서 우리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고 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이다. 당, 군대, 청년동맹의 3위1체속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과 앙양한 전도가 있다.

모든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한성원이 된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의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야 한다.

500만의 우리 청년들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하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혁명의 길은 멀고 오늘의 투쟁은 간고하지만 사회주의강행군에서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식 총 진군은 30여성상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 오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에서 령도하고 계신다.

우리 혁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안겨 주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구상은 뚜렷하고 원대하다.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힘과 경제적토대가 있으며 혁명성이 강한 군대와 인민이 있다.

백두밀림의 고난의 행군이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 온것처럼 오늘의 강행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승리자의 대행진으로 빛나게 이어지게 될것이다.

지난해 1996년은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결같이 떨쳐 나선 력사의 해였다.

지난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섰다.

거족적통일운동의 모체인 범민련이 위력한 통일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북, 남, 해외의 3자련대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8. 15를 계기로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 해외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제7차 범민족대회와 제6차 범청학련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 열망과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이 거둔 성과는 자주, 평화통일 애국세력이 승리하고 예속, 전쟁, 반통일 매국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하고 있다.

지난 한해를 통하여 남조선통치배들의 파쑏적이고 호전적이며 분렬주의적인 정세는 더욱더 드리웠다. 괴뢰들은 남조선의 자주적인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도발적인 대규모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려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 갔다.

김영삼일당에게는 털끝만한 통일외지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해결할 그 어떤 의사도 없으며 이들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북침통일>망상밑에 외세와 함께 기어이 동족상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발광하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모험주의적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통치배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

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 사대매국책동과 내외호전세력의 모험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에는 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민족자주를 실현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것이 올해 7천만 우리 겨레가 높이 추켜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은 민족은 남조선통치배들의 외세의존, 사대매국 책동과 내외호전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는 주체적력량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는 민족자주, 평화통일의 기치밑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모두가 조국통일의 주인이 되어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특색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압살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한다. 일본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 치우고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강령이 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는 7천만 겨레의 단합된 힘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지난해 1996년은 반제자주력량이 장성하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된 의의 깊은 해였다.

지난해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전진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도전하는 력사의 반동들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강경한 자세로 맞서 나가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지난해의 국제정세발전이 보여 주는 심각한 력사적교훈이다.

현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하지만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복잡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여도 변함없이 반제자주력량을 확고히 견지할것이며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켜 나갈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며 반제지주의 기치높이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 있다.

백전백승의 기치인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이 우리를 사회주의강행군으로 힘차게 부르고 있으며 혁명선배들이 창조한 위대한 전통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떠밀고 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일제를 격파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1세대와 더불어 2세대들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원썩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강행군대오는 그때에 비할바없이 늘어 나고 우리의 힘은 백배, 천배로 강화되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 든든한 배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령도자를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신념은 확고하며 투지는 만만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준엄한 난국을 혁명의 강행군으로 돌파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 세우고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 식 사회주의강행군에서 빛나게 이어 나갈것이다. 오늘의 사회주의총진군에서 우리의 승리의 표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이고 우리의 필생의 좌우명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한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새해의 총 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98.1.1)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여 나가는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희망찬 새해 주체 87 (1998) 년을 맞이한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1997년은 전당, 전군, 전민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조선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한 준엄한 투쟁과 승리의 한해였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자주적인민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결사전이였다. 여러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였다.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을 대담한 공격으로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힘 있게 벌려 왔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혹심한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쳐 온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앞에 가로 놓인 그 어떤 난관도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증시하였다.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속에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총의에 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믿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혼연일체의 위력이 힘 있게 과시되게 되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더욱 순결해지게 되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은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억세게 싸워왔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를 짓부시며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 온것은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의 승리, 신념과 의지의 승리였다.

<고난의 행군>을 벌리는 과정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는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전반적인 공업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졌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 국토관리사업을 힘 있게 벌린 결과 나라의 면모가 달라지게 되었다.

지난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과시된 뜻 깊은 해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제국주의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 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일당백의 용맹을 떨치였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라는것을 보여 주었다. 준엄한 사회주의강행군의 해 1997년에 우리 인민군대가 이룩한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있다.

당과 군대를 틀어 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지난해 전투에서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에서 전선으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며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하시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적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해 제국주의침략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엄중한 전쟁위험이 제거되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인민을 일떠세우시고 단신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해 오신것은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공적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민족의 구원자, 수호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며 김정일동지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무비의 담력과 백승의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령도자, 걸출한 정치가를 최고수위에 모신 불패의 당,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해 나가는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 이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가 그 어떤 천지풍파도 뚫고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는 근본원천이다.

새해 주체87(1998)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의지, 순결한 혁명적량심으로 우리 당을 옹위하고 당의 령도밑에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새로운 력사적전환점에 놓여 있다.

올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력사의 해이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위한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보루를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의 유혼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50돐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50돐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중요한 계기이며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뿌리 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떨치는 의의 깊은 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발휘된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이것이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상의 강정보루이고 신념의 성새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사상전지의 위력은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시다.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백만대적이 덤벼 들어도 무섭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한다고 해도 두려울것이 없다. 우리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김정일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당, 군대, 인민은 수령결사옹위의 3대기둥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당이 단결하고 전군이 단결하며 전체 인민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량심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한 기초이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준엄한 결사전에서 사람들의 신념과 량심이 검증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없으면 조국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신념을 굳건히 간직하여야 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하는 량심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의 전도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적량만에 넘쳐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경제적으로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은 우리가 새해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이다.

우리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경제적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 오늘의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야 하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제 우리가 간고분투하여 올해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게 될것이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211고지이다. 우리는 전국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녹색혁명을 다그쳐 종자문제를 풀고 2모작농사를 다그치며 모든 농사일을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와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석탄, 전력 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건인불발의 의지로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긴장한 석탄과 전력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도처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균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내밀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수송조직을 짜고 들어 철도운행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관철에 계속 큰힘을 넣어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물과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국토관리는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이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사는 산촌을 계손으로 더 잘 꾸려 나가려는 애국의 불타는 마음을 안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도로관리와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초병들이다. 우리 당은 올해의 총 진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크게 믿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을 추켜세우는데서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군사적보루를 금성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둥이다. 인민군대의 위력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에 모든 부대들을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군을 총폭탄대오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 명령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 강철 같은 군사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군에 상하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과 애병정신이 활짝 꽃 피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썬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 와도 혁명의 총창,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 잡아야 한다.

적들의 유화전략에는 혁명적원칙으로, 무력침공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는것이 우

리 군대의 전투적기질이다. 미제호전광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덤벼 든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수십년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힘으로 적들에게 천백배의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정의의 총대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다.

인민군대는 올해에도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용을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정신도덕적풍모와 투쟁기풍,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인민군대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군민일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친철육의 정으로 적극 원호하며 인민군장병들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우리 혁명의 생명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넋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우리 식으로 혁명도 하고 건설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자존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나 대외관계에서나 자주적인 대를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리고 고유한 민족적전통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칙은 반드시 승리한다.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 길에 사회주의의 존엄이 있고 자주적인민의 긍지가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 주신 사회주의원칙에서 추호도 물러설수 없다.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며 정치사상적위력, 집단주의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소한 비사회주의적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올해 사회주의총진군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울리게 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는 위력한 힘도 혁명적군인정신에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 비결도 혁명적군인정신에 있다.

우리는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와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당이 맡겨 준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며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총진군으로 불러 일으키는 화선식선전, 선동 사업을 힘 있게 벌려 나

가야 한다.

올해의 과업은 방대하고 시련은 겹쌓여 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한 정책을 실시하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새해 1998년을 사회주의승리자의 해로 빛내어 나갈것이다.

지난해 1997년에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되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내외반통일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

새해 1998년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게 될 력사적인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 지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조국통일3대현장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군사파쇼<정권>이 교체되어 왔고 최근년간에 와서는 <문민정권>이란것도 출현했었다.

례외없이 그것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상실한 철저한 식민지파쇼<정권>들이었다.

단순히 <정권>이나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여서는 남조선에서 변화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에 맞는 민주정권이 서고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되어야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 념원도 실현될수 있고 극심한 정치경제적위기도 해소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예속적이며 파쇼적이며 반통일적인 <정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나 하는것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자주의립장에 돌아 서야 한다. 반복대결정책을 량부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 버리며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것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실천적조치가 없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우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통일>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될뿐이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의 금후태도를 지켜 볼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험난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민족의 전도는 밝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

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지난해 1997년은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 지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이 과시된 의의 깊은 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 와도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해 나갈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우리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일시적인 난관과 시련은 있을수 있어도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계가 자주적인 사회주의길로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해 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여 나가는 우리의 표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이고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령도자와 인민의 불패의 혼연일체이다. 희망찬 새 시대가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고 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따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99.1.1)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승리자의 긍지드높이 희망찬 새해 주체 88 (1999) 년을 맞이한다.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수령은 인민을 뜨겁게 고무격려하고 인민은 수령을 믿고 따를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진군에 펼쳐 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계시며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 주체 87 (1998) 년은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된 강행군의 해, 투쟁과 전진의 해이다.

력사의 풍파를 맞받아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간고하였다. 당의 령도 따라 과감히 진행한 강행군은 제국주의의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키기 위한 신념의 행군, 의지의 행군이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펼쳐나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사회주의강행군에서 영예로운 돌파자로 되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다.

· 지난해에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굳건해 지고 우리 식의 정치체제가 튼튼히 다져 지게 되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빛나게 실현해 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가 정비되었다. 우리의 국가정치체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계승성 있는 정치체제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체제이다. 조국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된것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사회주의강행군과정에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게 되었다. 당과 수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 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강해 졌으며 사회주의계급진지가 튼튼히 다져 졌다. 우리 인민이 얻은것은 백배 해진 일심단결이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자들에게 차례진것은 수치스러운 패배뿐이다.

지난해는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이 힘있게 과시된 긍지 높은 해였다.

우리는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치였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나라가 당당한 위성보유국으로 된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는 좋은 징조들이 나타났다. 금속공업과 전력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을 활성화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 졌다. 농업부문에서도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전 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건설과 국토관리사업이 계속 힘 있게 추진되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최후승리를 눈앞에 바라 보는 령마루에 올라 섰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린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 필승의 위력이 힘 있게 과시되었다.

나라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전체 인민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고 낫을 들고 떨쳐나 자기 제도, 자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유화전략>에는 혁명적원칙으로, 침략전쟁에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것이 확증되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이 사회주의강행군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지략의 승리, 담력과 의지의 승리이다.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몸소 총진군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새로운 승리로 불러 일으키시였다.

자강도와 함경북도, 대흥단과 덕천을 비롯한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 새겨 져 있다. 온 나라에는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

사회주의강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활동은 선군혁명령도로 일관되어 있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는것은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회주의를 수호해 나가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것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력사에 류례없는 사회주의강행군을 주동적으로 단행하시여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 놓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새해 주체 88 (1999) 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 총 진격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새로운 승리로 빛내이기 위하여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

올해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오래동안 무르익혀 오신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력사적진군이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조국으로 진격하던 때와 같은 역사적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강행군에서 다져진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힘을 총 동원하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이 되는 해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건국의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 재보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령도 따라 빈터우에서 천리마진군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사상강국으로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의 나라이다. 사상으로 건설되고 신념으로 다져진 사회주의성채는 금성철벽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전투적기치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계승완성도 있고 조국의 무궁한 릉성번영도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숨 쉬고 싸워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당 및 국가, 군 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상강국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다. 최고의 애국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최대의 충정도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곧 우리 당이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이며 우리 인민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결사수호하는 성새가되고 방패가 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사상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사상적대결을 동반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황색바람도 사소한 비계급적요소도 허용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와해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한 사상과 문화, 생활양식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해야 한다.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을 견결한 계급의 전위투사로 키워야 한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강국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된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혁명의 총대우에 조국의 강성부흥이 있고 사회주의승리가 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제일기둥이며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군을 오늘의 오중훈7련대로 만들어야 한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박에 모르며 최고사령관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하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적에 대한 불 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계급적원수들과 끝까지 싸우는 사나운 맹호로 키워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3대장군의 기질로 싸워 이기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이다. 세계유일초대국도 내려다보는 만만한 배심,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 원수들과 단호히 결판을 내고야마는 무자비성, 이것이 백두산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군대의 본성이고 전투적기질이다. 이 행성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을 막아낼자는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덤벼 드는 침략자들을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짓부실것이며 그 어떤 적의 아성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와도 싸움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하며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한것은 우리의 군사강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전체 인민들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나라를 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건설하여 놓은 우리의 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며 용군애민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 피워야 한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경제강국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에 경제적힘이 안받침될 때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 설 수 있다.

올해의 총진군은 강행군의 계속이며 90년대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이다. 우리는 < (고난의 행군) 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이다.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올해에 우리는 농사에 전국가적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우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며 종자혁명을 계속 힘 있게 내밀어야 한다. 강원도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게 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력과 석탄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 전국이 달라붙어 이미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기며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굴진과 갱건설을

앞세워 탄발을 더 많이 마련하고 석탄생산을 늘여 나가야 한다.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 끌어 올리며 긴장한 철도수송문제를 풀어야 한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부흥의 밑천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평양-남포고속도로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조국의 부흥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 올린 그 본때로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혁명방식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당, 군, 민의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위력을 발동하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 나가는것이 우리 식의 혁명방식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 그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당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사상의 위력으로 오늘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새 환경에 맞는 혁명적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행군에서 창조된 강계정신은 전당, 전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떠밀어 주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기 살림살이를 제손으로 꾸려 나가는 자력갱생의 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어려울수록 락천적으로 살고 일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강성대국건설의 중하가 지워져 있다. 일군들은 새환경에 맞게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 와야 한다. 잡도리를 크게 하고 뉘다 미는 대담성과 완강한 실천력, 언제나 기발을 들고 앞장서는 이신작척,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는 인민적품성,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일군들의 투쟁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일군들은 더욱 분발하여 대홍단기풍으로 일해 나감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이다.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이 애국의 불타는 열정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애국속에 민족부흥이 있고 참된 삶이 있다. 우리는 해방후 들끓는 건국열의로 내 나라를 일떠세우던 그때처럼 있는 힘, 있는 지혜, 있는 열정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선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누구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순국할줄 아는 열혈의 애국충신이 되어야 한다. 향토애, 공장애를 지니고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튼튼히 지켜 나가야 한다.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하나의 건설물을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도록 만년대계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간고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눈앞에 있다. 우리에게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도 있고 튼튼한 토대도 마련되여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총 진격할 때우리의 행군길은 반드시 락원의 행군길로 이어 질것이며 1999년은 20세기의 가장 빛나는 해로 력사에 기록 될것이다.

지난해는 우리 민족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온 력사적인 해였다.

지난해에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였다. 남조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달라진것이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도 더욱 비참하고 어렵게 되었다. 국제금융의 신탁통치로 경제는 총체적파국상태에 처하고 대중적인 실업과 빈궁, 부정부패가 범람하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미제와 그 하수인들의 식민지파쇄체제하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념원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자체도 부지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 대한 1년간의 검증과정에 남조선인민들 스스로가 찾은 결론이다.

새해 주체88(1999)년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세기적인 념원이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이 자주화되여야 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식민지노예로 살아 온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더는 그렇게 살수 없다.

남조선에서 자주화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외세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전쟁의 제물로 삼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반외세, 반제, 반괴뢰 투쟁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화된 새 세상을 가져오기 위한 인민들의 거족적인 반외세자주화투쟁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초석이다. 남조선에 있어서 출로는 오직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동족과 손을 잡는 련공련북통일에 있다.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이 아니라 동족과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동족사이의 접촉과 대화, 통일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안기부> 등 온갖 제도적장치들을 철폐,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벌려야 한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해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의 통일대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통일의 앞길은 락관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이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의연히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현실은 미제의 오만한 강권행위를 짓부시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수호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해 나갈것이다.

우리는 멀지 않아 2천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다가오는 새로운 년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조선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칠 희망의 년대이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고난의 행군>길에서 단련된 강의한 우리 민족이 다시한번 분발하여 일떠서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우리는 2000년에 맞이하게 될 당창건 55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총 돌격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높이 새 세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길은 가장 숭고한 애국애족의 길이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는 정의로운 길이다. 이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자로 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끝)

## ‘당창건 55돛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0.1.1)」

오늘 우리 인민은 준엄한 력사의 풍파를 헤쳐 온 조선혁명의 년대기들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며 희망찬 새해 주체89(2000)년을 맞이한다.

세기를 격동시킨 사회주의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2000년을 떳떳하게 맞이하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있으며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해의 총 진군을 다그쳐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88(1999)년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력사의 해이다.

최근 며체동안 우리 인민은 류레 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 왔다. 90년대 후반반기 우리가 벌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쟁을 벌려 여러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고난의 행군>의 영웅서사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불멸의 위훈이다.

지난해에 간고한 투쟁속에서 다져 진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돛을 계기로 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식대로 혁명을 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억세계 살며 싸워 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높이 발현되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정성옥 영웅이 세계녀자마라손의 패권을 쥐게 된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친 20세기의 뜻 깊은 사변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우리 인민의 영웅성의 정화였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 힘 있게 벌여 짐으로써 온 사회에 수령옹위정신, 결사관철의 기풍, 혁명적략관주의가 차넘치게 되였다.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수천만톤의 쌀과도 대비할수 없는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장엄하게 벌여 진 보람찬 해였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 어려운속에서도 당의 웅대한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성장의 봉화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여 졌다. 농업발전에 커다란 힘이 돌려 지고 주체농법의 요구가 구현되게 되였다.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와 광명성제염소 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다.



지난해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토대가 더욱 튼튼해 졌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빨리 달려 나갈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온 나라를 진감시킨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 긍지 높은 한해였다.

90년대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와의 가장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강화되었지만 갈수록 궁지에 빠지게 된것은 우리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으로 나올때에도 강경하게 맞서 싸웠고 유화전략으로 나올때에도 확고한 혁명적원칙성으로 그것을 짓부셔 버리었다. 세계를 격동시킨 우리의 승리는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티끌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견결히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는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수 놓아 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작전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현명한 정치를 실시해 오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명철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전국적인 본보기들이 수많은 창조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가 열리게 되었다. 령도자가 지펴준 한점의 불꽃이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타번지고 령도자의 귀감이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는 곧 선군정치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웅근 한해동안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조국도 보위하시고 사회주의건설도 령도하여 오시였다. 전환의 해 구보행군의 앞장에는 언제나 인민군대가 끄떡없이 서 있었고 인민군대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싸워 나가도록 하신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력사의 해 1999년에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 놓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위대한 혁명실적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 지게 될것이다.

새해 주체89(2000)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 진격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우리 조국을 가장 위력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더없이 보람차고 거창한 투쟁입니다. >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돛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당창건 55돛은 주체형의 당의 창건자, 건설자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크나큰 경사이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한 사회주의승리자들의 대축전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곁쌍인 시련을 과감히 이겨 내고 당창건 55돛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쳐야 한다.

당창건 5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오늘의 총 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준엄한 시련속에서 고수하여 온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강성대국건설이며 승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기치이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올해에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로선을 틀어 쥐고 올해 총 진군을 다 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

사상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사상중시는 우리 당의 제일생명선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이다. 우리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죽으나 사나 사상을 틀어 쥐고 나가는 철저한 사상론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을 오직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삼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김정일동지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사상에서 근본핵은 혁명의 수뇌부옹위정신이다.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고 백전백승의 향도자이시다. 우리 혁명전사들은 인생의 청춘기도 수령결사옹위로 꽃 피우고 인생의 로년기도 수령결사옹위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한목숨 기꺼이 바쳐 령도자를 옹위하는 총폭탄용사, 령도자가 벽을 올리면 강산을 올리는 결사관철의 기수, 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들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열적인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에 의하여 수호되는 불패의 보루이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다져 온 사회주의의 계급전지를 0.001밀리메터도 양보할수 없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독약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이 암살책동으로 나오든 완화전술로 나오든 일관하게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언제나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말고 계급적원썬들과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싸워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온 사회적으로 강하게 벌려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필승의 신심에 넘쳐 락관적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

총대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총대로 개척된 조선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이다. 총대중시는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하여야 할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사회주의운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은 국방중시에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이다.

인민군대가 틀어 쥔 총대에는 수령옹위의 불 타는 녀이 깃들어 있고 원수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투철한 계급적각오가 어려 있다. 인민군장병들은 항일의 경위대처럼 최고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오늘의 오중흡이 되어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령군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군대를 관병일치의 미풍이 차넘치는 혁명적동지애의 결정체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참다운 혁명군대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의 과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해치려는 계급의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깃몽개버리는 무쇠주먹이 되어야 한다.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들, 푸른 바다를 끝없이 사랑하고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식으로 싸워 이기는 백두산 3대장군의 군대이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절불굴의 투지, 물과 공기만 있으면 끝까지 살아서 싸우는 무비의 강의성,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적들을 답새기는 신출귀몰의 전법, 이것이 백두산기질을 타고난 우리 군대의 싸움하는 본때이다. 전군에 항일유격대식 훈련기풍을 철저히 세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여야 한다. 백두산 3대장군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계국주의 침략자들이 감히 덤벼 든다면 인민군대는 일격에 원수들의 아성을 폭파해 버릴 것이며 정의의 전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 인민이다. 전체 인민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을 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어 조국도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도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과학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높은 혁명성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될 때 사회주의의 성공탑을 쌓을수 있다.

우리는 온 사회에 과학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누구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 주어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피 타는 탐구정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적력량을 전망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새로운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 들이며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가 보다 큰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다.

우리의 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렵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구보행군의 계속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기세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 돌격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창건 55돐을 빛내이는 돌격전의 영웅이 되

자! >라는 구호를 들고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누구나 성장의 봉화 따라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 기치이다. 제국주의포위속에서 제힘으로 살아 나가는 길도 당의 경제정책에 있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비결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 있다. 우리는 락원의 10명당원들의 투쟁정신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관철해 나가야 한다. 남을 쳐다 볼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 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적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이다. 현존발전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같이 밀고 나가며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금속공업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야 한다.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 높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가져 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그 정당성이 확증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를 밀고 나가며 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한다.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전후 빈터에서 일떠서던 그 기세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과 개천-태성호물길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야 한다.

올해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의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당이 위력하고 당의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충직한 인민만 있으면 천하대적도 이길수 있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한다고 해도 두려울것이 없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다. 오랜 혁명투쟁을 통하여 획득하고 공고화된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 우리 시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 있게 벌려 온 나라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이자 수령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애국애족의 사회주의이다.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 하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의 정치체제, 우리 식의 경제구조,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고수하여야 한다.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키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언어생활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도덕과 문화정서생활에서 우수한 민족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명실공히 실력전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희세의 실력가형의 위인이시며 우리 혁명전사들은 실력으로 령도자를 받들어 나가는 강성대국건설의 전위들이다. 모든것이 충실성과 실력에 달려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은 김정일동지식으로 면밀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는 정열적인 사색가, 창조적 능수, 용감 무쌍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강계정신은 높은 실적을 올리게 하는 위력한 투쟁정신이다. 우리는 자강도 사람들이 지닌 왕성한 일욕심과 강한 생활력, 알뜰한 살림살이기풍으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켜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노래도 있고 웃음도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량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의연히 간고한 우리 혁명은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투쟁을 요구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군가처럼 장엄하고 씩씩하게 승리의 행진을 다그침으로써 2000년을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해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력사적인 전진이 이룩된 해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조국통일행사들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이루어져 민족의 꺾을수 없는 통일외지가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도 더 한층 강화되었다. 오래고도 간고한 조국통일운동사는 외래침략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제도 통일도 있을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일만이 살길이고 조선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다. 우리는 조국광복 55돛이 되는 올해 200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통일의 원수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겨레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주는 절대적인 권위이며 장군님의 덕망은 주의주장이 다른 각계각층의 온 민족을 묶어 세우는 위대한 인덕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 이것이 새해를 맞으며 전체 조선민족이 다시금 굳게 간직하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온 민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한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의 력사적숙망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자주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자주가 없는 조국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외세와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외세자주화, 반피외민주화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썸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전제이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

이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람은 반역자이다.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아래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근본열쇠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부름이며 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력사의 반동들을 쓸어 버리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 졌다.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주권국가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비렬한 내부와해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하는것이 오늘의 제국주의자들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평화>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에 견결한 반제정신과 강력한 주체적력량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때 혁명의 전취물도 민족의 자주권도 지킬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며 우리 당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국제적임무를 다해 나갈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기의 령마루에서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며 우리 앞길에는 아버지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고 2000년은 우리의 투쟁할무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간고한 혁명의 천만리를 걸어 온것처럼 김정일동지를 따라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천만리길을 역세계 걸어 나갈것이다.

모두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1.1.1)

오늘 조선혁명은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의 진군길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로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고 새해 주체90(2001)년을 뜻 깊게 맞이하게 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다.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광명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전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세기 승리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 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89(2000)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 난 위대한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승리로 수 놓아 왔다. 20세기는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존엄 떨친 영광의 세기이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여 온 긍지 높은 세기이다.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여 우리의 리념,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세기의 마무리를 잘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이다. 쓰라린 곡절도 있었고 빛나는 위훈도 많았던 격동의 20세기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인민은 반드시 영광의 단상에 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는 세기와 더불어 튼튼히 다져 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 있게 과시된 의의 깊은 해였다.

우리는 당창건 55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자부심에 넘쳐 성대하게 기념하였다. 당창건 55돐 경축행사는 수령승배, 수령결사옹위로 뜨겁게 맥박친 일심단결의 대축전이였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낸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의 대행진이였다.

오래고도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 온 우리 혁명대오는 당의 품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믿고 싸워 나가는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 지게 되었다.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되고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이려는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었다. 사랑과 충성, 믿음과 의리로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이 갈수록 백배해 지고 있는것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는 세기를 진감시킨 천리마대고조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린 보람찬 투쟁의 해였다.

우리 인민은 건인불발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 마지막돌격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우리 당이 심어 준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서게 하였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는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세차게 타 올랐다. 1950년대에 시작된 우람찬 천리마대진군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지난해에도 힘차게 다그쳐 짐으로써 20세기가 천리마의 세기로 빛나게 되었다.

지난해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린 뜻 깊은 해였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온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열기로 들끓게 되었다. 50여년동안에 걸쳐 이룩할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과제들이 실현된것은 민족사적사변이다.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 서게 되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대단결의 기운이 더 한층 높아 지게 되었다. 빛나는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새로운 통일강령을 마련하시여 민족분열을 끝장 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의 옳바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로선이 있고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 온다는것, 이것이 7천만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린 철석의 신념이다.

지난해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다.

자주의 가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는 우리 나라는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어 왔다. 우리의 강경하고도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되었다. 적들이 떠들던 사회주의<붕괴론>이 파산되고 우리나라가 불패의 사회주의성세로 거연히 솟아 빛나게 된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

5천년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오른 때는 없었다.

우리와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현실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그 어떤 힘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찬 전진을 가로 막을수 없다는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한 지난해의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 20세기에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왔다. 우리 인민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 넘친 승리의 길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 져 있으며 수령님식대로 혁명을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이 빛나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불사조와 같이 싸워 이긴 사회주의조선의 기적을 낳게 하고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빛내이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개척해 온것은 세기의 행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실력은 온 민족을 매혹시키고 온 세계를 격동시켰다. 세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원로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활무쌍한 지략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승리를



앞당겨 나가게 하였고 김정일동지의 정치적결단성은 순간에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포용력은 만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 잡았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를 주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시는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향도자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우리 혁명투쟁력사에서 2000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해, 20세기를 영웅서사시로 장식한 긍지 높은 해로 빛날것이다.

새해 주체90(2001)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새로운 승리로 빛내이기 위하여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21세기의 첫해이다. 21세기는 력사의 풍파속에서 검증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 피는 영광스러운 세기이며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치는 보람찬 세기이다. 우리는 올해에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승리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강성대국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건당, 건국, 건군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해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우리가 틀어 쥐고 나가는 21세기 혁명의 계주봉은 혁명선렬들의 뜻이 어린 붉은기이고 우리 인민이 걸어 가야 할 승리의 길은 주체의 사회주의향로이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이것이 올해 전당, 전군, 전민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주로 존엄 높고 단결로 승리하며 애국애족으로 번영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자주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

자주는 새 세기의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며 자주정치는 인류의 지향을 반영한 보편적인 정치이다. 우리는 <트. ㄷ>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시대를 앞장에서 선도해 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인민답게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혁명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리념, 우리식의 정치체제, 우리식의 혁명방식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당적령도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을 틀어 쥐고 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여기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새 세기에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지배주의적책동이 더는 허용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견결히 지켜 나갈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새 시기를 주동적으로 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것이며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우리 당의 위력한 단결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단결은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이다. 우리 당의 영원한 정치철학은 단결의 철학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령도력도 단결에 있다. 20세기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온 우리의 일심단결의 력사가 21세기에도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위력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불굴의 투사들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수령결사옹위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적동지에에 기초한 단결이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령도자와 뜻을 같이하고 불바람 휘몰아 쳐 와도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하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진 맹세 변치 않는것이 조선의 혁명가들의 동지애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김혁형의 열혈의 동지, 차광수형의 신념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고 이끌어 주는 광폭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과 민족을 중시하는 애국애족의 당이며 우리 당이 혁명하는 목적도 조국과 민족의 튼성번영에 있다.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부흥을 이룩하여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땅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눈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부흥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여 후세에 길이 찬양을 받는 로동당시대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모든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사회주의락원이다. 올해에 우리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당의 대담하고 통이 큰 인민적시책이 실제적으로 커다란 은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를 받들고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이다.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20세기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확증된 혁명의 철리가 선군로선에 구현되어 있다. 선군정치는 시대적보편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정의와 변명의 길로 나가는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선군혁명의 길에 자주도 있고 단결도 있으며 애국애족도 있다.

선군혁명로선에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으며 총대로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철의 의지가 구현되고 있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그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전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20세기 정치사에 끝없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혁명로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싸워 나가야 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며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밀고 나가는 우리당의 혁명방식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제일기수이며 돌격대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천만리 전선시찰의 길을 걸으시며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혁명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서 싸우던 그때처럼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야 한다.

인민군대의 영원한 좌우명은 혁명의 수뇌부사수이며 우리 군대의 전투적기질은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총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주선으로 틀어 쥐고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이 확고히 선 무적의 강군, 항일유격대식기풍이 차넘치는 불패의 혁명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천리방선을 지켜 선 매 군인들의 익측은 피로써 맺어 진 혁명전우들이며 중심은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인민들이다. 전체 장병들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감으로써 모든 전투대오를 익측이 튼튼하고 중심이 무한대한 강철의 대오로 다져 나가야 한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인민군대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해도 오직 당과 숨결을 같이하는 높은 정치성, 혁명의 원수들과는 끝까지 사생결단하려는 투철한 계급적각오,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한목숨 기꺼이 내대는 고귀한 희생성, 이것이 인민군대의 총대에 맥박쳐야 할 붉은기정신이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총대중시사상을 받들고 조국보위정신과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며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야 한다.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강성부흥의 기초이다. 불패의 군력과 정치사상적위력은 반드시 강력한 경제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는것이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

우리는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존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기술로 갱신해 나가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게 하여야 한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이다.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 나가야 한다. 금속공장들의 설비현대화를 밀고 나가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철도운수를 정비보강하여 늘어 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은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농업근로자들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대홍단정신, 대홍단일본새로 21세기의 첫해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여야 한다.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면적을 적극 늘여야 한다. 폐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더 많이 기르며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휴양소, 정양소, 병원들을 비롯한 문화후생 및 보건시설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노동자, 농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이다.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세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대담하게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식으로 살며 싸워 나가는 우리 혁명전사들은 넓은 관념에서 벗어 나 참신하게 사고하고 더 높이 비약해야 한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 사상교양사업을 해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실효성 있게 하고 경제조직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새 세기에도 우리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최후의 웃음을 웃을 때까지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계속혁명의 정신,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혁명적락관주의,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제 힘으로 락원을 꾸려 나가는 강한 투쟁력, 이것이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의 원동력이다. 지도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지니고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패기 있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하여 조선청년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것처럼 새로운 대고조의 앞장에서 세기적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승리의 비결은 당의 전투력에 있다. 당조직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예리한 정치적인 목표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계급적우월감을 지닌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로 키워야 한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을 불러 일으켜 온 나라에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닦은 올랐다. 우리의 사상의 힘, 단결의 힘, 의지의 힘은 백배천배로 용솟음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락원예로의 총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새로운 비약의 해, 전면적부흥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적통성번영의 길이다.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지 못한채 새 세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

현 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는 6. 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다.

6. 15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 단결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다.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길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것이다. 북과 남은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것이다.

은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6. 15 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합류하여야 한다. 민족대 단결에 저촉되는 온갖 제도적, 법률적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숨 쉬고 장군님의 령도력으로 전진하며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전도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뜻 깊은 해로 빛내어야 할것이다.

장엄한 새 세기의 진군길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심과 열의는 드높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21세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고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해 주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은 세기를 이어 계속된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  
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  
차게 싸워 나가자. (끝)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2.1.1)

오늘 우리는 양양된 정치적분위기와 전 민족적환희속에 희망찬 새해 주체 91 (2002)년을 뜻 깊게 맞이한다.

지나온 력사가 영광스럽고 계승이 위대하며 전도가 양양한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새 시대 진군길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 보며 새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 90 (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불굴의 기세로 새 세기 첫해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꿋꿋이 이어져 온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위업이 변함없이 계승되어 나가고 있는것은 더 없는 긍지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21세기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 피는 영광의 세기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벌리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우리 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고 21세기 국제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력사적사변이었다.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혁명활동방식과 천재적인 령도실력은 세계를 격동시켰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백배로 높여 주었다.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피난 긍지 높은 단결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절히 그리며 어려운 시련을 과감히 헤쳐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자나깨나 우러르며 고도의 자각성과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의 순결성과 우리 정치체제의 확고부동성이 힘 있게 과시되게 된것은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여러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게 되었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었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 수 있다.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다. 21세기 첫해에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된것은 부강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며 적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었다. 세계도처에서 전횡과 강권행위를 일삼는 제국주의자들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곧바른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진보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회주의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과시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결실이다.

오늘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김정일동지의 판단과 분석은 언제나 명철하였고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방략은 백발백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최전선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새 기상이 약동하게 되고 군민이 힘을 합쳐 기적을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 지게 되었다. 선군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위업이 완성되는 21세기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 놓으신것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 세기 첫해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휘날린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진군길에 떨쳐 나가고 있다.

새해 주체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입니다. >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들고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



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 섰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결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4대제일주의는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릉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녀름으로 영원히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 엎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트. 드>열혈투사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수령님 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팍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김정일동지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 없는 열정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 회세의 정력가이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력사의 풍파를 뚫고 승리하여 온 혁명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

는 의지이다. 세기가 바뀌고 력사가 멀리 전진했다고 해도 조선혁명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순간의 탈선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 났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혁명이 계속되는 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과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민족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국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치체제는 굳건하며 우리 나라는 끄떡 없다.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백두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오중흡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오위의 제1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 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녀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립장은 단호하며 우리의 총대는 무자비하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 드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이 될것이며 적들의 침략적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생활을 통하여 인민군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새긴 인민이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산 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

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를 옹군애민사상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군민대행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우리 제도제일주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려는 애국의 열정이 높뛰고 있다.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제일주의를 하자는것도 결국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는데 있다.

현 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현실적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들어 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양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운택하게 하여야 한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이다.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옹기 구현하며 사회적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륜성변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 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비상히 양양된 정치적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일떠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기질이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견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이 온 나라에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것을 요구한다.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라남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백번 천번 다시 일어나 기어이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라남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차넘쳐야 한다. 누구나 다 낯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방법에서 벗어 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일군,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의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진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빛나는 계승속에 혁신이 있고 미래가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래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당사업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의 기초를 축성하던 그때의 순결한 혁명정신이 맥박쳐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로 집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서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하여 새로운 생산적양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진격명령은 내렸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고난의 행군>속에서 역세여 진 김정일장군의 혁명전사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칠 때는 왔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의 해,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의의 깊은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 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옹호하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고 추켜 들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15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 15 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 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외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외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옹호한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백두의 혈통을 이어 나가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백두산 3대장군이 추켜 든 혁명의 붉은기가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휘날리고 있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를 막을수 없는 힘으로 떠밀어 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백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장군별, 백두광명성을 우러르며 해쳐 온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없이 이어 나갈것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하여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3.1.1)

금부터 새해 주체92(2003)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오늘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전진하여 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기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 보면서 희망찬 새해 주체92 (2003)년을 맞이한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정당하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확고부동하기에 조선혁명의 백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영도에서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91 (2002)년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이 높이 떨쳐진 역사적인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공세는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우리는 사생결단하여 싸우는 영웅적 인민의 신념과 의지로 난국을 헤치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길을 열어 놓았다.

국제적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 사회주의의 혁명진지가 튼튼히 다져진 것은 더없이 고귀한 성과로 된다.

선군의 기치 밑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지난해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 길에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힘있게 시위한 단결의 해, 대정치축전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과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을 전 민족적 환희 속에서 성대히 기념하였다.

뜻깊은 2002년의 대 정치 행사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영광을 높이 떨친 혁명적 축전이었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계승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영광의 대축전장 마다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은 온 겨레의 심금을 울리고 세계를 격동시켰다.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펼쳐졌다.

영도자는 군대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들은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다.

지난해는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력이 높이 떨쳐진 긍지 높은 해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획기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는 제국주의의 전횡과 강권행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었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 초대국과 당당히 맞서 세계정세의 흐름을 주도하며 국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은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을 뿌린 우리 나라가 오늘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조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였다.

우리 인민은 경제강국 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였다.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 번지는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양양의 돌파구가 열리고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대성호 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리 경제가 활력에 넘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 지게 된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데서 귀중한 성과로 된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작전하고 대담하게 변혁해 나가는 위대한 당의 영도가 있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그 어떤 침체나 답보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것이 간고한 시련 속에서 간직한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노선과 정력적인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로 선군시대 혁명의 새로운 원리와 전략전술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선군노선과 지략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준엄한 투쟁 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의 나날처럼 지난해에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영도하시었다.

올 한해동안 인민군부대들과 전국각지의 공장과 농촌들을 끊임없이 현지도하신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북돋아 주고 온 나라

에 창조와 혁신이 나래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세계를 진감시키는 우리 조국의 위력은 위대한 선군사상의 위력이며 조선혁명의 힘찬 진군은 우리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력의 과시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우리 시대가 앞으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전진하고 번영하는 영광스러운 시대로 빛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새해 주체92 (2003)년은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에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선군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영예와 승리의 상징이며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이며 역사상 가장 존엄 높고 위대한 강국이다.

공화국의 창건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값높은 삶과 끝없는 행복을 안아 온 크나큰 경사였다.

세상에는 우리 공화국과 같이 오랜 기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일대 융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치고 자기의 창건 55돌을 긍지높이 경축하는 위대한 나라는 없다.

공화국 창건 55돌을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건국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며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는 보람찬 애국사업이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 온 자랑스런 역사는 반제반미 투쟁의 영웅서사시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청소한 공화국을 수호하고 미제에게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인 세계사적인 기적이었다.

전승 50돌은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제국주의와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떨치는 중요한 계기이다.

공화국 창건 55돌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며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우리는 공화국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에 선군의 위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공화국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 뭉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과 노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백두의 혁명전통과 정신을 곳곳이 이어 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보루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하면 천만대적도 두려울 것이 없고 강성대국 건설의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못해 낼 것이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당의 사상과 영도를 한 몸 바쳐 구현해 나가는 결사옹위의 투사, 절대 관철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실록을 수놓아 오시는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 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 자주사상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금성철벽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에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의 사상과 도덕, 우리의 고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견결히 지켜 나가야 한다.

선군의 기치 밑에 공화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면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부강조국 건설 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인민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고리로 계속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맞이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는 새 문화가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에 창조된 우리의 사회주의문화는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화의 전형이며 자주적 인간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시켜 주는 우월한 문화이다.

우리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 낭만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 나는 인민군대의 문화생활 기풍이 온 사회에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 보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언어와 예절, 옷차림과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민족적인 것을 옹기 살리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수호하자면 우리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전투적 위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위업의 주도적 역량이며 공화국의 믿음직한 수호자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축7연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생사를 끝까지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제일 총폭탄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당 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여 전군에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세우고 관병일치, 군민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철저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훈련제일주의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 그 어떤 강적도 우리 식으로 타격소멸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배격하고 언제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에 환장이 되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예측할 수 없는 타격으로 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 원수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릴 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도 당이 부르는 경제강국건설의 최전선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용을 높이 떨쳐야 한다.

국방과 원군은 최고의 애국사업이다.

전체 인민들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군민일치 사상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며 원군미풍 열성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

군사복무를 공화국 국민의 성스러운 의무로, 더 없는 영예로 여기고 조국보위사업에 용약 떨쳐나서는 참군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다.

우리 당을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승불패의 정치적 무기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 세우고 당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착상하고 본때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활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책임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바쳐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신 항일의 애국주의 전통과 정신은 참다운 애국주의의 시원이며 최고정화이다.

우리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따라 배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된 의무와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

간고한 투쟁 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공화국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

누구나 내 나라,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창조와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야 한다.

공장애,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일터, 자기 군과 도를 사랑하고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연대들에 발휘된 강의한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

혁명은 투쟁 속에서 전진하고 승리하며 우리 앞에는 의연히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여 있다.

항일의 전통을 계승하여 미제와 싸워 이긴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정신, 사생결단으로 준엄한 난국을 맞받아 뚫고 나간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적들과의 판가리 대결전을 벌여야 할 우리의 심장에는 살아도 죽어도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려는 비장한 각오, 정세가 엄혹해 질수록 천백 배로 분발하여 싸워 나가는 건인불발의 의

지가 맥박쳐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낙관에 넘쳐 제 힘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강한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싸워 기어이 승리해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은 누구보다도 반제투쟁 정신이 강해야 하며 혁명성과 전투력이 높아야 한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꾼들은 언제나 돌격전의 앞장에서 난관과 시련을 헌신적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며 공화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새 세기 개척자들이다.

청년들은 반제반미성전에서 발휘한 선행세대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훌륭히 계승해 나감으로써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서의 무거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전도에 대한 낙관과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있다.

우리는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불굴의 기개로 억세게 싸워 나감으로써 공화국창건 55돌이 되는 올해를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위대한 창조와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것이다.

지난해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해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민족분열이 후 있어 보지 못한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북남 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실은 내외의 반통일 분열세력이 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하여도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통일으로 나아가려는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표대는 어제든 오늘도 앞으로든 6.15 북남공동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자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온 겨레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내세우고 민족주체의 위력으로 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는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에로의 지름길이다.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이치이며 생존방식이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이념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권력욕과 부귀욕에 물젖어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책동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동족이 동족을 반대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 공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 화해분위기가 흐려지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 당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미제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전쟁책동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대조선 지배전략이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도발적인 군사적 압력소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중시의 정치이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민족의 운명과 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선군정치를 한결같이 지지옹호하며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신심과 의지는 백배해 지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위에 존엄있고 융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승리만을 기폭에 새겨 온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 있다.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 강군이 있고 당과 인민의 철통 같은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을 떨쳐 온 우리 공화국의 긍지 높은 역사와 전통을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영원히 빛내어 나갈 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끝]

## ‘당의 영도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4.1.1)

지금부터 새해 주체93(2004)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가 아로새겨지게 될 새해 주체93(2004)년이 밝아왔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지켜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더없이 보람찬 것으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억세게 싸워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드높은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주체92(2003)년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 영웅적 투쟁의 해, 참여한 정세 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한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는 공화국 창건 55돌을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장식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섰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비상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공화국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이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지난 해에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과 우리 식의 국가정치 체제가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를 계기로 영도자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고 수령결사옹위 대오의 위력이 백배해졌다.

우리의 국가정치 체제는 일심단결의 공고한 초석위에 뿌리내리고 선군의 원칙을 구현한 불패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체제이다.

지난 해의 뜻깊은 사변들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영도따라 선군혁명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지난 해에 나라의 자립적 경제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 문화생활이 더욱 꽃피나게 되었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완강한 투쟁을 벌려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으며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에서 훌륭한 경험이 창조되었다.

민족적 풍습이 장려되고 문화정서 생활이 풍만해짐으로써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낭만과 기백이 약동하게 되었다.

지난해의 투쟁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이악하게 투쟁할 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지난해에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가 높이 떨쳐졌다.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침예한 핵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압력과 강권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단호히 짓부셔 버렸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독자적인 결심과 주견에 따라 자기가 갈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과 의지는 강경하였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죽음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반제 투쟁의 진리를 과시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노선의 승리, 신념과 배짱의 승리이다.

비범한 통찰력과 정치적 결단성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지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온갖 난국을 헤치며 승리해 나가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강철의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온 한해동안 끊임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 수 있는 영웅서사시적 행로였다.

군대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온 나라에 전설같은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게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또다시 큰 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영도의 정당성과 생활력, 조국과 민족의 밝은 전도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주체93(2004)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성스러운 연대기 위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변들을 안고있는 역사적인 해이다.

걸어온 투쟁의 천만리를 돌이켜보고 가야 할 선군의 머나먼 길을 내다보며 새해에 들어서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앞에는 백전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할 신성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나갈 것이

며, 김일성 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총대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10년은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고 우리 조국과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번영해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한 불멸의 투쟁 행로였다.

시련과 난관은 형언할 수 없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만 곳곳이 걸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으며, 이 길에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것이 지나온 10년 역사의 귀중한 총화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지난 10년간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도체계의 확고부동성, 백승의 정치실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올바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워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항도자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이다.

독창적인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방식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주체위업의 명맥을 고수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의 더없이 고귀한 재부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마련하신 업적과 재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조국과 혁명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오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며 의지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선군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쳐 나가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섰다.

이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선포 30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 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축적된 정치 사상적 및 군사 경제적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도 백승을 떨칠 수 있었다.

우리는 전당, 전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기치밑에 마련되고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더욱 억세게 다져진 무진장한 힘을 폭발시켜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 당과 군대와 청년들 앞에 나서고 있는 총적인 투쟁과업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 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를 벌이



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당, 전군, 전민이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 열정을 안고 떨쳐 일어나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혁명 승리의 장엄한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야 할 때이다.

정치사상전선에서부터 혁명적 공세를 벌여야 한다.

정치사상전선에서의 공격전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사상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에 강력한 반타격을 안기는 전면적인 공세이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이 선포된 30돌이 되는 올해에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며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최강의 무기이다.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 동지로 준비시키는데 사람과의 사업,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군혁명 대오 안에 수뇌부의 유일적 영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발전의 요구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 있게 체득시켜 누구나 다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군인품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세와 현실은 사회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위하는 아름다운 집단주의적 소행이 우리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낙천적인 기질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 낙관주의는 영령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가지고 혁명군가 높이 부르며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과 반제투쟁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쪼먹고 우리 내부를 와해하려는 제국주의의 비열한 책동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자주적인 삶을 귀중히 여기는 강한 계급적 자존심, 자기의 것을 끝없이 사랑하며 피로써 수호하고 꽃피워온 우리의 사회주의 생활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양식과 생활기풍을 확립하여 우리 식이 아닌 그 어떤 요소도 습생어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처럼 당사상 사업이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대중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혁명은 반제투쟁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혁명이며 반제군사전선은 선군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되고 있다.

군력강화를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내세워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인민군대는 반제군사전선의 제일기둥이며 주체혁명의 강력한 수호력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고수해나가야 한다.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세우는 사업을 당정치 사업의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밀고 나가며 모든 장병들을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절대옹호자, 결사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뇌부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위력 떨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모든 면에서 선군시대의 기수, 본보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견결한 반제투쟁정신과 높은 대적관념을 가지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적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강요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를 관병일치, 군민일치, 군정배합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최강의 혁명군대, 정규화적 면모에서도 손색이 없고 군사기술적 위력에서도 당할 자가 없는 가장 존엄있고 위풍당당한 정예무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이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 진행하며,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선군시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백승의 위력한 담보인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 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현 시대에는 경제, 과학분야가 나라의 국력을 담보하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요 전선으로 되고있다.

경제, 과학전선에서의 오늘의 공격전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우리는 올해에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선군시대 경제와 과학기술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현대화되고 활력있는 경제와 과학기술로 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영활하게 하여야 한다.

채취, 기계, 화학, 전자공업과 임업부문에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콩농사와 과수업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사이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한다.

온 나라에 일떠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 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국사이다.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애국적 열의를 발휘하여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 안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에 따라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과학자, 기술자 후비양성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 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패있게 내밀어야 한다.

새 세기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일체화되어 발전하는 시대이다.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며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해나가야 한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은 나라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강성대국 건설의 3대 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우리 당의 영도업적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과 민족,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깊이 학습하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40성상에 걸치는 당 영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더없이 고귀한 재부이다.

세계 정치무대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같이 장구한 기간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면서 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업적을 쌓아올린 정치지도자는 없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돌이 되는 올해에 우리는 당의 영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꾼들은 혁명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1970년대의 사업기풍, 투쟁기풍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꾼들처럼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일꾼이 장엄한 혁명적 공세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며 장군님 따라 고난과 사선을 헤치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일해나감으로써 3대 전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려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대오이며 혁명의 수뇌부를 받들어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세대이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굳건히 고수하며 수령 옹위의 결사대, 당정책 관철의 힘있는 돌격대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의 3대 전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 전선에서의 총공세를 선군정치방식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모든 전선에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내세우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군정배합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 행정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며 일꾼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 구령의 요구대로 총공세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방식에 구현되어 있는 사생결단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투쟁해 나갈 때 올해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해였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떨치는 의의있는 사변들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가 열리고 동서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게 된 것은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일이다.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 속에서도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그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을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고 반미자주, 민족공조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이 확증한 천리이다.

올해에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온 자랑스러운 단일민족이며 지혜와 재능, 슬기에 있어서 남다른 우수성을 가진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려는 높은 각오,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융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닐 때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풀어 나갈 수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올해 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 겨레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단합과 통일의 이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한강도 위에서 한 핏줄을 이으며 찬란한 민족사를 개척해온 민족답게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에서 통일위업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오늘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하여야 전쟁위험도 모면하고 경제적 안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통일도 북남관계 개선도 달가와 하지 않으며,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든 핵참화를 입든 가리지 않는다.

북과 남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사대매국 세력의 반평화,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저촉되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책동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여야 하며 반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전체 조선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조국통일 대강이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사람이라면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몸바쳐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번영이 있으며 평화와 통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선군정치를 한결같이 지지 옹호하여야 한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평화가 엄중히 침해당하는 비극적 사태가 빚어졌다.

현실은 미국의 힘의 논리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부시 행정부의 극심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하다.

그러나 우리는 존엄있는 우리 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 부인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선택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다음해 주체94(2005)년은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영도 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창조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길에서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적인 투쟁이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강성대국 건설의 자랑스런 성과로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기세 드높이 마중해 나가야 한다.

그 어떤 힘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毅한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꺾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무적의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과감하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가는 앞길에 시련의 천만고비가 막아선다 해도 최후승리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영도 따라 자기 운명을 제 손에 틀어쥐고 자주의 길로 용감무쌍하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지금까지 새해 주체93(2004)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당의 영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 ]

##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05.1.1)’

지금부터 새해 주체94(2005)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 특기할 경사의 해,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과 부강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크나큰 낙관을 안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 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주체93(2004)년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해였다.

지난해에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의 한길로 드팀없이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분출되었다.

지난해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며 혁명의 수뇌부의 향도 따라 붉은기를 지켜 억세게 싸워온 나날들을 땀땀이 총화한 역사의 해로 기록되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기치높이 노동당시대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던 1970년대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드높은 정치적 열의가 온 나라에 차 넘쳤다.

우리 당 선군정치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된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자랑스런 성과가 이룩되었다.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적 양양이 일어났다.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시련 속에서 간고분투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어온 모든 것이 도처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희한한 현실은 우리 인민에게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흘러들어 어디에 가나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약동하고 우리의 투쟁과 생활은 더욱더 희열과 낭만에 넘치게 되었다.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전통이 굳건히 고수되고 생활환경이 사회주의 맛이 나게 더욱 훌륭히 변모되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었다.



현실은 선군의 기치 밑에 나라의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와 백승의 정치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영도로 사회주의수호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었다.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거창한 변혁의 설계도와 기적창조의 명안을 밝혀주시고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는 온 나라에 혁명적공세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인민군대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시대적 본보기와 경험들이 창조되고 도처에서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선군을 애국의 보검으로 들어쥔 위대한 정치가만이 펼칠 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걸음걸음 승리와 전변으로 수놓아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선군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번영과 행복이 온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

주체94(2005)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창건 후 지난 60년 동안 간고한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에 이어 우리 당을 창건하신 것은 조국과 혁명, 민족의 앞길에 빛나는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6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의 역사는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온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가장 간고한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고 반제투쟁의 영웅사시기를 수놓아온 위대한 역사이다.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세기를 이어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해온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준엄한 역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 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고 창건 60돌을 맞는 혁명적 당은 없다.

트.디의 깊고도 역센 뿌리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혁명적 당 창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반세기이상에 걸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어 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40여성상의 혁명영도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광 떨치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우리 당의 60년 역사에서 지난 10년간은 최악의 역경을 뚫고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이룩한 불멸의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

선군의 기치 밑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이 있어 우리 당의 60년 역사가 더욱 영광스럽고 우리 조국과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한 것이다.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당의 선군영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간고한 시련 속에서 광명한 내일을 굳게 믿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다져놓은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 위력을 총 발동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 나가는 장엄한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우리 당과 조국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앞에 나서는 총적인 투쟁과업이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구호를 들고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 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일심단결은 조선혁명의 밑뿌리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필승의 보검이다.

우리 당의 60년 역사의 최대의 자랑은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한데 있다.

일심단결의 근본 핵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위대한 사상과 전략전술로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천만군민이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고 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혁명 전사들의 심장마다에는 가는 길 험난하고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려는 절대불변의 각오,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혁명적 인생관이 뜨겁게 맥박 쳐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에는 오직 주체의 선군사상만이 차 넘쳐야 하며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원히 생사를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들의 단결로 되어야 한다.

간고하고 준엄한 년대기 마다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온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가 제일이고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가장 정당하다는 드팀없는 확신,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라는 혁명철학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역세계 싸워나가야 한다.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구현하여 위대한 영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더욱 활짝 꽃피우며 당의 사회 계급적 기반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당 선군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영장이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무장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군 건설업적과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영도를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켜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반제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역사적 공적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다박솔초소로부터 시작하여 간고한 10년 동안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마련하신 모든 업적과 전통, 재부들을 주체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민족의 제일가는 국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다.

전군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훈7연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최고사령관의 제일결사대, 제일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인민군대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 풍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모든 장병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피와 살도 함께 나누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21세기의 리수복, 김광철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차게 벌려 투철한 사상과 우월한 전법으로 적을 타승 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야 한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화, 사회주의 애국주의화를 더욱 다그쳐 혁명군대의 고상한 풍모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이다.

빈터 우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며 누구나 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군인품성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그 어떤 침략자도 무적필승의 혁명군대가 지켜 서있고 결사의 조국보위정신을 지닌 인민이 있으며 전민 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확고히 실현된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기름진 땅을 한 치도 건드릴 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올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영도 밑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희망찬 내일을 내다보며 간고 분투하여온 보람을 크나큰 환희와 격동 속에 체험하게 될 사변적인 해이다.

선군의 기치 밑에 마련된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1950년대 천리마대고조 시기처럼 전례 없는 생산적 양양을 이룩함으로써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경축하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대고조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 부강조국건설에서 다시 한번 비약을 이룩하려는 전체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애국적열의의 분출이며 혁명적군인정신과 21세기 경제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구현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총진군방식이다.

우리에게는 당의 정확한 경제건설노선과 정책이 있고 고난의 행군의 역경도 웃으며 돌파해온 영웅적인 전통과 기질이 있으며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달려 나갈 수 있는 창조와 건설의 본보기들이 있다.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모든 잠재력을 총 발동할 때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다.

현 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한다.

농업지도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자면 당 조직들이 농업부문 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농촌정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 와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한다.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려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성강의 모범을 따라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으로써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진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한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의 문화건설방침을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혁명적군인문화가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한다.

노래도 있고 정서도 있고 누구보다 생활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민군군인들처럼 품만한 정서와 혁명적 열정에 넘쳐 낙천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고 살림살이를 간지고 이악하게 해나가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온 사회가 본받아야 한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하고 인민들에게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혁명의 장래를 위하여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실력있는 혁명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보건일군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있다.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당 창건 60돌이 되는 올해에 당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 조직들은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의도를 절대화하고 결사적으로 받들어나가며 혁명적군인정신과 인민군대식정치사업으로 당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대중을 발동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 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림으로써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선전일군들은 사람들의 심장과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상적인 선전일군이 되어야 한다.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하여 온 나라가 선군혁명총진군분위기로 끓게 하며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며 당, 행정배합을 잘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선군혁명대고조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의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승리의 열쇠는 일군들이 쥐고 있다.

당 정책에 민감하고 높은 실력을 가지고 일하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일군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일군이다.

일군들은 당 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창조적으로 결패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새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탐구하고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담보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역량이다.

올해 선군혁명대고조의 앞장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기수도 청년들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잘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워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언제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긍지높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올해의 총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위훈을 부르는 초소마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선군시대청년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올해의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의 애국적 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한다.

조국과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온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애국적 전통이다.

우리는 전후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며 사회주의강국에 단숨에 치달아 오르던 그 투지와 분배, 준엄한 시련 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갔던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삶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의 아들딸답게 누구나 다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들어서야 한다.

올해에 조국광복 60돌을 맞게 되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적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어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어 가고 있다.

민족분열 55년 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사적 업적이다.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5년간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전민족적인 이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린 지난 5년간의 극적인 사변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 새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구호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나라의 절반 땅이 40여년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60년간의 미군강점으로 100년나마 외세의 지배 하에서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온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 약화시키며 매장해버려야 한다.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하여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당할 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강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통일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통일애국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조선민족의 뉘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통일애국의 흐름에 뛰어들어 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연대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날로 노골화되는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강권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적 이념을 일관하게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세기의 폭풍우를 뚫고 백전백승을 펼쳐온 위대한 혁명적당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자주적인민의 값 높은 삶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이다.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용기는 천백배로 끓어오르고 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년사 분석  
<1995년 ~ 2005년>

2005. 11. 28.

金 英 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차 례

## I. 분석 대상

- 북한체제의 '신년사'
- 신년사의 발표 형식
- 신년사의 성격
- 신년사의 파급 효과
- 신년사의 집필진
- 김일성 사후 신년공동사설

## II. 분석 내용

### 1. '신년사' 제목 : 분석과 2006년 제목 전망

- 제목 분석
- 2006년 제목 전망

### 2. '신년사' 내용 분석

- 연도별 주요 내용
- 신년사 주요 내용 정리
- 연도별 주요 사건 일지

### 3. '신년사'의 어휘(명사) 빈도 분석

### 4. 어휘(명사) 사례 분석 :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

## 5. 분야별 내용분석

- 가. 사상 분야
- 나. 군사 분야
- 다. 경제 분야
- 라. 당, 사회 분야
- 마. 대남, 대외 분야

## Ⅲ. 2006년 신년사 전망

- 1. 형식과 분량
- 2. 예상 제목
- 3. 전반적인 특징
- 4.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구성과 내용
- 5. 예상되는 key words

# I. 분석 대상

## □ 북한체제의 '신년사'

- '당과 국가의 수반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행하는 공식적인 연설'이 북한의 신년사
- 신년사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최고 권력자의 지시라는 특성으로 목표를 관철해야 하는 성격이 강함
  - 신년사에 언급되는 1년 동안의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를 토대로 각급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사업계획을 수립

## □ 신년사의 발표 형식

-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향'이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1946년 발표한 이래, 신년사·축하문·연설·사설·공동사설의 형식으로 매년 발표
  - 김일성의 경우, 1956년 8월중파사건의 여파로 1957년 신년사만 발표하지 않았을 뿐, 신년사 형태가 아니라도 6.25전쟁 시기의 축하문, 신년 축하연에서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시정연설의 형태로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
-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는 형식 대신, 당보(로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로동청년/청년전위) 공동사설로 새해의 목표와 지침을 발표
  - 1997년 발생한 청년동맹 비리사건으로 1998년에는 김일

성 사후 3대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던 신년사가 2대 신문 공동사설로 바뀜

## □ 신년사의 성격

- 신년사에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음
  - 지난 해 과업의 평가와 새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공식문건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전반적인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문건
- 신년사의 내용은 새해 인사말로 시작하여, 지난 해의 정세를 정리한 후 사업 분야별 실적 평가, 그리고 당해연도의 정세 전망과 사업 방향 및 구체적인 과업 제시 등으로 구성
  - 경제 분야가 평균 40-60%로 비중을 많이 차지
-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과는 달리 전체 인민에게 전달하는 통치의 방향과 지침이라는 점에서, 전달력과 설득력이 높아 북한의 어느 공식문건보다 북한 당국의 의도와 정세 평가가 잘 나타남

## □ 신년사의 파급 효과

-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
  - 신년사가 발표되는 1월 1일 아침, 전주민이 의무적으로 라디오와 TV 앞에서 중계방송을 청취해야 하고, 각 시도 및 공장·기업소 단체별로 신년사 관철 결의모임을 열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년사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큼



-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은 신년사 청취 소감문을 제출해야 하고, 신년사 내용을 해설하는 정치학습에 참가하여 여러 번 복습한 후 암기할 정도로 익혀야 함
- 신년사 학습은 행정 및 직장단위로 진행되며,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습자료가 직장과 동·인민반까지 전달
- 1월 내내 진행되는 신년사 학습은 각 직장마다 전담 '학습강사'가 파견, 전문을 통달하고 내용을 통의하는 학습총회로 이어짐

○ 체제 결속의 계기로 활용

- 암송·발표 경연대회와 함께 인민무력부 공동사설 관철군인궐기모임과 공동사설 과업관철 각 시·도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체제 결속의 계기로 활용

□ 신년사의 집필진

- 신년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평가와 새해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완성
- 현재는 『로동신문』 정론 집필진이 작성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들을 가리켜 '최고사령부의 작전지휘부 성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 신년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음

□ 김일성 사후 신년공동사설

-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의 신년사는 3대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

- 만 10년간 발표된 공동사설이 다름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령적 지침'이란 점에서 여기에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가 지향해 온 목표와 성과가 잘 나타나 있음
-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정책이나 통계를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성과를 담고 있는 신년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의도와 목표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임
- 이런 문제의식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발표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년사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의도와 방향을 해석하고, 2006년 신년사를 예측하고자 함

## II. 분석 내용

### 1. '신년사' 제목 : 분석과 2006년 제목 전망

#### □ 제목 분석

- 신년사의 제목은 당해연도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를 압축한 것으로, 북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김일성 사후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가 발표됨에 따라, 신년 메시지가 예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임
- '다그쳐 나가자', '건설해 나가자', '다그치자', '빛내이자', '열어 나가자', '높이 떨치자' 등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청유 또는 동원형 제목이 「김정일 시대」로 접어든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년사 제목이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o 구체적인 제목은 다음과 같음

<신년사 제목>

연도	신년사 제목
1995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996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7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199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1999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4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5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11개의 제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하자'형의 긍정적 청유를 제목으로 삼음

-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후반 '다그쳐 나가자'와 같은 절실하고 절박한 어감을 벗어나 2000년대 들어서 면서는 '빛내이자'와 높이 떨치자'와 같은 자신감에 찬 표현으로 전환

2) '당'에 대한 비중이 제일 많이 강조

- '당의 령도', '당창건', '전당' 등의 표현(6회)을 많이 사용

3) '진군', '건설', '승리', '진격로', '비약', '위력', '공세' 등과 같은 자신감에 찬 목표지향적인 단어가 많이 쓰임

4) '부강',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

5) 2002년부터는 '강성대국'과 '선군'을 번갈아 제목의 핵심 단어로 활용

6) 김일성의 1993년 신년사에서 "전당·전민·전군"이라고 한 표현이 2005년 신년사에서는 "전당·전군·전민"의 표현으로 굳어짐

## □ 2006년 제목 전망

- 신년공동사설 제목에는 북한 당국의 통치 철학과 정세 인식이 반영되고, 대내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다음 해의 신년공동사설 제목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기존 제목의 특성에 기초해 제목을 전망해 보고자 함

○ 구체적인 제목은 다음과 같음

<신년사 제목>

연 도	신 년 사 제 목
1995	위대한 당의 경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996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997	위대한 당의 경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1998	위대한 당의 경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1999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0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4	당의 경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5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11개의 제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하자'형의 긍정적 청유를 제목으로 삼음

-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후반 '다그쳐 나가자'와 같은 절실하고 절박한 어감을 벗어나 2000년대 들어서 면서는 '빛내이자'와 높이 떨치자'와 같은 자신감에 찬 표현으로 전환

2) '당'에 대한 비중이 제일 많이 강조

- '당의 령도', '당창건', '전당' 등의 표현(6회)을 많이 사용

3) '진군', '건설', '승리', '진격로', '비약', '위력', '공세' 등과 같은 자신감에 찬 목표지향적인 단어가 많이 쓰임

4) '부강',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

5) 2002년부터는 '강성대국'과 '선군'을 번갈아 제목의 핵심 단어로 활용

6) 김일성의 1993년 신년사에서 "전당·전민·선군"이라고 한 표현이 2005년 신년사에서는 "전당·선군·전민"의 표현으로 굳어짐

## □ 2006년 제목 전망

- 신년공동사설 제목에는 북한 당국의 통치 철학과 정세 인식이 반영되고, 대내외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다음 해의 신년공동사설 제목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기존 제목의 특성에 기초해 제목을 전망해 보고자 함

- 2006년의 신년공동사설 제목도 '빛내이자', '높이 떨치자', '나가자'와 같은 자신감에 찬 긍정적 '칭유'형 또는 '하자'형 제목으로 발표될 가능성 높음
- 당 창건 60돌, 광복 60돌, 6.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2005년과는 달리, 2006년에는 당과 군, 그리고 청년전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제목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당', '강성대국', '선군'의 표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음
- 예측 가능한 제목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 1) 당의 선군사상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해 나가자
  - 2) 선군혁명총진군으로 세기적인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 나가자
  - 3)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4) 선군시대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 5)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 6)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7) 선군혁명총진군 기치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자

## 2. '신년사' 내용 분석

### □ 연도별 주요 내용

<1995년>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 1995년도 신년사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처음 맞이한 새해에 발표
- 3개 신문의 공동사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발표
- 특징은 김일성의 '유훈관철' 강조
  - 김일성 사망에 따른 충격과 심리적 공백을 극복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유훈을 관철하자는 것으로 요약
  -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 영도 확고히 보장
-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경제전략 관철
- 당의 기본 군사노선 철저관철 및 혁명 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 백방으로 강화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10대강령,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
-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및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1996년>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 '고난의 행군' 이라는 비장한 용어가 등장
  - 1995년이 가장 어려운 때였음을 솔직히 밝히고 '고난의 행군' 정신을 견지할 것을 호소
  - 올해를 사회주의 건설의 기상을 떨치는 역사적인 해, 행운의 해로 빛나게 장식
  -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진지인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 [경제적 진지], [군사적 진지] 구축
  - 조국통일 3대원칙과 10대강령, 연방제 등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 또한 한국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 미국과 직접 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과 직접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힘
  -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촉구
  - 국가보안법 철폐, 콘크리트장벽 해체를 위한 전민족적 공동투쟁 촉구
- <1997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 1995, 1996년 공동사설과는 달리 김정일을 영도자로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경제 분야에 역점을 두고,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점과업으로 강조

- [농업·경공업·무역 3대 제일주의] 지속
- '먹는 문제' 우선 해결
- 정치면에서는 1996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일성의 유훈을 강조
  - 김정일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붉은기사상의 일색화' 및 김정일 중심의 단결을 호소
  - 김일성 유훈관철과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것이 기본과업
  - 붉은기사상 일색화로 김정일 중심 단결
-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확립
- 현 남한정권은 통일의지 및 남북관계 해결 의사 전무
-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
- 미국은 '대조선 압살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은 대북 '적대 시정책'을 포기할 것

**<1998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 김일성 사후 3대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던 신년사가 2대 신문 공동사설로 바뀜
  -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1997년 발생한 청년동맹 비리사건과 관련이 있음

- 지난해를 [고난의 행군]을 통해 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승리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공화국 창건 50돌]을 맞아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할 보람찬 투쟁과 새로운 비약의 해로 전진하는 가운데 먹는 문제의 완전 해결을 촉구
- 남한 정부에게 남북대결정책에서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안전기획부 해체 등의 실천적 조치를 요구
  - 남측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 "남조선에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나 바뀌어서는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남한측의 정책전환(연북화해정책,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을 주장
- 4자회담 및 대미·일 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의식하여 예년과 달리 미국, 일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

<1999년>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 1998년은 [우리식 정치체제]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 강행군 승리의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고 평가
  - 올해에는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는 구호아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것"을 강조

- 1998년이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 강행군의 해였다면서, 1999년은 강성대국 건설에로 전진하는 총진격의 해라고 강조
  - 특히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업에 경제적 힘이 안받침될 때 북한은 명실공히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을 지적
-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워 농업생산·전력·석탄·금속·수송·자원개발·경공업·과학기술 분야의 분발을 촉구
- 대남면에서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북남관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대단결], [남한의 자주화] 등을 요구하고, 연공연복통일, 국가보안법철폐, 통일부, 안기부 해체 등 주장
- 대외관계에서는 진행중인 [미-북협상]을 의식, 대미강경 비난을 재개
  - 1998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대미비난 전무

**<2000년>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올해가 당창건 55주년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모든 분야에서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 대내면에서는 2000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비약의 해", "총진격의 해"로 설정

-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부각
- 특히 '경제대국' 건설에 강한 비중을 둠
- 대남·통일면에서는 대북포용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 남북대화,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선결조건」 언급 등이 이례적으로 없음
- 대외적으로는 대미·일 비난을 자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표출
-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은 없으나, 사상·총대(군사)·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으로 제시하면서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힘
- 당 창건 55돌이 되는 2000년을 조국통일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설정
- 대남강경기조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나, 대북포용정책이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 남북대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없는 것이 변화된 모습

**<2001년>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 「고난의 행군 결속」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을 강조
-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현실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면서, 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을 강화하는 분위기

- 2000년을 "우리 민족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로 규정
  -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언급하며 '조국 통일 위업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뜻깊은 해로 평가
  - 경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노후 시설 개체 등 실리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시대변화 적응을 강조
  -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도 금년도 정책 방향은 원칙적 입장만 표명
    - 「대외부문」을 종전과 달리 「정치부문」에 이어 우선적으로 언급한 점이 특징
  - 과거 공동사설이 정치부문에 이어 경제문제-남북관계-대외관계 순으로 언급했던 것과 달리, 2001년 공동사설은 정치부문에 이어 곧바로 대외관계-경제문제-남북관계 순으로 언급
    -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대외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
  - 금년도 북한은 김정일위원장 중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문제에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대남 및 대외관계는 남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등을 관망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가는 입장 견지
- <2002년>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 2002년 공동사설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정세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체제결속 주력」 방침을 강조
  - 「4대 제일주의」를 새롭게 제시하여 김정일 중심의 내적 단결을 강조
  - 2002년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라고 규정하고, '4대 제일주의(우리 수령 · 우리 사상 · 우리 군대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제시하며, 이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
  -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함"을 강조
- 금년도 당면과제인 「김일성 90회생일 및 군창건 70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
  - 경제면에서는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인민생활」 관련 문제들을 1차적 과업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
  - 「변화된 환경」에 맞고 「가장 큰 실리」 획득을 위해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완성과, 정보산업 육성 및 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역점
  - 또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을 국가차원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면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전력을 쏟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시급을 요하는 분야부터 공업 기술개선과 현대화사업에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

- 남북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관계 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리확득 차원의 선별적 대응 자세 보임
  - 대남비난·요구사항 등의 강도에 미루어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정세변화를 관망
  - 한편, 한반도 평화 보장 및 전쟁의 위험 제거를 내세워 민간 대상 통일운동 강화
- 특히 대남분야와 관련해서는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주적론 포기, 국가보안법 폐지, 외세와의 공조 포기, 공동선언 말살 시도 배격 등을 촉구
- 대외면에서는 미·일에 대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당분간 정세 추이를 관망

**<2003년>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 북한은 2003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함으로써 대내외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나타냄
  - 2003년을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로 총진군 해로 규정
  - 당과 군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



- 선군사상의 전면적 구현을 통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정세 악화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은 지속적인 내부변화를 추구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를 마련
- 한편, 핵 문제로 조성된 현 위기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의 제시 없이 모든 역량을 체제결속에 집중
- 선군정치 기치 하에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당·군·민의 일심단결을 촉구
  - 특히 군 중심의 결속과 관련하여 경제면에서도 전례 없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중시
  - 제국주의·사상문화적 침투 경계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를 강조
- 김정일 중심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남한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당면한 위기상황의 타개를 시도할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
- 정권수립 55주년과 '전승절' 50주년 등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체제결속의 계기로 활용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지속하면서도, 한·미 이간을 위해 민족공조에 대한 선전선동 강화
  - 대미비난과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미대화재개를 모색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 견지

-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끼리>이념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다면 '민족공조'를 통한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강조

<2004년>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올해 기본목표를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등 「3대전선」으로 설정, 이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

-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40돌',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강조, 주민들의 분발과 결속에 주력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 있는 투쟁이다.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기세 드높이 마중해 나가야 한다."

- 또한 핵문제 대두 이후 정치·사회적 내부결속 이완 방지를 위해 특히 당 사상교양 사업에 역점을 둠

- 대외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

- 이와 함께 대미비난을 자제

-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 건설을 위해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대외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

○ 대남면에서는 「우리민족 제일주의」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비중을 둠

-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외세결탁금지'(2002년), '주한미군 철수'(2003년)와 같은 언급이 없는 점이 특징

-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민족공조 강화, '민족 대 미국' 대결구도 실천, 미국의 압력·간섭 배제, 반미·자주화 투쟁 강화, 선군정치 지지 등을 주장

<2005년>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선군혁명총진군'을 구호로 제시

- 금년도의 총체적 투쟁과업으로 "전당·전군·전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자랑스런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을 제시

- '선군혁명총진군'을 올해 구호로 제시,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

- 올해 당창건·광복 60돌이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 체제 수호 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

- 작년에 이어 정치사상교양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부체제이완에 대한 우려

- 참고로 예년의 강조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01년 : 자주·단결·애국애족 정치

- ▶ 2002년 : 수령 · 사상 · 군대 · 제도 4대 제일주의
- ▶ 2003년 : 선군사상 구현
- ▶ 2004년 : 정치사상 · 반제군사 · 경제과학 3대전선

○ 경제 분야에서 '먹는 문제' 해결과 농업강조

-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 강조하면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대남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을 촉구

-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과 같은 원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있는 데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

○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공조를 제시하고 대남 비난을 자제
- 남북 · 해외동포들의 연대 · 연합에 주력하는 한편, 당창건 · 광복 6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민간급 교류 · 행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의할 자세 견지

□ 신년사 주요 내용 정리

<신년사 주요 내용>

연 도	주 요 내 용
1995	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강화, 대미 평화보장체계수립
1996	정치사상·경제·군사진지 구축, 국가보안법 철폐
1997	김정일 중심 단결, 한반도통일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
1998	농업생산 증산, 남한당국에 대북화해정책 촉구
1999	유훈통치 종결 및 김정일 사상노선 구현, 민족대단결
2000	사상·총대·과학기술중시의 3대 기둥, 민족대단결 5대 방침
2001	자주권 존중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 6·15 공동선언 이행
2002	4대 제일주의 구현,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 존중
2003	선군사상 구현,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
2004	민족공조와 반미·반제투쟁, 대화 통한 핵문제 해결
2005	인민경제 최우선과제는 농업증산, 조국통일 3대 공조

□ 연도별 주요 사건 일지

- 어떤 대내외 정세 속에서 신년사 발표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전후한 국내외 정세를 간추려 정리함

- 주요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음

<주요 사건 일지>

연 도	주 요 사 건 일 지
1994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6.13),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평양방문(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6.28), 김일성 사망(7.8),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채택(10.21)
1995	해방 50돌, 당창건 50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3.9), 북-미 준고위급회담 타결(6.13), 노동당 창당 50주년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10.10)
1996	E·C 결성 70돌, 북-미간 잠정협정 체결 제의(2.22), 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제의(4.16), 제1차 북-미 미사일회담(4.20),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 무장공비 침투(9.18)
1997	김일성 3년 탈상, 황장엽 망명(2.12), 주체연호, 태양절 제정(7.8), 8.4노작 발표(8.4),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10.8),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개막(12.9)
1998	공화국 창건 50돌, 김대중 정권 출범(2.25),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 침투(6.22),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7.26), 노동신문, '강성대국'제하의 정론 게재(8.22), 광명성1호 발사(8.31), 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9.5), 정권수립 50주년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9.9), 김정일-정주영 금강산관광사업 합의(10.29), 남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9	서해교전 발생(6.15), 북-미고위급 제5차 회담, 북한 미사일시험 발사 유보 결정, 미국 대북한경제제재 완화조치(9.7), 페리보고

	<p>서 제출(9.15), 내각에 전자공업성 신설(11.24), 민족통일음악회, 통일농구경기 등 개최(12.20~22)</p>
2000	<p>해방 55돌, 당창건 55돌,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3.9),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6.13~15), 미국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6.19), 1차 남북장관급회담(7.29),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9.2),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일행 방한(9.11), 제1차 남북공방장관회담,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9.24), 북-미 공동코뮤니케 발표(10.12), 매를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방북(10.23)</p>
2001	<p>'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개최(1.10), 부시 정권 출범(1.20),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8.4), '라남의 봉화' 제시(11.22)</p>
2002	<p>건군 70돌, 김일성 탄생 90돌,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지정 제의(1.22), 부시 대통령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1.29),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9.12), 북-일 정상회담 개최, 조일 평양선언 발표(9.17),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10.25), 개성공업지구 지정(11.13), 제네바합의 이후 동결했던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 즉시 재개 선언(12.12),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 개시 천명(12.22)</p>
2003	<p>공화국 창건 55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유보-철회 정부성명 발표(1.10), 노무현 정권 출범(2.25), 인민군 '오중흠 7연대'칭호 쟁취운동 열성자대회 개최(3.2), 제1차 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 개최(3.11),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 채택(4.16)</p>

2004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선포(74,2,19) 30돌, 제2차 6자회담(2.25), 북-일 정상회담(5.22), 제3차 6자회담(6.23)
2005	해방 60돌, 당창건 60돌, 6.15 선언 5돌, 부시 2기 정권 출범(1.20), 핵무기 제조, 보유 공식 선언(2.4),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발족(6.22), 제4차 6자회담 개막(7.26),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 공동성명 채택(9.13~19),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11.9)

### 3. '신년사'의 어휘(명사) 빈도 분석

- 신년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어휘(명사)를 분석하면 북한 당국이 어떤 단어와 표현을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어휘 빈도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신년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강조점의 변화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년사 어휘(명사) 빈도 분석을 시도
- 빈도수와 내용의 중요도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를 통해 신년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어휘의 일정 기간 사용 빈도 추세를 통해 당해연도 내용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장점
- 빈도수와 어휘 분포를 통해 차기 연도의 신년사 내용을 예측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어간에 따라 동일 낱말은 하나로 통계 처리함



## <신년사 어휘(명사) 빈도 분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글자총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1	우리 121	우리 119	우리 123	우리 93	우리 75	우리 77	우리 96	우리 110	우리 83	군 117	군 126
2	인민 84	혁명 92	사회주의 70	인민 60	인민 47	인민 46	혁명 64	혁명 58	군 75	우리 77	혁명 94
3	당 63	인민 90	인민 61	사회주의 58	군 45	혁명 43	사회주의 49	군 56	혁명 52	혁명 58	당 79
4	혁명 61	당 71	혁명 59	군 54	사회주의 38	군 42	군 48	인민 52	인민 44	민족 48	우리 70
5	군 46	군 55	군 50	혁명 44	당 28	당 41	당 40	민족 34	민족 31	인민 48	인민 45
6	통일 46	사회주의 46	당 49	당 41	김정일 28	사회주의 36	인민 32	사회주의 31	사회주의 29	선군 43	선군 45
7	수령 44	수령 43	령도 34	김정일 28	혁명 27	민족 26	민족 31	김정일 30	선군 27	사상 41	민족 32
8	민족 38	통일 29	김정일 30	령도 22	사상 25	김정일 26	김정일 25	사상 27	당 26	당 39	사상 23
9	사회주의 29	사상 28	통일 29	주체 21	강성대국 19	통일 26	통일 22	수령 26	사상 25	주체 21	수령 21
10	자주 21	민족 26	사상 23	통일 19	민족 17	령도 19	자주 21	당 21	통일 16	과학 20	사회주의 20
11	령도 20	김정일 24	민족 20	민족 18	령도 16	제국주의 19	사상 17	주체 19	주체 13	수령 19	경제 19
12	김정일 20	김일성 23	수령 18	경제 18	경제 16	과학 18	령도 15	통일 19	김정일 12	경제 19	통일 18
13	평화 20	평화 20	경제 17	자주 15	통일 16	강성대국 18	경제 14	령도 15	경제 11	통일 18	주체 16

14	주체 16	자주 18	자주 16	수령 14	자주 13	사상 16	선군 14	강성대국 12	자주 10	자주 17	농업 14
15	사상 15	경제 17	주체 13	사상 13	수령 13	주체 15	붉은기 13	경제 11	강성대국 10	기술 16	수뇌부 13
16	김일성 15	붉은기 13	평화 12	제국주의 7	주체 11	경제 15	수령 12	선군 10	문화 10	사회주의 15	자주 12
17	경제 11	령도 12	붉은기 12	김일성 7	제국주의 7	기술 15	강성대국 8	자주 9	제국주의 10	김정일 13	과학 9
18	장병 8	제국주의 12	장병 8	장병 6	계급 6	수령 13	기술 6	김일성 7	공동선언 7	강성대국 12	강성대국 9
19	핵 6	공산주의 11	김일성 8	유훈 5	기술 6	자주 11	공동선언 5	기술 7	수령 7	평화 12	김일성 7
20	자력갱생 5	장병 11	계급 7	결사옹위 5	과학 5	총대 8	현대 5	공동선언 7	김일성 5	수뇌부 10	김정일 7
21	제국주의 5	도덕의리 10	제국주의 6	기술 5	문화 4	계급 7	김일성 5	제국주의 7	평화 4	미국 9	기술 7
22	유훈 4	주체 9	기술 6	계급 4	김일성 4	김일성 4	제국주의 4	붉은기 5	기술 4	김일성 8	평화 6
23	농업 4	유훈 6	자력갱생 5	과학 4	농업 3	장병 4	평화 4	총대 4	미제 3	장병 4	교육 4
24	과학 2	미국 4	결사옹위 5	문화 4	평화 3	평화 3	총대 4	과학 4	미국 3	문화 4	공동선언 4
25	미국 2	결사옹위 3	동지애 2	평화 4	미제 3	붉은기 2	동지애 3	평화 4	현대 2	공동선언 4	현대 3
26	총대 1	계급 2	수뇌부 2	농업 4	선군 2	선군 2	결사옹위 3	장병 3	장병 2	총대 3	미제 3
27	기술 1	농업 2	문화 2	붉은기 3	수뇌부 2	결사옹위 2	장병 3	농업 3	결사옹위 2	현대 3	미국 3
28	계급 1	과학 2	미제 2	수뇌부 1	결사옹위 2	자력갱생 2	계급 2	정보 2	붉은기 2	제국주의 3	핵 3
29		기술 2	농업 1	총대 1	장병 2	문화 2	과학 2	미제 2	과학 2	핵 3	계급 3

30		문화 2	교육 1	교육 1	총대 2	동지애 1	수뇌부 1	교육 1	령도 1	계급 2	유혼 1
31		총대 1	미국 1	미제 1	붉은기 1	수뇌부 1	문화 1	수뇌부 1	계급 1	결사옹위 2	붉은기 1
32		자력갱생 1				교육 1		결사옹위 1	정보 1	교육 1	도덕의리 1
33		핵 1				미제 1		유혼 1	교육 1	미제 1	동지애 1
34								계급 1	핵 1	령도 1	장병 1
35										농업 1	총대 1
36											정보 1
37											제국주의 1

○ 어휘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음

- 평균 95회 / 최소 75회(1999년) / 최대 126회(2005년)

2) '군'(軍)이란 단어가 분석 기간 중에서 빈도수 평균 5위 내에 들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여기에 '선군'(先軍)까지 합하면, 2003년부터 연속 3년간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최근 신년사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음

3) '민족'이란 단어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2000년 신년사부터 평균 7위 내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음

- 1995년 : 8위(38회), 1996년 : 10위(26회),  
1997년 : 11위(20회), 1998년 : 11위(18회),  
1999년 : 10위(17회), 2000년 : 7위(26회),  
2001년 : 7위(31회), 2002년 : 5위(34회),  
2003년 : 5위(31회), 2004년 : 4위(48회),  
2005년 : 7위(32회)

- 반면, '계급'은 1995년 1회, 1996년 2회, 1997년 7회, 1998년 4회, 1999년 6회, 2000년 7회, 2001년 2회, 2002년 1회, 2003년 1회, 2004년 2회, 2005년 3회 등으로 '민족'의 빈도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우리', '군', '선군', '민족' 이외에, 빈도수 10위 이내의 단어들을 보면, '인민', '당', '혁명', '사상', '사회주의', '김정일' 등으로 나타남

- 이외에 '수령', '령도', '주체', '통일', '강성대국', '경제', '자주', '제국주의' 등의 용어가 그 뒤를 이어 많이 사용되고 있음

5) 최근 신년사의 추세를 보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신년사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 분포를 보면,

- '군'(117/126회) / '혁명'(58/94회) / '당'(39/79회) / '우리'(77/70회) / '인민'(48/45회) / '선군'(43/45회) / '민족'(48/32회) / '사상'(41/23회) / '수령'(19/21회) / '사회주의'(15/20회) / '경제'(19/19회) / '통일'(18/18회) /

'주체'(21/16회) / '농업'(1/14회) / '수뇌부'(10/13회) / '자주'(17/12회) / '과학'(20/9회) / '강성대국'(12/9회) / '김일성'(8/7회) / '김정일'(13/7회) / '기술'(16/7회) / '평화'(12/6회) / '공동선언'(4/4회) / '미제'(1/3회) / '미국'(9/3회) / '핵'(3/3회) / '제공'(2/3회) 등으로 나타남

- 2005년 신년사에서 '유훈', '붉은기', '도덕의리', '동지애', '장병', '총대', '정보', '제국주의' 등이 각기 1회 사용
- '농업'의 경우 사용 빈도수가 1회에서 14회로 증가한 것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2005년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음

6) 이상의 내용을 참고할 때, 2006년도 신년사의 내용도 위의 분포와 조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즉, '군', '선군', '우리', '혁명', '당', '인민', '민족', '사상', '수령', '주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경제', '통일'과 '강성대국'을 논하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사이사이 강조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 단지, 2006년 신년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새로운 용어와 표현이 첨가되고, 용어의 비중을 조절하는 선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4. 어휘(명사) 사례 분석 :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

- o 어휘 빈도 분석표에서 보다시피,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와 같은 '우리'의 반복적인 강조가 신년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남
- 북한 당국의 공식문건 및 담화에서도 '우리'란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북한 사회에서 '우리'의 표현은 이미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통해 매우 익숙하게 내재화되어 있으며, '우리'라는 용어는 1979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서만 총 490회나 사용하고 있을 정도의 대표적인 상용 용어임

- 『김일성 저작집』 제1권의 첫 번째 글인 「조선혁명의 진로」(1930년 6월 30일)를 보면 '우리' 용어가 아래와 같이 김일성 저작집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음

“동무들! 오늘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상응하게 조선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 참고로 『김일성 저작집』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490회	379회	367회	290회	405회	321회	442회	392회	368회	373회
제11권	제12권	제13권	제14권	제15권	제16권	제17권	제18권	제19권	제20권
376회	595회	301회	304회	320회	280회	306회	318회	318회	329회
제21권	제22권	제23권	제24권	제25권	제26권	제27권	제28권	제29권	제30권
365회	259회	246회	225회	287회	324회	442회	304회	207회	272회

제31권	제32권	제33권	제34권	제35권	제36권	제37권	제38권	제39권	제40권
227회	249회	164회	186회	178회	276회	131회	138회	221회	312회
제41권	제42권	제43권	제44권	제45권	제46권	제47권			
163회	128회	160회	164회	166회	23회	18회			

○ 북한 공식 문건 및 간행물에 나타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첫째, 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같이 가리키는 의미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나 직명 앞에 붙이는 경우 / 예: 우리 아동단지도원, 우리 인민반장
- 둘째, 말하는 사람이 남이나 또는 맞서는 대상에 대하여 자기나 자기측을 가리키며 강조하는 경우 / 예: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 2002년 신년사의 「4대 제일주의」에 담긴 ‘우리 수령·사상·군대·제도’의 ‘우리’에는 위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음

- ‘우리’의 것이 제일 낫다는 배타성과 자존심이 담겨있는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함께 배여 있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음
- 2001년 하반기부터 ‘라남의 봉화’ 등 경제관련 사기진작을 위한 구호와 사업이 전개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모범’,

‘모범 일군’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한 후, 최근 모범일꾼들에게 「우리」라는 칭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우리’의 정치사회화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우리’ 용어를 통해 의도하는 정치사회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가 가지는 본연의 의미인 “we-feeling”을 강조함으로써 정체성과 공속감(共屬感)을 창출하고 체제내적 단결도를 제고

- 둘째, ‘모범일군’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전인민의 모범일군화’를 지향하는 사회심리적 효과도출하여, 경제강성대국에 부응하는 사기를 조성

- 셋째, ‘우리제일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표현을 동원으로써 ‘공화국’의 우수성과 ‘령도자’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는 정치심리적 효과를 창출하고, 특히 대외적인 배타성을 통해 북한체제의 두드러진 특성인 ‘자주’ 개념을 확립

○ 한편, 북한 당국은 ‘우리’의 의미를 꾸준히 대남분야로 확장해 오고 있음

-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우리민족끼리’를 부쩍 강조하면서 ‘우리’의 개념을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매년 북한 당국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6.15)을 전후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5-8월) 동안 남한 민간단체의 북한 내부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



- 이는 '우리민족'에 담긴 정서를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심리전임
  - 즉, 북한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란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차원의 통일전선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2005년의 「아리랑」 관람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운 북한 당국의 전략적 태도는 2006년 신년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즉,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기본방향은 '자주통일의 궤도'에 따른 반외세를 강조하면서, '민족대토론' 차원의 접근을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쪽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반외세', '자주',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명분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한 내의 반미정서 및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이상이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 용어에 대한 의미 분석임

## 5. 분야별 내용분석

### 가. 사상 분야

#### 1) 사상 분야 총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기구분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유훈·붉은기				선군						
	주체사상										
전체 글자 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 2) 사상 분야의 강조점

### ① 빈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 주	21	18	16	15	13	11	21	9	10	17	12
민 족	38	26	20	18	17	26	31	34	31	48	32
계 급	1	2	7	4	6	7	2	1	1	2	3
사회주의	29	46	70	58	38	36	49	31	29	15	20
공산주의	2	11	0	0	0	0	0	0	0	0	0

### ② 특징

단 어	주 요 특 징
자 주	고난의 행군시기에 강조 / 미국 대선 시점에서 강조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30돌 시점에서 강조
민 족	수령사망 직후(태양민족 의미)와 6·15이후(남북 민족의미)에 많이 등장
계 급	전반부 특이 사항 없음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급감
사회주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특별히 강조 / <민족>강조 시점에 상대적으로 감소
공산주의	고난의 강행군 시기에 일시적으로 매우 강조

## 3) '사상' 관련 어휘

### ① 빈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주 체	16	9	13	21	11	15	10	19	13	21	16
사 상	15	28	23	13	25	16	17	27	25	41	23
주체사상	3	3	2	1	0	0	1	10	3	9	2
유 훈	4	6	2	5	0	0	0	1	0	0	1
붉은기	0	13	12	3	1	2	13	5	2	0	1

선군사상	0	0	0	0	0	0	0	0	5	6	6
선군정치	0	0	0	0	0	2	2	3	4	9	4
선 군	0	0	0	0	2	2	14	10	27	43	45
도덕의리	0	10	0	0	0	0	0	0	0	0	1
동지애	0	0	2	0	0	1	3	0	0	0	1
인민 순위(횟수)	1(84)	1(90)	1(61)	1(60)	1(47)	1(46)	3(32)	2(52)	2(44)	2(48)	3(45)
당 "	2(63)	2(71)	3(49)	3(41)	3(28)	3(41)	2(40)	3(21)	3(26)	3(39)	2(79)
군 "	3(46)	3(55)	2(50)	2(54)	2(45)	2(42)	1(48)	1(56)	1(75)	1(117)	1(126)
참고	예전엔 전당, 전민, 전군이었는데, 1995년 이후 전당, 전군, 전민의 순서로 정착										

## ② 특징

단 어	주 요 특 징
주 체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어려운 시기에 주로 등장
사 상	특이사항 없음 / 단지 다른 단어에 비해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
주체사상	'선군'이 등장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 / 2차 핵위기 시에 재부상
유 훈	3년상 기간이자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 자주 등장 2차 핵위기 시점에 <수령>과 함께 재등장
붉은기	처음 제기 된 이후 잠시 등장 대포동미사일 발사, 2차 핵위기,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거치면서 재등장
선군	99년 처음 제시이후 꾸준히 증가 / 2차 핵위기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 선군→선군정치→선군사상 으로 점차 위상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도덕의리	고난의 강행군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
동지애	특이 사항 없음

인 민	고난의 행군 시기에 특히 강조 / 01년에 감소 / '군' 강조되면서 감소
당	<선군> 등장 시기에 급격히 감소 / 2차 핵위기시 '군'이 강조되면서 감소
군	<선군>의 본격화와 2차 핵위기 시점을 통해 사용 빈도 현저히 증가

#### 4) '지도자' 관련

##### ① 빈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수령(김일성의미)	44명	43명	18명	14명	13명	13명	12명	26명	7명	19명	21명
령도자(김정일의미)	11명	12명	14명	12명	7명	7명	8명	10명	1명	1명	1명
지도자	4	0	0	0	0	0	0	0	0	1	0
령도	20	12	34	22	16	19	15	15	1	1	0
김일성	15	23	8	7	4	4	5	7	5	8	7
김정일	20	24	30	28	28	26	25	30	12	13	7
혁명	61	92	59	44	27	43	64	58	52	58	94
수뇌부	0	0	2	1	2	1	1	1	1	10	13
결사옹위	0	3	5	5	2	2	3	1	2	2	2
옹호보위	0	0	0	1	0	0	0	0	0	0	0
현지도	0	1	1	1	1	0	0	0	1	0	0

##### ② 특징

단어	주요 특징
수령	주석 사망 직후에는 많았으나 점점 감소 / 역시 2차 핵위기 시에 재부상

령도자	2003년부터 급감	
지도자	특이 사항 없음	
령도	<령도자>와 함께 급감 / 선군, 민족 등 빈도수 많은 단어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짐	
김일성	<수령>과 같은 추이를 보임	
김정일	김일성 감소시기에 증가하다가 <령도자>와 함께 빈도수에서는 감소 경향	
혁명	가장 어려운 시기, 자신감 있는 시기에 동시 등장	
수뇌부	'04-'05에 급속 증가 / <김정일> 감소와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김정일을 핵심으로하는 수뇌부 의미	
결사옹위, 옹호보위, 현지지도	특히사항 없음	

## 나. 군사 분야

### 1)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95	▶ 군사중시(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 ▶ 군민일치
1996	▶ 사회주의적 군사적 진지 ⇒ 전군 주체사상화 위업, 전인민적 방위체계 ▶ 인민군대는 김정일 결사옹위, 군민일치
1997	▶ 혁명의 기동 주체위업완성
1998	▶ 우리식사회주의 기동으로 인민군대 ▶ 군민일치, 관병일치
1999	▶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제일의 기동이며 수령옹위의 제일 결사대, 군이 체제 유지의 근간
2000	▶ 김정일 결사옹위를 촉구하며 군 중시 정책 지속(총대중시) ▶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

2001	▶ 선군정치정당성 강조(군부중시 통치방식지속) ▶ 군민일치
2002	▶ 선군혁명노선이 결실을 거둔 해로 평가 ▶ 우리군대 제일주의
2003	▶ 선군사상, 혁명적 군인정신, 군민일치, 반제자주사상강조 ▶ 인민군대 ⇒ 선군혁명의 주도적 역량, 공화국수호자, 국방과 원군은 최고의 애국 사업
2004	▶ 반제군사전선의 강화(수령결사옹위정신)
2005	▶ 선군혁명노선을 통해 군사적 위력을 강화할 것 강조 ⇒ 선군혁명총진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

## 1) 단어 분석

### ① 빈도 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글자 총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군	인민군	15	12	8	6	2	5	2	5	4	3	1
	군대	4	5	8	10	7	7	5	16	13	26	15
	인민군대	4	4	8	12	9	9	7	7	7	8	10
	소계	23	21	24	28	18	21	14	28	24	37	26
	군(총계)	46	55	50	54	45	42	48	56	75	117	126
선 군		0	0	0	0	2	2	14	10	27	43	45
전 군		0	5	5	7	3	4	2	1	2	2	5
군 사		7	8	6	4	7	1	1	0	4	10	7
장 병		8	11	8	6	2	4	3	3	2	4	1
총 대		1	1	0	1	2	8	4	4	0	3	1
군민일치		2	1	1	1	1	0	1	0	2	1	0
관병일치		0	0	0	1	0	0	1	0	1	1	0
오중휴련대		0	0	0	1	0	1	1	1	1	1	1

## ② 특징

단어	주요 특징
인민군 군대 인민군대	단어 수 증감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20회 이상을 항상 보이며 군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됨을 보여줌
군	'군(軍)'은 2003년부터 증가되어 선군정치와 핵무기 등의 요소로 체제 보장에 대한 군의 중요성을 언급함
총대	군, 군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역시 꾸준한 사용으로 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오중흡련대	98년 이후 계속 등장함으로써 군의 김정일, 수뇌부에 대한 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는데 이용

## 3) 시기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기구분	고난의 행군 (농업·경공업·무역중시)			강성대국 (경제건설, 과학기술, 국방공업중시)							
	유훈·붉은기				선군						
특이사항				헌법 개정		6·15남북 정상회담		7·1조치			농업 주공전선

## 다. 경제 분야

### 1) 경제 분야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95	▶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경제전략 ⇒ 혁명적 경제전략
1996	▶ 사회주의를 위해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를 다짐

	▶ 농업, 경공업, 무역 3대제일주의 지속
1997	▶ 농업, 경공업, 무역 3대제일주의 지속 ▶ 경제건설을 주공전선의 하나
1998	▶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고 평가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 ▶ 경제부문에 최대한 역량 집중
1999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촉구 ⇒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 제고 및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중점 ▶ 사회주의 경제강국 ⇒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2000	▶ 과학기술중시사상 ▶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자인 ⇒ 경제건설에 역량집중 : 농업부문에 대한 역량집중 강조(먹는 문제 해결)
2001	▶ 국가경제력 강조(경제강국건설) ▶ 경제문제에 실용적 접근 ⇒ 현존 경제 토대의 정비, 우리식 경제관리체계 개선촉구
2002	▶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강조 ▶ 우리제도 제일주의
2003	▶ 국방공업에 역량집중강조
2004	▶ 경제, 과학분야 강조
2005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 주민생활향상 ▶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

## 2) 단어분석

### ① 빈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글자 총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농업	4	2	1	4	3	2	3	3	2	1	14
농촌	4	2	1	0	0	0	0	2	1	1	4
경공업	4	3	2	1	1	1	1	0	1	2	2
무역	1	1	2	0	0	0	0	0	0	0	0
철도	1	2	2	5	1	1	2	1	1	3	3
금속	1	3	2	3	2	1	2	1	1	2	2
경제	11	17	17	18	16	15	14	11	11	19	19
과학	2	2	4	4	5	18	2	4	2	20	9
기술	1	2	6	5	6	15	6	7	4	16	7
소계(과학,기술)	3	4	10	9	11	33	8	11	6	36	16
생산	5	6	6	6	7	7	6	5	2	8	13
경영	0	0	1	1	0	0	0	0	0	0	1
현대	0	0	0	0	0	0	5	3	2	3	3
정보	0	0	0	0	0	0	0	2	1	0	1
소계(현대,정보)	0	0	1	1	0	0	5	5	3	3	4
자력갱생	5	1	5	0	0	2	0	0	0	0	0
감자	0	0	0	0	1	1	1	0	1	2	1
두벌	0	0	0	0	1	1	1	0	1	2	1

## ② 특징

단어	주요 특징
농업	식량부족난으로 계속 농업을 강조하고 있고, 2005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하면서 사용 증가
감자, 두벌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에 대한 대책으로 감자농사, 두벌식 농사 등 제시
과학, 기술	꾸준한 사용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사용 횟수가 증가(강성대국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사용이 증가)
현대, 정보	2001년 이후에 사용 / 현대화와 IT 분야 등에 대한 주력화로 빈도수 증가

## 3) 시기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기구분	고난의 행군 (농업·경공업·무역중시)			강성대국 (경제건설, 과학기술, 국방공업중시)							
	유훈·붉은기				선군						
특이사항				헌법 개정		6.15남북 정상회담		7.1조치			농업 주공전선

### 라. 당, 사회 분야

#### 1) 당, 사회 분야 단어 분석

##### ① 빈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글자 총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인민	인민(단독사용)	54	58	36	34	22	25	20	35	31	27	29
	인민경제	3	3	2	3	4	1	2	0	1	1	2
	인민(총계)	84	90	61	60	47	46	32	52	44	48	45
당	당(단독사용)	42	48	34	26	20	28	32	14	16	24	51
	당 창건	5	4	0	0	1	8	2	0	0	3	13
	당 조직	3	2	5	2	0	1	1	3	4	4	9
	당 원	6	10	4	6	1	3	4	4	5	3	1
	당 중앙위	3	3	2	1	1	0	0	0	0	1	0
전당	전당	1	1	1	1	1	0	0	0	0	1	2
	전민	0	0	1	0	1	0	0	0	0	0	1
	전당, 전군, 전민	2	3	3	5	4	1	1	0	1	2	3
	전당, 전국, 전군	1	0	0	0	0	0	0	0	0	1	0
당 (총계)		63	71	49	41	28	41	40	21	26	39	79
건설	경제 건설	2	1	4	5	2	4	2	4	3	2	7
	사회주의건설	4	2	10	7	3	6	3	4	1	0	3
	기타	7	13	8	8	14	8	5	6	4	3	7
강 성 대 국 (건설)		0	0	0	0	19	18	8	12	10	12	9
강 계 정 신		0	0	0	0	2	0	1	0	0	0	0
문 화		0	2	2	4	4	2	1	0	10	4	3
교 육		0	0	1	1	0	1	0	1	1	1	4
대 흥 단		0	0	0	0	1	0	2	0	0	0	0
대 중		7	3	5	1	2	1	2	0	2	2	2
일 본 새		0	0	1	0	2	0	2	1	0	1	1
고난의 행군		0	0	0	0	0	1	0	0	1	3	2

## ② 특이 사항

단 어	주 요 특 징
인 민	진군이나 비약(공동시설제목)을 구호로 할 때 동원수단으로 "인민"이 많이 사용 / "당과 인민"의 형태로 많이 쓰임
인민경제	특이사항 없음
당	당 창건 기념을 위해 3년을 기준으로 두드러지는 양상 보임
당창건	당 창건 기념으로 되는 해에 (당연히)많이 사용
당조직	특이사항 없음 / 조금씩 증가 되는 조직
당 원	"붉은기사상"을 강조할 때 강조되다가 그 뒤에는 특이사항 없음
당중앙위	유혼통치기간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로 강조되어 오다가, 유혼통치가 끝난 뒤에는 점차 감소
전 당	특이사항 없음
전 군	특이사항 없음
전당, 전군, 전민	유혼통치 기간 "김정일 중심의 단결"을 호소할 때 많이 사용 특이사항 없음.
경제건설	먹는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계속 강조
사회주의건설	"우리식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용어로 자주 사용
건설(기타)	특이사항 없음
강성대국(건설)	1999년부터 중요한 구호로 등장 / 김정일 시대의 "핵심과제"이며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계속 강조될 것으로 예상
강계정신	특이사항 없음
문 화	근년에 들어서서 강조되는 양상을 보임

교 육	근년에 들어서서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홍단	특이사항 없음
대 중	흔히 "인민"과 함께 쓰임
일본새	특이사항 없음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시대를 잊지 말기를 강조할 때 간혹 사용

## 마. 대남, 대외 분야

### 1) 대남, 대외분야 연도별 주요 사건 일지

연도	주요일지	대남 분야	대외 분야
94	김일성 사망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 '서울 불바다' 발언(3.19),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수락(6.18), 정상회담 결렬과 남한 조문파(7.9~)	외교부 성명-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4.28),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6.13),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평양 방문(6.15),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채택(10.21)
95	당 창건 50돌 해방 50돌	대북 쌀 지원 논의 남북 차관급 회담(6.17)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발족(3.9), 북한 노동당-일본 연립3여당 조기 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3.30), 북-미 준고위급회담 타결(6.13), 북한 미국 민항기 영공통과 허용(9.29)
96	E-C 결성 70돌	강원도 강릉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9.18), 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17)	제1차 북-미 미군유해협상(1.11), 제1차 북-미 미사일 회담(4.20), 유엔 군축회의 남북한 동시가입 승인(6.17)
97	김일성 3년 탈상	황장엽 망명(2.12), 대북식량 지원 남북 적십자회담(5.26), 남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	제2차 북-미 미사일회담(6.11), 미국 국적 민항기 최초로 북한 도착(9.9), 북송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 일본방문

		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회의(10.7)	(11.8),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 방북(11.11),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개막(12.9)
98	공화국 창건 50돌	정주영 첫 방북(1.31), 강릉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6.22), 김정일-정주영 금강산관광사업 합의(10.29)	4자회담 2차 본회담 개막(3.16), 일본 자민당대표단 방북(3.28), 광명성 1호 발사(8.31), 제3차 북-미 미사일회담(10.1)
99		서해교전(6.15), 제1차 남북 차관급 회담(6.22), 제2차 남북 차관급 회담(7.1), 남한 민주노총과 북한의 직업총동맹간 남북 노동자축구대회(8.12), 남북 통일농구대회(9.28), 민족통일음악회 및 통일농구대회(12.20~22)	북-미 고위급 3차회담(1.16), 4자회담 4차 본회담(1.18), 북-미 고위급 4차 회담(3.16), 북-미 제4차 미사일회담(3.29), 4자회담 5차 본회담(4.24), 금창리 실무조사단 방북(5.18), 미국 북한에 식량 40만t 지원 결정(5.25), 북한 정부대표단 중국 공식방문(6.3), 북-미 고위급 회담(6.22), 북한 군사대표단 중국 방문(7.14), 4자회담 6차 본회담(8.5), 북-미 고위급 제5차 회담, 북-미사일시험발사 유보 결정, 미-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9.7), 북-미 고위급 회담(11.15), 일본 초당파의원단 방북(12.1), 북-일 적십자회담 및 관계정상화 예비회담(12.19)
00	당 창건 55돌, 조국 광복 55돌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3.9),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6.13~15),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6.27),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7.14), 남북외무장관회담(7.26),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7.29),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8.29),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9.2),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한(9.11),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9.22),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	북-미 고위급회담(1.11), 북미 차관급회담(1.22),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정식 서명(2.9), 김정일,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3.5), 북-중 외무장관회담(3.18), 북-영 외교실무자회담(5.16), 북-미 차관급회담(5.24),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5.29), 미국 대북한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 북-미 베를린회담(6.19), 북-미 미사일회담(7.10), 북-러 정상회담, 조로공동선언 발표(7.19), 북-미 베를린회담(7.19), 북-일 외무상회담(7.26), 북-미 테러회

		<p>담(9.24),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9.24),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9.28),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11.8), 제1~2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8~12.5)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12.12),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12.2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12.27)</p>	<p>담(8.8), 백남순 외무상 유럽 9개국에 수교제의 편지(9.21), 북-미 차관급 회담, 북-이탈리아 외무장관회담(9.27), 북-미 공동코뮤니케 발표(10.1.2),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방북(10.23), 북-영 국교 수립(12.12)</p>
01		<p>제3차 남북적십자회담(1.29),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1.31),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2.8),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2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11.9)</p>	<p>김정일 비공식 중국 방문(1.15), 부시 정권 출범(1.20), 북-캐나다 국교 수립(2.6), 북-스페인 국교 수립(2.7), 북-러 군사협력협정 체결(4.27), 유럽연합(EU)북한과 수교 결정(5.14), 김정일 러시아 공식 방문(7.26),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8.4), 북 2개 반테러 국제협약에 서명(11.12)</p>
02	건군 70돌	<p>임동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방북(4.3), 북 경비정 NLL침범, 교전 발생(6.29),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 분단이후 첫 조총련계 학생 방한(8.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8.27), 국회의원단 방북(9.16), 남북 군사 핫라인 첫 개통(9.2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10.2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11.6)</p>	<p>국제원자력기구, 과거 북핵 규명관련 시설 방문(1.15), 부시 대통령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1.29), 경제시찰단 유럽 4개국 순방(3.4), 김정일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8.20), 북-일 정상회담, 조-일 평양선언 발표(9.17),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 방북,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시안했다고 발표(10.3~17),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10.25), 미사일 선적 북선박 아라비아해에서 스페인 군함에 나포(11.27), 제네바합의 이후 동결했던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 즉시 재개 선언(12.12)</p>
03	공화국 창건 55돌	<p>남북 적십자회담 제3차 실무접촉(1.20),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1.21), 임동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 방문(1.2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2.11), 제10차</p>	<p>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유보 철회 발표(1.10),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경고(1.11), 북-미 핵문제 협의 비공식 접촉(2.20), 미-북-중 북핵논의 3자회담(4.23), 미 하원의원 6명 방북(5.31), 일본 만경봉호 감시-안전검사 강화 결</p>

		남북장관급회담(4.2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5.19), 경의선, 동해선 연결식 행사(6.14),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7.9),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개막(7.29), 구국의 소리 방송중단 선언(8.1), 남북 경협합의서 발효(8.2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8.26), 분단이후 첫 평양관광(9.15),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10.14), 제5차 남북 직심자회담(11.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11.5)	정(6.9), 북-미 6.25전쟁 실종 미군유해 발굴회담(7.10), 중국군 고위 군사대표단 방북(8.18), 북핵 6자회담 개막(8.27), 중국 국가대표단 공식 방문(10.29), KEDO 대북경수로 건설 잠정중단 결정(11.4)
04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선포(74,2,19) 30돌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3.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5.4), 제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5.2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6.2),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6.3), 남북군합 서해 NLL서 1시간 대치(12.31)	미 민간대표단 영변 핵시설 참관(1.6), 일본 외무성대표단 남북자 송환 교섭방문(1.13), 유럽의회 정당대표단 방북(2.21), 제2차 6자회담 개막(2.25), 김정일 비공식 중국 방문(4.18), 북-일 피랍일본인가족 송환 협상(5.4), 북-일 정상회담(5.22), 제3차 6자회담 개막(6.23), 북한 군사대표단 중국방문(7.12), 러시아 연방의회 의장 친선 방북(9.12), 북-중 경제장관회담(12.13)
05	당 창건 60돌, 조국 광복 60돌 6.15 공동선언 5돌	남한 전기 북한에 처음 공급(3.16), 남북 차관급회담(5.16), 정동영 대통령 특사 방북(6.17),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 북한대표단 현충원 방문(8.14),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9.13)	미하원의원단 방북(1.8), 북-핵무기 제조, 보유 공식 선언(2.4), 북-중 정부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고나한 협정(3.22), 북-미 북핵관련 실무접촉(6.6), 제4차 6자회담 개막(7.26),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 개막, 공동성명 채택(9.13~19), 후진타오 국가주석 북한 방문(10.28),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담 개막(11.9)



## 2) 단어 빈도수 분석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 글자 수	12249	13349	13332	9211	9126	9972	10674	10256	9819	11613	12406
우 리	121	119	123	93	75	77	96	110	83	77	70
우리 인민	19	21	12	11	10	9	6	11	6	4	3
민 족 <sup>1)</sup>	38	26	20	18	17	26	31	34	31	48	32
우리 민족	5	0	7	3	4	2	4	4	5	11	4
우리민족끼리 <sup>2)</sup>	0	0	0	0	0	0	0	0	2	2	2
민족 공조	0	0	0	0	0	0	0	1	2	4	0
통 일	46	29	29	19	16	26	22	19	16	18	18
자 주	21	18	16	15	13	11	21	9	10	17	12
평 화	20	20	12	4	3	3	4	4	4	12	6
런방제	1	1	1	0	0	0	1	0	0	0	0
공동 선언							5	7	7	4	4
제국주의	5	12	6	7	7	19	4	7	10	3	1
미 제	0	0	2	1	3	1	0	2	3	1	3
미 국	2	4	1	0	0	0	0	0	3	9	3
핵	6	1	0	0	0	0	0	0	1	3	3

1) '우리민족',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포함

2) '우리민족' 포함

## ② 특이 사항

단 어	주 요 특 징
우 리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조
우리 인민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조 / 상대적으로 우리 군 등에 비해 언급이 줄 감소 / 02년의 경우 김일성 탄생 90돌의 영향으로 보임
민 족	김일성 사망 후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강조
우리 민족	특이사항 없음
우리민족끼리	6.15 공동선언 이후 민족공조의 구호로 강조
민족 공조	6.15 공동선언 이후 강조
통 일	김일성 사후 그의 통일업적에 대한 강조 차원에서 사용
자 주	특이사항 없음
평 화	고난의 행군 시기 대미 평화보장체제 구축 차원에서 강조
련방제	특이사항 없음
공동 선언	공동선언 이후 대남분야에서 꾸준히 언급
제국주의	민족의 개념이 강화되는 시기에 강조
미 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용이 절제
미 국	고난의 행군 시기 '미국' 표현이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미제와 미국을 혼용

핵	특이사항 없음
---	---------

### 3) 시기구분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기 구분	체제 안정 추구기				과도기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기					
	통미봉남을 통한 대미 평화보장체제 구축 전략					민족공조를 통한 주도적 한반도 정세 구축 전략					

### 4) 1995년~2005년 대남, 대외 분야 특징

#### ① 체제 안정 추구기 : 통미봉남(1995~1998년)

- 김일성 사망과 식량난으로 인한 국내 체제 불안에 따른 수세적 대남, 대외 전략
- 통미봉남을 통한 대미 평화보장체제 구축 전략 추구
- 대남배제전략 속에서도 민간통일운동 지원
- 남조선 통일역량강화 지원
- 고난의 행군에 따른 국내 식량난, 체제안정에 역량 집중

#### ② 과도기 : 대남, 대외 정책의 변화 추구(1999~2000년)

- 고난의 행군을 정리하고 강성대국건설 표방
- 국내 정치체제 공고화(헌법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남한에 대한 연공연복통일 요구와 제국주의 비난을 통하여 대외정책 변화의 단초 제기

### ③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기 : 민족공조, 핵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주도적 대외전략(2001~2005년)

- 6.15 남북공동선언 강조에 따른 민족공조 강조
- 부시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미 강경 전략
-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유도

### 5) 2006년 대남, 대외 분야 전망

- 표면적으로 2005년말의 한반도 정세는 1994년 제네바 협정 이후의 모습과 유사하나, 1994년의 정세가 북한이 체제안정화를 꾀하는 수세적 대외 전략의 결과라면 2005년말의 정세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공세적 대외 전략의 흐름 속에서 조성된 정세라는 점이 다름
-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은 대남, 대외 분야에서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한 큰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
  - 대남 분야에서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조선 통일역량의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대외분야에서는 민족공조와 조·중 연대의 강화를 통하여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대남, 대외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남·대외 분야에서 실리추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Ⅲ. 2006년 신년사 전망

#### 1. 형식과 분량

-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 형태를 그대로 유지
- 30분에서 35분 방송 분량의 12,000자에서 13,000자 사이

#### 2. 예상 제목

- 1) 당의 선군사상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해 나가자
- 2) 선군혁명총진군으로 세기적인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 나가자
- 3)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4) 선군시대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 5)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 6)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7) 선군혁명총진군 기치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자

### 3. 전반적인 특징

- 2006년 1월 1일을 맞아, 예년과 같이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3개의 신문 공동사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일 위원장의 육성으로 발표하는 파격적인 형식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6년 공동사설은 예년의 비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의 의미를 재강조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업적과 이를 이끈 김일성·김정일의 영도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조선혁명의 진로'와 같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당 창건 60돌'을 지낸 조선로동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강조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조국광복 60돌' 이후 '민족공조'에 기초한 자주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을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 4.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구성과 내용

- 2006년의 경우에도, 예년과 같이 2005년도 성과부문과 2006년도 과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

#### <2005년도 성과부문>

- 2005년도 성과부문에서는 당 창건 60돌을 맞은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대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선군사상에 기초해 선군정치 방식을 확산함으로써 자립적 경제력이 강화되고,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가져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 아울러 주민들의 '사회주의 문화생활'이 향상되었음을 강조
  - 또 전력·석탄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이 증대되고, 토지정리사업과 물길 공사가 성공적 추진되어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음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
- 체제 내부분제에 대한 비판이나 후계문제에 대한 암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대외적인 면에서 '반제군사전선'을 강조,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로 인해 말대 말 공약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내세우면서, 혁명의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영도를 다시 한번 강조
- 또,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민족공조에 기초한 '우리민족끼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부각

#### <2006년도 과업부문>

-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면서 6.15시대를 맞아 '통일강성대국의 길'로 전진하는 해로서의 2006년을 강조
  - 아울러 대내외의 악조건 속에서 체제내부 단속과 단결을

## 더욱 강조

- 특히,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사상교양을 강조하면서, 북한체제 전복세력 및 와해책동에 대해 경고
-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화국의 진로' 및 '후계 체제'에 대한 내용은 주체 95년(2006)의 시점에서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는 '주체 100년'(2011)이 다가오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o '정치'와 '령도'란 표현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김정일 중심체제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o 경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표명
  - 시장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과 '수출'을 강조하는 경제관련 내용을 제시
- o 대남 관련해서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민족공조'에 기초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
  - 아울러,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반미자주화를 역설
  -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사업을 세차게 추진해 나가자는 적극성을



떨 것으로 예상

- '민족공조'에 의거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
- 농업전선 강조와 비료와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남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o 대외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기초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항의 필요성으로 반제운동의 중요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
  - 특히,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초강경으로 단호하게 맞설 것을 선언하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음을 표명
  - 즉,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는 기조 유지

## 5. 예상되는 key words

- 1) 선군      2) 우리      3) 혁명      4) 당
- 5) 민족      6) 강성대국      7) 통일      8) 김정일
- 9) 농업      10) 경제

㉞

